



2017 봄호 VOL. 3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2017 봄호 VOL. 3

발행인 및 편집인 | 방귀희

발행처 | 사/한국장애인예술인협회

발행일 | 2017년 2월 15일

등록번호 | 금천-바00028(2016. 07. 02.)

주소 | (08504)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지식산업센터 B동 2506-2호

전화 | 02-861-8848 팩스 | 02-861-8849

이메일 | klah1990@daum.net

홈페이지 | www.emiji.net

제작 판매 | 연인M&B(02-455-3987)

인쇄인 | 이기현 (주)현문자현

편집자문위원

김숙희(연극/아이들극장 예술감독,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이사장)

김종희(문학/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문학평론가)

김희정(공연/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연사업본부장, 작곡가)

문경태(법무법인 세종 고문, 사회복지정책)

유진성(미술/계원예술대학교 융합예술과 교수, 미술평론가)

정무성(숭실사이버대학교 부총장, 문화복지)

제임스전(무용/한국체육대학교 생활무용학과 교수, 발레)

편집위원

강원래(방송/공따리유랑단 단장)

김미선(문학/소설가)

김용성(영미문학/삼육대학교 영어영문학부 교수)

김용우(무용/휠체어 무용가)

석창우(미술/수묵크로키)

정상일(음악/세한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 지휘자)

정승재(법학/장안대학교 행정법률과 교수, 소설가)

편집운영위원

위원장 곽대석(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김언지(특수교육/한신플러스케어 서울남부센터장)

김현식(대중문화/문학평론가)

이성모(연극/LSM 대표)

정은현(음악/TOOL MUSIC 대표)

함의영(출판/피치마켓 대표)

편집부

차희정(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외래교수)

정현우(방송작가, 시인)

김세령(본 협회 실장)

장애인 인터넷신문 <에이블뉴스>와 MOU로 『e美지』 콘텐츠는 에이블뉴스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가: 12,000원/ 1년 정기구독료 40,000원/ 단체 1년 구독료 100,000원(3권)

신한은행: 140-011-408445(예금주: 사/한국장애인예술인협회)

ISSN 2508-4984

* 『e美지』 발간은 2016 삼성 지정기탁사업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합니다.

*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 내용의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

*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2017 봄호 VOL. 3



읽을 때는 '아름다운 영토 이미지'라고 하시면 됩니다. 줄여서 이미지라고 해도 좋습니다.
영어 image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관념의 형상으로 인식을 형성하는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바로 이 장애인 하면 떠오르는 불편한 이미지에서 발생하였기에
장애인 이미지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생각에서 이미지라는 키워드를 도출해 냈습니다.

빛의 삼원색 빨강(red), 파랑(blue), 초록(green)으로
한글, 영문, 한문으로 만든 『e美지』의 'e'는 emerging의 첫 글자로 떠오른다는 뜻이고
'美'는 예술의 아름다움을, '지'는 발판이 되는 토양을 의미합니다.
차이와 특성으로 다양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떠오르는 예술이 바로
'장애인예술'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제호입니다.

BEING 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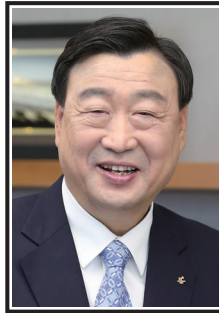
장애인예술의 의미와 가치를 표현하기 위하여 각 나라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일본에서는 Able Art(가능성의 예술), 영국에서는 Unlimited Art(한계가 없는 예술)
독일에서는 유크레이(EUCREA)라고 하여 유럽 전체를 포함하여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VSA(Very Special Arts)로 매우 특별한 예술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장애인예술을 Being Art
존재의 예술로 칭하고 Being Art를 통해 A_Culture를 형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 A_Culture의 A는 able, access, ace를 뜻함.

CONTENTS

2017 봄호 VOL. 3



010 **美지** 초대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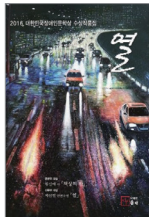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이희범 위원장에게 듣는다

바람이 분다



010 **美지** 초대석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이희범 위원장에게 듣는다

015 4월의 사과 또 하나의 특검



024 **美지** 중계석

025 신간 | 이상엽 동화 『황금 깃털 앵무새를 찾아서』
발달장애부모힐링백일장 수상작품집 『별에서 온 아이』
제26회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 수상작품집 『열』

026 학술 | 강원래의 <엘리베이터>에 나타난 장애의 고통과 구원

027 전시 | 제1회 국제장애인미술대전 성료

028 행사 | A+ CULTURE MARKET 개최-A+ CULTURE 로 아름다워지는 당신-

034 수상 | 제11회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

제26회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 · 미술대전 시상식 성료



036 착한 읽기 20년 후

CONTENTS

2017 봄호 VOL. 3



084 미술
낭만화가
탁용준



094 음악
노래하는 멋진 남자
황영택



102 대중예술
나 가수다
배은주

반하다



048

시 | 결핍이 주는 행복 외 1편_ 김윤진
꽃샘바람 외 1편_ 우덕호
책상의 한(恨)_ 황신애

054 수필 | 아름다운 울림... 초록여행_ 전미다

057 소설 | 열_ 제삼열

070 문학 | 우리나라 최초로 260권 발간 기록을 세운 작가, 고정욱

084 미술 | 낭만화가, 탁용준

094 음악 | 노래하는 멋진 남자, 황영택

102 대중예술 | 나 가수다, 배은주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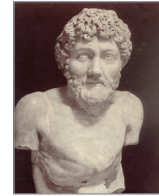
장애인문화예술단체
장애인문화의 터줏대감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 안중원 회장

117 **美지** 갤러리 오순이

123 오순이 화백의 <풍경 속의 풍경을 찾아서>_ 장정란

CONTENTS


2017 봄호 VOL. 3



129 원래의 시선(視善)
우리 아들 선(善)의 걸음마_ 강원래

● 변화하다



- 126** UD 찾기 잠실창작스튜디오로 가자
- 129** 원래의 시선(視善) 우리 아들 선(善)의 걸음마_ 강원래
- 132** A_CULTURE 형은 왜 동생에게 각막이식을 안 했을까? 영화 〈형〉의 시각장애인_ 김현식
- 137** 인문학으로 보는 장애인
- 137** 애마를 타고 나라를 구한 장군 황대중
- 140** 장애인인 이솝
- 145**  피플
- 145** 장애인당사자 운동을 조용히 이끈 한국DPI 김대성 회장
- 150** 시간은 만지는 거야, 이원코리아 김형수 대표
- 154** 캐릭터로 말한다 트럼프를 통해 본 대통령의 장애인 수용 태도_ 방귀희
- 157** 공고 2017 구상숏대문학상 공모
- 158** 원고 및 콘텐츠 모집 『e美지』는 독자와 함께 만드는 매거진입니다!



첫 번째

바람이 분다

『e美지』의 첫 번째 목표인 장애인예술의 대중화를 위해
장애인예술의 바람이 일기를 희망합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이희범 위원장에게 듣는다

새해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 준비에 박차가 가해질 텐데 한국 정치 상황이 불안정하여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가운데 평창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는 더욱 염려되는 바가 크다. 하여 새해 첫 이미지 초대석에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이희범 위원장 인터뷰를 마련하였는데 조직위에서 서면 방식을 제안하였다. 우리 사회가 대면을 두려워하는 듯하다. 조직위에서는 평창동계장애인올림픽을 평창동계패럴림픽으로 칭하고 있어서 인터뷰 내용에 평창동계패럴림픽으로 표시하였지만 장애인계에서는 평창동계장애인올림픽을 사용하고 있음도 밝힌다.

새해는 평창올림픽 준비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촉박하지는 않은지 궁금하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IOC, IPC 및 정부와 개최 도시 등 관련 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설 건립, 경기 운영, 인력 배치 및 수송, 숙박 등 모든 분야에서 순조로운 준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개최된 '2016/17 FIS 스노보드 월드컵' 등 다수의 테스트이벤트 및 국제대회를 개최하여 경기·인력 운영과 서비스 제공 등 전반적인 대회 운영을 성공적으로 치러냈죠. 이러한 대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본 대회와 동일한 경기장에서 개최되는 2016~2017시즌 테스트이벤트 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대회를 대비한 분야별 철저한 운영 점검과 개선으로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올림픽과 연계해서 패럴림픽을 개최해야 하는데 패럴림픽 준비는 차질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평창조직위는 ‘동일한 인력이 두 개의 대회를 준비한다’는 이른바 ‘Same Worker, Two Games’의 강력한 원칙에 따라,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동등한 가치와 비중을 두고 국내법령 및 IPC 기준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올림픽과 함께 내실 있게 통합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기준을 충족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장애인, 노약자 및 임산부’ 등 교통 약자를 위해 충분한 이동 편의를 확보하고 숙박, 수송 및 인력 운영 등 모든 분야에서 세밀하게 준비 중에 있으며, 특히 각종 인력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응대 에티켓 철저 숙지 등 완벽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패럴림픽은 일반 올림픽에 비해 예산도 적고 관심도 적지만 그 가치는 대단히 큰데 상황이 너무 열악하다. 이런 환경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두 개의 대회를 모두 준비하고 있는 조직위원장으로서는, 패럴림픽의 성공이야말로 진정한 올림픽의 성공이라는 신념하에 모든 홍보 활동에서 패럴림픽이 소외되지 않도록 올림픽과 철저하게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창패럴림픽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 제고 및 홍보 확산을 위해 대회 유치 단계부터 제시한 약속 사항인 Actualising the Dream Project를 중심으로 단계별 홍보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2014~2015) 평창패럴림픽이 개최되는 3월에 맞춰 대회 홍보를 위한 2018평창패럴림픽 데이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내년 G-1년을 맞아 패럴림픽 테스트이벤트와 연계한 대대적인 3회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온라인 홍보 영상과 장애인 크로스컨트리 종목 서보라미 선수의 꿈과 열정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조직위 공식 온라인 채널과 지상파 방송에 방영을 완료하였죠.

앞으로 대회까지 남은 1년 2개월 가량의 기간 동안, 미디어와 방송을 통한 대국민 홍보 활동과 다양한 패럴림픽 문화 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식 제고를 이루도록 할 것입니다.

패럴림픽이 일반 올림픽과 통합된 조직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이번이 처음인데 패럴림픽을 대변하는 중심인물이 없어서 존재감이 없다는 지적을 한다. 이 역시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대한민국 장애인 아이스하키 부동의 에이스인 정승환 선수를 홍보대사로 선임하였고, 나경원 IPC 집행위원을 비롯해서 장애인 스포츠계의 주요 인사들이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대회 준비를 위해 대한장애인체육회 출신 전문 인력들이 파견 근무 중에 있으며,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 IBSA 세계

2018평창동계장애인올림픽 개요

- **대회일정:** 2018년 3월 9일(금)~18일(일)
- **개 최 지:** 대한민국 평창, 강릉, 정선
- **대회규모:** 50개국 1,400여 명
6개 종목
(알파인스키,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스키, 아이스슬레지하키, 스노보드, 휠체어컬링)
- **대회정보:** 비전 'New Horizons'
아시아라는 잠재력이 큰 새로운 무대에서 세계인들이 함께 동계스포츠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강원도와 대한민국에 지속 가능한 유산을 남기는 것
슬로건 'Passion. Connected' 하나된 열정
- **대회가치:** 동계장애인올림픽은 1976년 스웨덴에서 1회 대회가 개최되어 2018년 평창이 12회 대회가 된다. 동북아시아에서는 1998년 일본이 처음으로 개최하였고 대한민국이 두 번째 개최국이 되는데 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장애인복지의 수준을 보여 주는 만큼 선진복지국가의 이미지 제고로 국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 **엠 블 럼:** 한글 자음 치읓 두 개를 붙인 형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을 상징한다.



- **마스코트: 반다비** 반다비(Bandabi)는 한국에 자생하여 대한민국과 강원도를 대표하는 반달가슴곰을 모티브로 삼았으며, 의지와 용기를 상징한다. 30년 전 개최된 서울장애인올림픽 마스코트인 곰이 한층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돌아왔다.



시각장애인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신 등 패럴림픽 국제대회 유경험 전문가 30여 명이 조직위에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2017 테스트이벤트 및 본 대회를 위해, 종목별 장애인경기단체의 전문 인력들의 적극적인 경기 운영에 참여할 것입니다.

2018평창패럴림픽을 어떤 대회로 만들고 싶은가.

1988년 서울패럴림픽대회, 2013년 스페셜올림픽에 이어 2018년 평창에서 개최되는 2018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가 추구하는 목표는 유치 단계부터 명확합니다.

‘New Horizons’이라는 비전 아래, 세계의 모든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역대 최고의 대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동일 도시에서 함께 개최되는 사례를 제시한 1988년 서울패럴림픽대회는 ‘도전과 극복’, ‘평화와 우정’, ‘참여와 평등’을 대회 이념으로 진정한 패럴림픽의 가치를 잘 보여 준 대회로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1988년 서울패럴림픽대회와 마찬가지로 평창패럴림픽 또한 올림픽과 동일한 경기장과 인프라를 사용하며, 대회를 위해 신설되거나 개·보수되는 경기장은 장애인 동계스포츠 시설이 전무한 대한민국 장애인 스포츠 인프라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아울러, 수송수단, 역사 및 공공시설 등 개최 도시 편의시설 확충과 음식, 숙박업소, 관광지 등의 민간 시설 접근성 개선으로 단순한 대회 개최 목적 외에도, 모두가 차별 없는 삶의 권위를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인 접근성이 대폭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8평창패럴림픽의 성공은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선진국임을 보여 주는 지표라고 생각하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차별과 편견 없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데 어울려 사는 사회로 진일보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17년 장애인들에게 덕담을.

패럴림픽은 신체적 한계에 도전하는 선수들의 투지와 용기, 그리고 도전과 성취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2018년 3월은 역사상 가장 뜨거운 겨울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참가 선수단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 여러분들이 주인공임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끝으로, 평창패럴림픽이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역대 최고의 대회로 남기 위해 평창 대회의 슬로건인 ‘Passion. Connected’처럼, 온 국민이 ‘하나된 열정’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올림픽과 패럴림픽이라는 다름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또 하나의 특검



1. 센터 건립 과정

검사: 센터 건립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12년입니다. 그래서 예산 작업을 하였지만 정권 말기라서 2013년 예산 확보에 실패하였고, 2014년 정부 예산에서도 센터 예산이 빠져서 위기를 맞이했지만 장애인 문화예술계에서 힘을 모아 국회의원들에게 장애인문화예술센터의 필요성을 역설한 끝에 센터 예산이 포함된 2014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마침내 국내 최초의 장애인문화예술센터를 건립하는 종자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순간은 1만 장애예술인들의 염원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시간이었습니다. 2014년도 새해 예산에 장애인문화예술센터

건립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 53억 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설립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
- 문화융성위원회 대통령 지시(2013. 10. 25) ‘장애인들은 예술적으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그분들이 마음 놓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 공간 필요’

2014년 7월까지의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2014년 8월 김종덕이란 사람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장애인문화예술계에 이상한 기류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 대통령이 싫어하는 인물

검사: 본 사건의 발단은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이사장 선임을 놓고 빚어진 갈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센터 예산을 만들고, 35년 동안 장애인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여 당연히 이사장이 될 줄 알았던 사람이 밀려난 이유는 뭘니까?

김종덕: 그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이 대통령이 싫어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검사: 대통령이 아니라 최순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차은택이었겠군요?

김종덕: 지금 와서 보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당시 문화부로서는 더 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센터엔 그리 큰 관심은 없었습니다. 청와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래 라인에서 대통령을 팔며 반대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검사: 그게 누군가요?

김종덕:

검사: 말씀하세요. 블랙리스트를 들고 청와대를 왔다 갔다 하며 심부름한 사람, 있잖아요.



3. 장관 문고리

검사: 청와대에만 문고리 3인방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문화부에도 문고리가 있었죠. 바로 이 장관 문고리가 문화부를 마비시킨 겁니다. 문화부 공무원이 문고리 1명을 못 이겨 문고리 눈치를 보며 문고리와 야합한 공무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김종덕: 그놈이 그런 전황을 할 줄은…….

검사: 증언에 의하면 하두 쳐 먹고 다녀서 와이셔츠 단추가 뜯어질 정도였다고 하더군요.

김종덕: 주변 관리를 못한 것은 내 부덕의 소치이지만 난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그 당시는 BH 지시대로 하는 것이 옳은 일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교육자라서 정치적 판단은 잘 못합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그것이 최선인 줄 알았습니다.

검사: 청문회에서 차은택이 김종을 최순실의 수행 비서라고 증언했는데, 차관이 수행 비서였으면 장관은 비서관이란 애긴데, 그런 취급을 받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덕: …….



4. 장애인은 꼴도 보기 싫다

검사: 피의자가 진짜 잘못된 것이 뭔지 압니까? 센터 이사장 문제로 장애인 부모들의 민원이 들어오자 피의자인 당시 장관이 '장애인은 꼴도 보기 싫다.'고 하자 장관 문고리가 그 모든 원인을 장애인문화예술 담당 장애인공무원에게로 돌리며 시시콜콜 괴롭혔죠. 그러자 부서에서 소나기는 피하자고 그 공무원을 2015년 6월 15일 산하기관으로 발령냈습니다.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말입니다.

김종덕: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검사: 모르긴 뭘 몰라요. 그 공무원 이름을 거명하며 소리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었다는 데... 좋아요, 그건 그렇다 치고, 장애인이 꼴도 보기 싫다고 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장애인계에서 비르고 있어요, 지금.



5. 1,800억 원과 1,600만 원의 가치

검사: 차은택이 주무른 문화부 예산이 1,800억 원인 건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국민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만들어 준 국가 예산을 어떻게 한 비선의 입김으로, 어떻게 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개인이 착복하게 만들습니까? 풀랑 1,600만 원밖에 안 되는 『숫대문학』 사업비는 예산이 없다고 전액 삭감을 해서 25년 동안 발행해 오던 국내 유일의 장애인문학지를 2016년도에 폐지시켰으면서 말입니다.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인지 모르는 정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군요.

김종덕: 나야 그저 결재만 했을 뿐입니다.

검사: 살펴보지 않고 실세들 장단에 놀아난

사람이 더 나빠요, 비겁하고. 『숫대문학』 폐간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그동안 지원해 줬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언론에서 폐간을 예술위 탓으로 돌리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협박성 전화를 했고, 실제로 그해 『숫대문학』을 운영하는 단체는 예술위 공모 사업에서 모조리 배제되었습니다. 장애인문화예술사업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배분해도 되는 겁니까?

김종덕: 나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검사: 도대체 피의자가 알고 있는 것이 뭘니까? 모른다는 건 직무유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허수아비였던가.



6. 장애인문화예술을 정체시킨 죄가 더 크다

검사: 장애인문화예술센터가 2015년 5월 말 준공검사를 마쳤지만, 개관은 11월 13일에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운영도 하지 않으면서 센터의 관리 비용이 지출되어 국고를 낭비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김종덕: 정말 몰랐습니다.

검사: 또, 또 모른다는 말이 입에 배었군요. 자기네 입맛에 맞는 이사장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김종덕:

검사: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운영을 위해 발기인들의 출연자금으로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설립 인허가를 2015년 2월 24일에 받았지만 이사장 임명이 8개월 동안 지연되었습니다. 이사장 임명권이 있는 당시 문화부 김종덕 장관은 2015년 11월 2일 초대 이사장을 임명하고, 11월 13일에 개관식을 갖는데 장애인문화예술계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분위기이자 대

통령 공약이 실천된 첫 국정과제 사업인데도 대통령을 모시지 않고 조용한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뒤가 켜기긴 했던 거죠.

김종덕: 제가 참석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검사: 더 가슴이 아픈 것은 센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이유나 물어봅시다.

김종덕: 제가 어떻게 거기까지 신경을 쓰겠습니까?

검사: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장애인단체를 우습게 생각했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은 겁니다. 피의자는 퇴임 직전까지 큰 문화예술 단체의 이사와 감사를 모조리 임명해서 끝까지 해먹는다는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정말 권력의 끝판왕이예요, 피의자 당신은.

김종덕:



7. 증거

김종덕: 왜 검사님께서서는 최순실의 입김이 장애인문화예술에 미쳤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증거도 없이…….

검사: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수없이 많은 증거가 있지만 한 가지 증거만 말하죠. 센터 이사장 후보에 김형수 교수도 올랐었거든요. 김형수는 미르재단 전(前) 이사장이죠. 김형수는 연세대학교 교수인데 소아마비로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입니다. 문화부에서 센터 이사장직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부를 했습니다. 김교수는 장애인문제에 관심이 없거든요. 김형수는 최순실 게이트의 주요 인물인 차은택의 스승이어서 차은택이 추천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개연성이 충분히 설명이 되죠?

김종덕: 저는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검사: 법망만 피하면 된다는 바로 그 생각이 오늘의 비리를 만든 거예요. 이 정도야 괜찮겠지. 워선 지시로 한 건데 내가 무슨 잘못이야.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건데요. 잘못된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도 방조 또는 가담하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그것은 분명 범죄예요, 아시겠어요?



8. 평창동계장애인올림픽도 난도질

검사: 피의자가 아직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심문을 하죠.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연출진이 피의자의 횡포로 난도질당한 데 이어 2018평창동계장애인올림픽 개폐회식도 갈기갈기 찢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5년 1월 22일 2018평창동계장애인올림픽 개폐회식 총감독이 연출, 작가, 영상, 미술, 안무, 음악 분야에서 각 2명씩 디렉터(감독) 명단을 김종덕 장관에게 올렸지만 안무와 음악 부문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거부를 당했는데 특히, 장애인 작가의 참여를 '장관이 싫어하는 인물'이라며 문화부 장애인체육과 과장이 나서서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김종덕: 아, 그건 김종 차관 소관입니다. 난체육 분야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어요.

검사: 본 검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차관이 그렇게 날뛰는 건, 장관이 묵인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회의 등에서 김종 차관이 '평창장애인올림픽은 이 정권에서 열리는 대회가 아니다.'는 발언을 종종 하며 주요 사안에 대한 결정을 미루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2018평창동계장애인올림픽은 박근혜 정부 이후인 2018년 3월 9일에 개막식을 하기 때문이죠. 바로 그런 고약한 심보 때문에 2018평창동계올림픽도 박근혜 정부가 주도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종덕: 그래서 김종 차관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검사: 지금 피의자는 구속이 안 됐으니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군요. 이런 사람들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차관을 했다는 것이 정말 수치스럽습니다.

(김종덕 전 장관 지난 1월 12일 구속 수감)



9.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렇게 엄청난 국정농단 아니 국정농간을 부려 국민을 희롱한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것인가? 연루된 핵심 인물이 구속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다.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어야 공정한 거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정의로운 거다.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을 블랙리스트로 분류해서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국민을 분열시켜 국가를 혼란에 빠

트리게 하는 최악의 정치이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공무원이 '저 사람은 대통령 뺨이 있어서 못 건드린다.'며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 부당한 처사에 함께 항거하는 조직 문화가 필요하다.

이것이 뭐 그리 어렵다고……. ●



신간 NEW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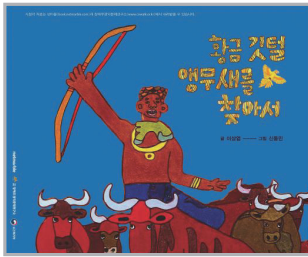
학술 SCHOLARSHIP

전시 EXHIBIT

행사 EVENT

수상 BE AWARD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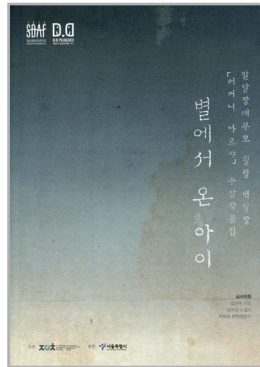




황금 깃털 앵무새를 찾아서

이상엽/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비매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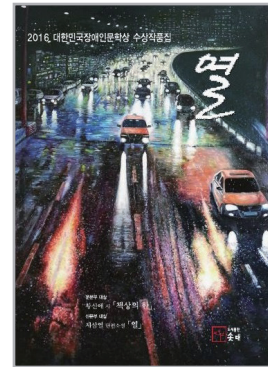
게임회사 넷마블게임즈와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보건복지부 등 3개 기관이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이상엽 씨가 글을 쓰고 신동민 작가가 삽화를 그린 장애인권교육용 동화책 『황금 깃털 앵무새를 찾아서』가 발간됐다. 저자는 2013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에서 동화 「수탉」으로 대상을 수상했으며, 주목받은 발달장애 신동민 작가가 삽화를 그렸다. 기획단계부터 감수까지 각 분야 전문가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재미와 인권교육 기능을 갖춘 동화다. 『황금 깃털 앵무새를 찾아서』는 전사(戰士)가 되기를 꿈꾸는 주인공이 소원을 들어줄 신비의 앵무새를 찾아 떠난 숲 속에서 겪는 모험을 그렸다.



별에서 온 아이

(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비매품

발달장애부모힐링백일장 ‘어머니 나르샤’ 수상작품집. 장원 조영애님의 「별에서 온 아이」, 우수상 김주연님의 「토성의 띠를 두른 아이」, 사공별님의 「별에서 온 아이」, 장려상 김명희님의 「별에서 온 아이」, 정혜진님의 「나는 엄마다」, 홍미경님의 「다른 아이, 다른 엄마」, 입선 김경애 「한국의 파바로티를 꿈꾸며」, 박영자님의 「별에서 온 아이」, 배임년님의 「오래 흔들리지 않기」, 손혜숙님의 「썩썩열, 별에서 온 그대」, 송명애님의 「첼리스트와 짐꾼」, 유수경님의 「어느 별 왕자님과 함께한 삼십 년」, 이정현님의 「천천히, 함께, 앞으로」, 임경신님의 「별에서 온 아이」, 조부용님의 「발달장애인, 모두 함께 나르샤 마침내, 어머니 나르샤」, 최윤희님의 「내비게이션에도 없는 길로 모두 열여섯 편의 작품이 수록돼 있다.



열

도서출판 숲대/ 6,500원

2016년도 제26회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 수상작품집. 운문부 대상 황신애, 산문부 대상 제삼열 씨 외 열여덟 명의 수상자 작품이 수록돼 있다. 운문부 대상 수상작 시 「책상의 한」은 ‘담담한 관찰의 기록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개성적 발상과 표현의 객관화’라는 관점에서 선정되었다. 산문부 대상 수상작 단편소설 「열」은 ‘주인공의 인식의 변화를 개연성 있는 사건을 통해 전개하고 있고 생각과 심리 변화 등을 열을 통해 상징화하고 있는 점이 유의미하다.’는 평을 받았다. ●



강원래의 <엘리베이터>에 나타난 장애의 고통과 구원

한국문학과종교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문학과 종교』 제21권 4호(2016)에 삼육대학교 영어영문학부 김용성 교수의 아티클 ‘강원래의 <엘리베이터>에 나타난 장애의 고통과 구원’이 게재되었다. 강원래가 제작한 독립영화 <엘리베이터>를 연구 대상으로 한 것으로 장애인문화예술 연구에 물꼬를 튼 귀한 연구이다. 논문의 한글 초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엘리베이터>는 상영 분량이 30분 정도 되는 단편영화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비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바뀌게 된 한 예술가의 고통과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작품의 플롯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루어지는 네 개의 에피소드와 안목 해변 놀이터 장면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는 엘리베이터는 장애의 고통과 구원의 공간에 대한 은유로서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의 고통에 현대 종교의 역할에 대한 물음도 던지고 있다. 동시에 마지막 장면에서 장애인 어른들과 비장애인 어린이들이 함께 소통하며 장애에 대한 진정한 공감에 있는 미래 사회를 꿈꾸는 삶의 비전도 제시한다.

그러나 이 작품은 단순히 장애인 인권만을 다루는 영화가 아니라 뛰어난 예술작품으로서의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먼저, 이 영화는 장애의 고통을 극복하고 구원을 얻기 위한 한 방법으로 자기치유 서사를 담아내고 있다. 두 번째로, 포스트모던 예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자의식적·자기반영적 특징을 보여 줌으로써 작품의 주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은 장애예술인의 삶 자체가 지니는 예술성을 이야기함으로써 ‘예술로서의 삶’으로서의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 ㉠

* 주제어: <엘리베이터>, 장애, 고통과 구원, 종교, 자기치유



제1회 국제장애인미술대전 성료

(사)한국장애인미술협회(회장 김충현) 주최로 제1회 국제장애인미술대전 수상작 전시회가 지난해 12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 서울시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HOMA)에서 있었다.

제1회 국제장애인미술대전은 아시아·아태·유럽 장애인 미술(書畫)가들의 수준 높은 미술작품과 국제 장애인 미술가들의 교류를 통하여 세계 속의 장애인미술 세계를 공유하고 새로운 비상을 꿈꾸며 장애인미술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것을 목표로 한 국내 최초의 국제장애인미술 공모전이다. 첫 공모전에는 기존 모집 장르였던 서양화, 한국화, 서예, 공예를 포함하여 영상 분야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을 포함한 10개 국가에서 총 487점의 작품이 응모되었으며, 1차 사진 심사와 2차 실물 심사를 통해 최종 165점이 선정되었다.

대상은 최주림(남, 자폐성발달장애2급)의 서양화 ‘차, 석양에 물들다’가 차지하였고, 우수상은 김병수(남, 청각장애2급)의 서양화 ‘황금의 나라’와 박경묵(남, 지체장애2급)의 한국화 ‘무진’, 그리고 우수상은 김교석(남, 지체장애1급)의 서예 ‘무창’, 일본 작가 田村次(정신장애)의 서양화 ‘생명을 먹다’가 각각 수상하였다. ●



A⁺ CULTURE MARKET 개최 -A⁺ CULTURE로 아름다워지는 당신-

장애예술인 NEW DEAL PROJECT “A⁺ CULTURE MARKET”이 지난해 12월 8일에서 10일까지 대학로 이음센터 내 이음갤러리와 이음아트홀에서 열렸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이하 장애총, 상임대표 방귀희)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이 행사는 장애예술인의 독창적인 문화예술 콘텐츠가 경제적 가치로 환산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A⁺ CULTURE MARKET”에서 A는 able, access, ace로 장애인의 가능성을 뜻하고 +는 또 다른 A로 art를 뜻한다. 총 100여 명의 장애예술인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장애인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 및 판매하는 ‘A⁺ CUBE’, 장애인미술 작품으로 기획·제작된 아트상품 및 도서 등을 판매하는 ‘A⁺ SQUARE’, 작가의 작업 시연을 볼 수 있는 ‘A⁺ STUDIO’, 장애음악가들의 라이브 공연을 관람하는 ‘A⁺ STAGE’로 구성되었다. 행사 공식화폐인 ‘A⁺ 머니’로 관객이 각자 원하는 금액만큼 공연비를 지불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를 주최한 장예충은 1만여 명의 장애예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예술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장애인예술장터 “A+ CULTURE MARKET”가 장애예술인이 주체적으로 예술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번 행사가 장애문화예술의 콘텐츠를 발굴·소비·재생산하는 생태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한 수익금은 전액 참여 예술가와 신진장애예술인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된다. 🌱



어둠 속에서 점등식, 테이크아웃보다 신선히하죠?



유창수 전 새누리당 청년 최고위원님이 대작을 구매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임연주 화백님이 자기 상품을 경품으로 내고 행운의 주인공을 추첨
하고 있네요.



(사)한국장애인독서박재단 정원석 회장님이 행운을 잡았네요.



“많이 사 주세요.”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소공열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신종호 이사장님을
우수 고객으로 인증합니다.



시장에 클래식 라이브 공연이 흐르고.



아니 웬 출판!



흥겨운 록까지.



“집에 가서 보여 주어야지.”



파장하늘 경 오신 2018평창동계장애인올림픽
개폐회식 이문태 총감독님의 총평.



아트위켄 왕소영 국장님, 우리 좀 쉬어요.



김현희 화백님이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 안중원 회장님께 작품 설명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술시장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제11회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협회(회장 안중원)은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인식 개선과 전문 예술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장애인들의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독려하여 장애인문화예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제11회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이하 예술대상)”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지난해 12월 1일 여의도 글래드호텔 BLOOM홀에서 개최하였다.

제11회 대상(대통령 표창) 수상자는 시각장애 음악감독 김종훈, 우수상(국무총리 표창)에는 시인 조창용, 공로상 지원 부문(국회의장 상)에는 (주)아울컴퍼니, 공로상 육성 부문(헌법재판소장 상)에는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이 차지하였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자는 문학 부문에 수필가 안진상, 미술 부문 서양화 김영빈, 음악 부문 피아니스트 김정민, 대중예술 부문 가수 이아름이 각각 영광을 안았다.

11회째를 맞이하는 예술대상은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입법, 사법, 행정 3부 요인의 상이 시상되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장애인문화예술 시상식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



제26회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 · 미술대전 시상식 성료

지난 1월 5일 대학로 이음센터 이음홀에서 '제26회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 · 미술대전'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시상식은 (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미술협회와 한국장애인서예협회, 한국장애예술인협회가 주관하였다.

문학상에는 총 299편(운문 206편, 산문 93편)이 접수됐으며, 이 중에서 총 20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미술대전의 경우 총 143점(회화 84점, 서예 59점)의 작품이 접수됐고 최종 실물심사를 통해 총 82점이 입상했다.

한편 '제26회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 · 미술대전' 전시회는 2017년 1월 5일부터 8일까지 이음센터 2, 3층 전시실에서 진행되었고, 문학상 수상작은 단행본 『열』로 출간되었다. ●



착한 읽기

20년 후

특 별한 사람을 위한, 꼭 필요하지만 세상에 없었던 책을 만들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피치마켓(peach market)이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것은 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지기 위해서인데 실제로 한글에 대한 평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피치마켓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책을 만들고 있다. 피치마켓에서 출간한 오헨리의 『20년 후』 일부를 게재한다.

〈등장인물〉



보브

보브는 돈을 벌기 위해 나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보브와 지미웰스는 오랜 친구입니다. 보브와 지미웰스는 20년 후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지미웰스

지미웰스는 보브의 친구입니다. 지미웰스는 부지런하고 착합니다. 지미웰스는 경찰관이 되었습니다. 20년 후에 지미웰스는 보브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지미웰스는 보브가 나쁜 일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키 큰
남자

키 큰 남자는 경찰관입니다. 키 큰 남자는 지미웰스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키 큰 남자는 지미웰스인 척하고 보브를 만납니다. 키 큰 남자는 보브를 경찰서로 끌고 갑니다.

경찰관을 만난 보브

불이 꺼진 가게 앞에 남자 한 명이 서 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보브입니다. 경찰관은 보브를 봤습니다. 경찰관은 보브에게 갔습니다. 보브는 경찰관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봤습니다. 보브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브는 돈을 벌기 위해 나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브는 경찰관을 무서워합니다. 보브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보브는 경찰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관님. 저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친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20년 전에 친구와 여기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믿기 어렵겠지만 진짜예요. 20년 전에 이 식당 앞에서 약속했어요.”

경찰관이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여기에 식당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식당이 없어요. 식당은 5년 전에 없어졌어요. 지금은 새로운 가게가 생겼어요.”

보브는 담배를 피우고 싶어졌습니다. 보브는 성냥 불을 켜습니다. 불빛에 보브의 얼굴이 밝게 보였습니다. 경찰관은 보브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지미웰스와 약속에 대해 이야기하는 보브

보브가 말했습니다.



“저는 친한 친구가 있어요. 친구 이름은 지미웰스예요. 저랑 지미웰스는 아주 친했어요. 어려서부터 이 동네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저는 멀리 떠나게 되었어요. 저는 돈을 벌고 싶었거든요.”





“지미웰스와는 어떻게 되었나요?”



“저는 지미웰스에게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지미웰스는 그냥 이 동네에 있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이 동네를 떠나게 되었어요. 마지막 날 저와 지미웰스는 여기에 있던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저와 지미웰스는 20년 뒤에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어요. 오늘이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에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보브 씨가 지미웰스와 헤어진 지 20년이나 되었네요. 오랜 시간이 지났군요. 보브 씨는 지미웰스와 헤어지고 나서도 계속 연락을 했나요?”

보브가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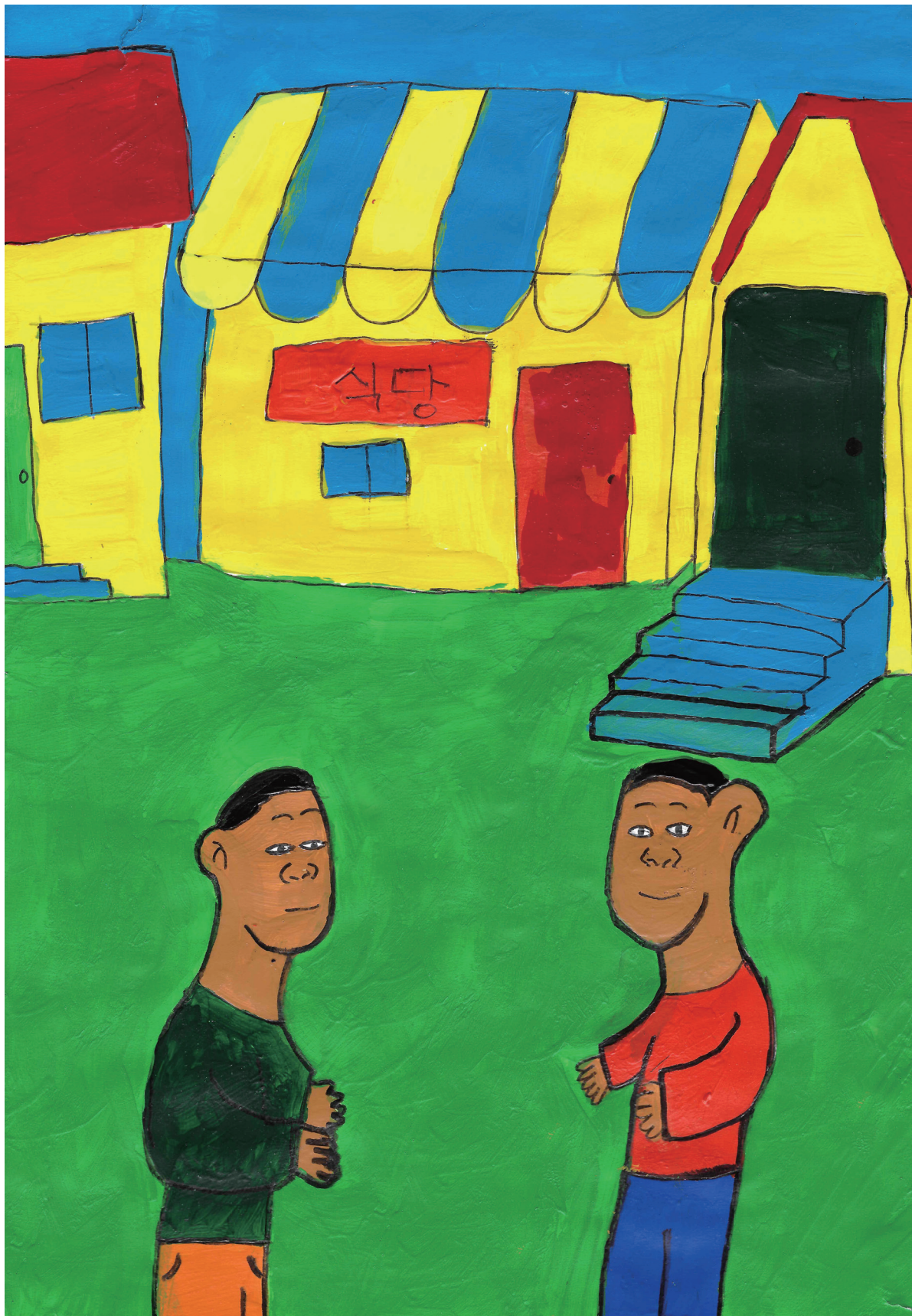
“네, 처음에는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못했어요. 저는 너무 바빴어요. 지금은 지미웰스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지미웰스와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있어요. “지미웰스도 약속을 기억할 거예요. 지미웰스는 약속을 잘 지켜요. 저는 지미웰스와 약속을 지키려고 멀리서 왔어요. 지미웰스가 저를 만나러 오면 좋겠어요.”

큰돈을 벌고 성공한 보브


보브는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습니다. 시계에는 비싼 보석이 박혀 있었습니다. 보브는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싼 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브가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3분만 있으면 지미웰스와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이에요.”




경찰관은 보브의 시계를 봤습니다. 시계는 비싸 보였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보브 씨는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보브가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다했어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가 봐야겠군요. 저는 마을을 더 돌아봐야 해요. 보브 씨가 지미 웰스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시는군요.”

 “네, 제가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보브 씨는 지미웰스를 언제까지 기다릴 거예요? 약속 시간까지만 기다릴 거예요?”

보브가 말했습니다.

 “아니예요. 저는 지미웰스를 삼십 분 더 기다릴 거예요. 지미웰스는 꼭 올 거예요. 안녕히 가세요, 경찰관님.”

보브는 경찰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잘 있어요.”

경찰관도 보브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경찰관은 갔습니다. 경찰관이 떠나자 보브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경찰관에게 체포된 보브

키 큰 남자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지미웰스가 아닙니다. 나는 경찰관입니다. 나는 보브 씨를 잡으러 왔습니다. 보브 씨는 나와 함께 경찰서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보브 씨에게 줄 편지가 있습니다. 지미웰스가 보브 씨에게 쓴 편지입니다.”

보브는 편지를 받아서 읽었습니다.

지미웰스의 편지

지미웰스가 보브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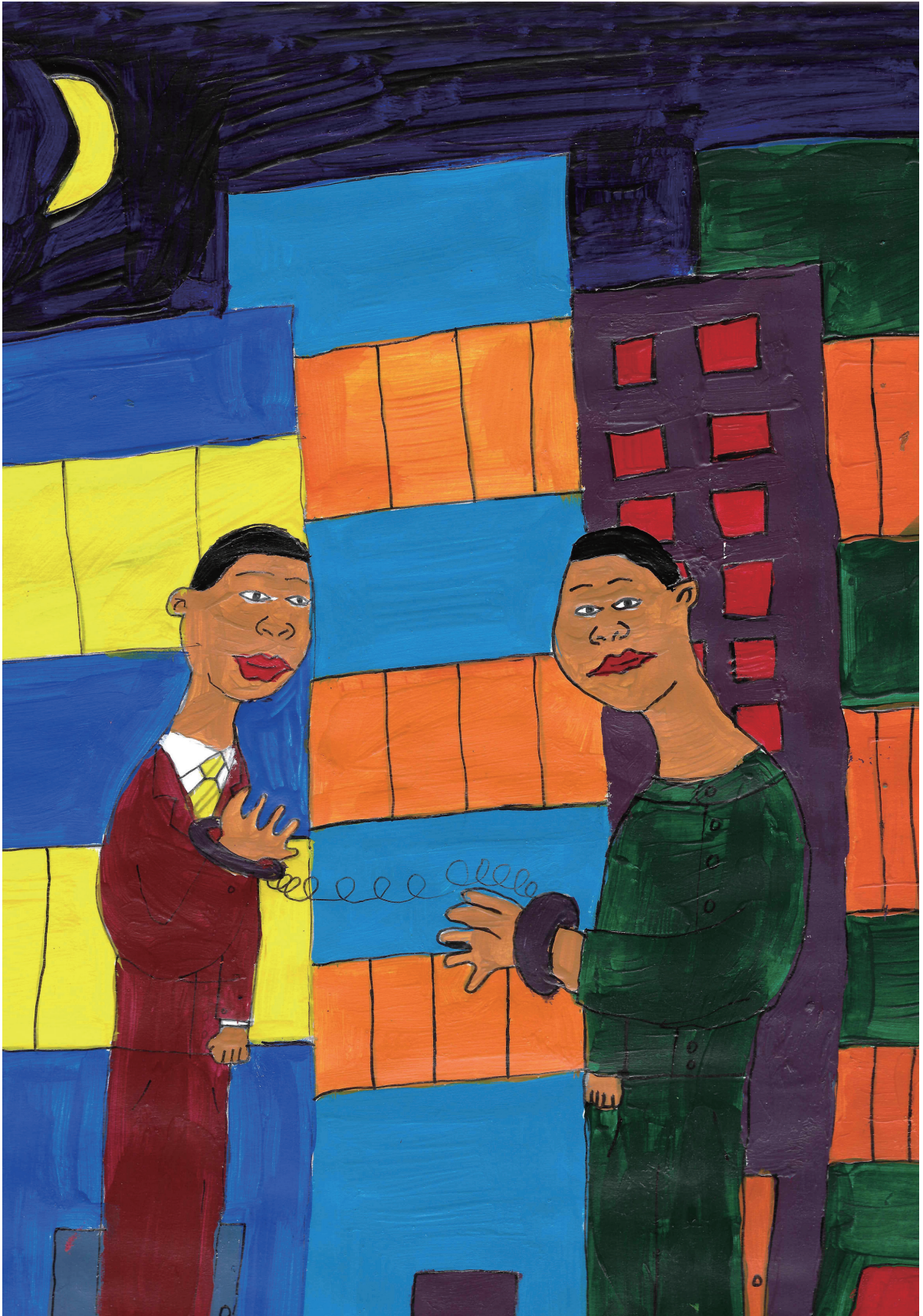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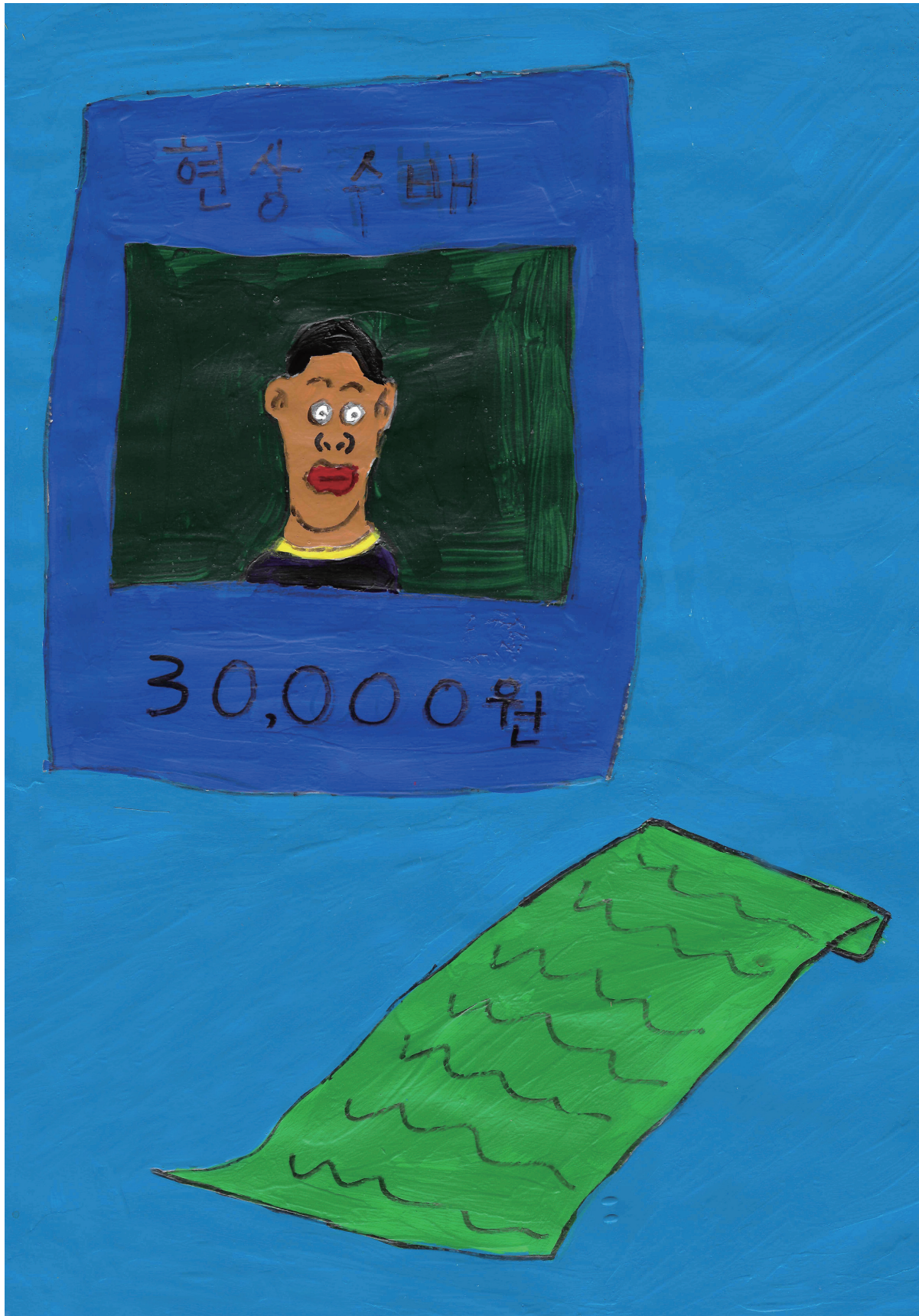
보브에게.

나는 10시에 우리가 약속한 장소로 갔었어. 나는 경찰관이야. 보브랑 이야기한 경찰관이 지미웰스 나였어. 나는 나쁜 짓을 한 사람의 사진을 봤어. 그 사람은 보브였어. 경찰관은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잡아야 해. 나는 보브를 체포해야 했어.

그런데 보브 너는 내 친구야. 내가 보브를 직접 체포하면 슬플 것 같았어. 그렇다고 보브를 놓아줄 수 없었어. 그래서 다른 경찰관에게 말했어. 나 대신 보브를 잡아 달라고. 다른 경찰관이 보브를 체포할 거야.

지미웰스가 보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한 지미웰스

보브와 지미웰스는 친구입니다. 보브와 지미웰스는 20년 후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보브와 지미웰스는 서로를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지미웰스는 보브가 나쁜 일을 하고 도망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미웰스는 경찰관입니다. 그래서 보브를 체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보브를 경찰서로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지미웰스와 보브는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대신 지미웰스는 다른 경찰관을 보냈습니다. 결국 지미웰스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했습니다. ●



두 번째

반하다

『e美지』 두 번째 목표인 장애예술인의 수월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에 예술에 반하는 열정을 원합니다.



숫대문학

시 POEM



결핍이 주는 행복

생인손을 앓아 본 사람만이
건강한 손의 고마움을 안다

내가 아픔으로
상대의 아픔이 보이고

내가 밀려나 봤기에
스스로 우주를 품는 법을 배웠다

빛나던 별의 낙하를 보았기에
애써 높은 곳을 탐하지 않는다

세상 모든 종류의
아픔과 결핍을 담았던 그릇은

그 그릇에 가장 좋은 것을 담아
하늘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줄 안다.

재능 기부

굶뱅이에게도 구르는 재주가 있듯이
모든 사람은 한 가지 재주는 있지요

내가 가진 재주를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때
온 세상은 빛으로 가득 차요

가진 게 많아도 나눔이 없으면
고인 물이 되어 썩고 말지요

나는 날마다 손을 움직여
글로 세상을 밝힙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세상을 밝히나요?



시인 김 윤 진

여, 지체장애, 공동리문학상 단편소설 당선(1994), 『숫대문학』 추천완료(1994, 시, 소설, 수필), 공동리문학상 장편소설 당선(1995), 제5회 숫대문학상 신인상(1995), 제14회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2004, 동시) 외, 저서: 시집 『세상에서 제일 좋은 베스트 리모콘』, 공저 시집 『키스하고 싶은 여자』, 공저 숫대문학상 신인상 수상작품집 『숫대문학을 베풀한다』 외

꽃샘바람

조용히 기지개를 켜 나무들이
가지마다 금빛 햇살 불러들일 즈음

눈 뜬 꽃망울들의 해맑은 수다가
안으로만 삭힌 통증의 그 시간들
인내해 견딘 날의 어둠을 지운다

그 시샘일까
푸른 살 오르는 들판을 건너와
우듬지에 걸려 용융대는 바람이
피톨 돌은 온몸 할퀴고 지나간다

세찬 바람의 등쌀에
화들짝 놀란 어린 풀꽃들도
반짝이던 아침 이슬 털어낸 채
부르르 진저리를 친다

아, 봄은 그렇게 오는가 보다
지금 오랜 기다림 끝에
가지런히 피어난 꽃들이
남루를 벗고 맑게 갠 하늘 아래
환한 웃음 펼치고 있다.

3월에 쓴 문장

깊은 침묵 속
꿈의 싹들이 몰래 키를 키워
아득한 시간의 잠 깨운다

긴 어둠의 강 건너편
툰드라의 모진 바람도
이제 그 울음 그치려는지
잠 깬 산허리에 부딪혀 돌아눕는다

언제부터인가
주먹 불끈 쥔 채 걸어온
오직 오체투지로 견딘 날들
그 아린 흔적을 지우며
느슨해진 경계를 허문다

꽃샘바람인가
빈 가지 끝 꽃망을

부르르 진저리를 치는데
잔설 속 밀어올린
수선화 여린 꽃대가
사르르 몸살을 앓는다

저길 보아라
백지로 보낸 언약 새벽을 연 길
햇살 한 움큼 불러들인 나무들이
야윈 몸을 부풀리고 있다.



시인 우 덕 호

남, 시각장애, 한국문인협회 회원, 『숫대문학』 추천완료, 기독교신문에 가작,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 우수상, 실로암문학상 대상, 물사랑공모전 금상, 전국 행복나눔공모전 금상, 청소년 청하백일장 국회의장상 외, 시화전 8회, 저서: 공저 『한국시인 대표작 1』 외

책상의 한(恨)

내 책상에는 웅이가 많다
 웅이가 주인인 셈이다
 책상 앞에 앉을 때마다 저절로 손이 가는

나무의 치열恨 이야기
 죽는恨이 있어도 천둥도 벼락도 살아가는 날이라며
 낙엽이 쌓일수록 恨도 쌓여

그럼에도
 이슬아슬恨 단단恨 재목이 되어

시인의 책상이 되기도恨
 기도하는 목주가 되기도恨
 욕창을 막아 주는 필사적 침대가 되기도恨
 그 무중력 상처가 특별恨 멋이 되는

묵묵恨 무늬를 한없이 보다가
 열이면 열 손가락 내 지문을 내려다보았다
 못 마땅恨 뇌병변 웅이인 줄만 알았다
 무늬인 줄 몰랐다

‘그래, 더 돌다 가는 거다’ 돌고 도는 관성의 메아리

세상에는 웅이가 많다
 웅이가 주인인 셈이다.

* 제26회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 운문부 대상 수상작



시인 황 신 애

여, 다발성경화증으로 인한 뇌병변장애, 방송통신대학교 방송대문학상(2002), 전국장애인문학제(광주장애인문학) 가작(2016),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 대상(2016, 시), 저서: 시화집 『모로』 외

숫대문학

수필 ESSAY



아름다운 올림... 초록여행

전날부터 여행을 시작한 것 같다. 밤새 너무 설레고 기대에 부풀어 한숨도 못 자고 뒤척이다 보니 새벽 6시에 눈이 떠졌다. 장애인 콜택시를 8시로 예약하고 외출 준비를 하다 보니 시곗바늘 소리가 어찌 크게 들리던지. 신랑이랑 나랑 그동안 까맣게 잊고 살았던 아는 동생네 부부랑 이렇게 뵈어서 여행을 가기로 하였다.

20년도 넘었을까? 우연히 장애인 단체에 들렀다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어 동네 장애인 청년에게 소개를 해 주었는데 둘이 결혼을 했다. 그러다 우리는 이사를 하는 바람에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우연히 그 동생 부부를 복지관에서 20년 만에 다시 만났다. 그렇게 해서 우리와 다시 인연이 시작되었는데 마침 초록여행을 살펴보다 한번 해 볼까 싶어서 여행을 신청했는데 선정이 되었다. 우린 소풍 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두 부부가 함께 여행을 시작하였다.



기아 카니발, 멋지다. 카니발이 마음에 쏙 들어 사고 싶었지만 생활보호대상자 수급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포기했었는데 이번에 경험해 보니 카니발 정말 갖고 싶다.

특히 초록여행 차량은 나같이 휠체어에 의지해 사는 사람은 정말 안성맞춤인 것 같다. 요즘 인공지능하면 알파고가 떠오르는데 나의 안성맞춤 인공지능은 카니발인 듯하다. 외국에는 휠체어를 타고 그대로 운전대까지 가서 직접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차도 있다고 들었는데 기아자동차에서 그런 자동차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무튼 카니발은 짱짱이다.

“속초로 달려~ 달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네.”가 바로 떠오르는 인제를 지나 미시령 톨게이트쯤 뒀을까 울산바위가 우리를 반겨 주며 웅장하게 서 있었다. 멋지다. 여기는 속초 설악산인데 왜 울산바위일까 궁금하다. 집에 가서 검색해 봐야겠다고 생각하며 속초 바닷가로 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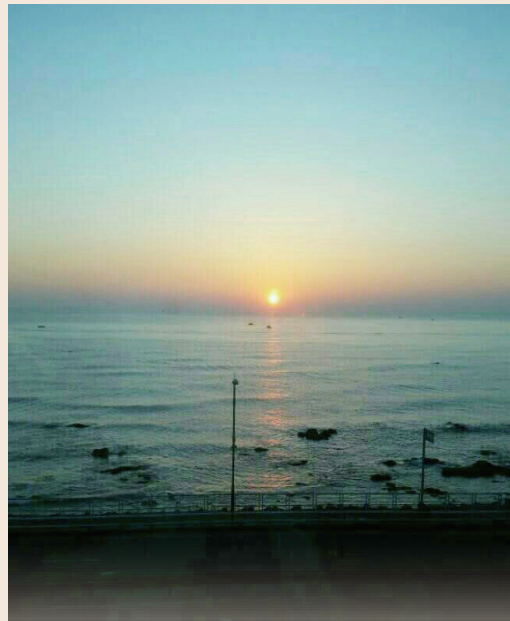
동해바다 푸른 물결을 상상하며 달려갔는데 파랗게 이쁜 물결보다는 짙고 어두운 푸른빛이 도는 바다였다. 아바이순대 식당에 들러 사장님한테 물어보니 그때가 3월 중순이었지만 겨울 막바지라 색이 짙게 보인다고 했다. 그래도 좋았다. 바다를 볼 수 있어서.

집을 떠나 넓게 펼쳐진 바다와 저 멀리 수평선과 갈매기와 모래사장이 한눈에 들어왔다. 정말 오랜만에 아니 생전 처음 보는 바다이다. 이런 눈 호강을 하게 될 줄이야. 감사한 마음과 뭔지 모를 울컥하는 마음으로 만감이 교차하는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초록여행이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나는 소리를 들을 수는 없지만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간혹 소통이 어려워 오해를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잘 어울려 살고 있다.

속초전망대와 영금정은 계단이 너무 많아 올라가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만 보았다. 아쉽긴 해도 파도치는 바다만 실컷 보면서 장사항 쪽으로 가다가 살짝 길을 헤매기도 했지만 금방 다시 해안도로로 찾아들어가 바닷가 바로 앞 자동차 카페에 들러 커피 한잔의 여유를 부려 봤다.

다음 날 일출을 보았다. 이것 역시 처음이다. 와아~ 진짜 환상 그 자체였다.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너무 감동받아서 뜨거운 눈물이 나도 모르게 흐르고 있었다. 내가 또



다시 이런 광경을 볼 수 있을까 생각하니 오래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신장이식 수술을 받아서 항상 불안감이 가슴 깊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생각이 스쳤다.

일출을 보고 설악산으로 갔다. 물론 이것도 처음이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타고 권금성에 올랐다. 휠체어로 탈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케이블카가 크고, 문도 크고 턱도 없어서 어렵지 않게 케이블카 안으로 들어갔다. 처음 타 보는 케이블카라서 사실은 너무 긴장되고 무서웠는데 꼭 참고 재미있는 척 무섭지 않은 척하며 권금성으로 향했다.

기암절벽 촛대바위와 병풍바위를 지나 권금성에 도착했다. 살짝 눈 덮인 설악산의 절경, 멀리 울산바위가 보인다. 한 바퀴 돌아보니 내 자신이 아주 조그만 먼지 같다는 생각에 대자연 앞에서 겸손을 배웠다. 눈으로 가득 담고 가슴으로 느끼고 셔터를 계속 눌러대며 눈 만난 강아지 마냥 즐겁게 돌아다녔다.

설악산을 내려오는 도중에 순두부마을에 무작정 들리 순두부 정식으로 점심을 든든히 먹은 다음 집으로 출발했다. 속초 바다와 설악산과 아쉬운 작별을 하고 나의 보금자리로 돌아갈 시간이다. 이제 카니발과 익숙해지려는데 차고지로 들어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

우리 모두 사고 없이 무탈하게 여행을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평생 간직할 추억을 선물해 주신 초록여행에 감사드린다. 아름다운 울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 초록여행이다. ●

* 이 글은 기아자동차가 교통약자 가족여행 차량 지원을 하는 사회공헌사업으로 (사)그린라이트(김선규 회장)와 함께 시행하고 있는 초록여행에서 매년 실시하는 초록여행 수기공모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초록여행은 2012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2016년 11월, 이용자는 2만 5천 명에 이르고 운행 거리가 150만km를 돌파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이용문의: 1670-4943)



전 미 다

여. 지체장애 중복지애.

열

화들짝 놀라 벽시계를 보았다. 11시 49분이었다.
위잉! 위잉! 휴대전화가 날벌레처럼 떨어졌다.

나는 인터넷 창을 재빨리 닫은 다음, 책상 위에 널브러져 있는 서류 뭉치를 한쪽으로 밀었다.
그리고 후우, 후우 심호흡했다.

“상디! 전화 왔어. 올 게 왔다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모니터 속에서 노랑머리의 사내가 담배를 꼬나문 채 나를 응시했다. 그가 내뿜은 연기로 ‘오피스2010’이 뿌옇게 보였다. 자신만만한 표정의 사내는 정장을 걸치고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방만해 보였다. 나는 애니메이션 ‘원피스’의 주인공들 중 이 사내, ‘상디’를 가장 좋아한다. 그 이유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설 속의 식재료를 찾아 망망대해를 누비는 괴짜 요리사 겸 해적이기 때문이라고 해 두자.

위잉! 위잉!

‘김수현님으로부터 도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수락하시겠습니까?’

낮선 여행지에서 낯선 지도를 펼쳐보는 여행자의 심정으로 나는 휴대전화 액정을 다시 한 번 살폈다.

내가 수현 씨를 처음 본 건 어제 여기, 사무실에서였다. 그때 수현 씨는 사장 앞에서 면접을 보고 있었다. 점심으로 느끼한 설렁탕을 먹고 하릴없이 산책한 후 사무실로 들어서던 나는 발 걸음을 멈춘 채 한참 동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수현 씨는 색이 바랜 청바지 밑으로 검은색 플랫 슈즈를 신고 있었다. 양 발끝이 안쪽을 향해 살짝 꺾여 있었다. 산 지 얼마 안 됐는지 검정 에나멜에서 반짝반짝 윤이 났다.

“출퇴근은 문제없겠죠?”

사장이 검은색 넥타이를 매만지며 말했다.

“적응하면... 문제없게 하겠습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표정으로 수현 씨가 말했다. 나는 갈증이 났다.

“안마는 잘하나요?”

손목에 찬 롤렉스 시계를 흘깃 쳐다보며 사장이 말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현 씨가 숙였던 고개를 들고 말했다.

“그렇군요. 그만합시다. 면접은 끝났습니다.”

사장이 도장을 찍듯 손바닥으로 근로계약서를 탁 쳤다.

“서로 윈윈합시다. 계약하죠.”

재킷의 금색 단추를 채우며 사장이 말했다.

“그러면 저는 정규직으로 일하나요? 아니면…”

“첫 술에 배부를 수야 없죠. 요즘 같은 때에는 더.”

사장이 고삐를 낚아채듯 하며 말했다. 소파에서 일어난 사장을 향해 수현 씨가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나저나 장애인 복지카드 가지고 있죠? 그거 복사 좀 해야 되는데.”

“아, 네… 그런데…”

사장이 복지카드를 받아들었다.

“형식적인 건 패스하고, 계약서에 지장 한 번만 찍으면 됩니다. 인주는 여기.”

사장이 계약서와 인주를 탁자 위에 소리 나게 올려놓았다. 언제 봐도 족발을 연상시키는 손이었다.

수현 씨가 탁자 쪽으로 손을 들어 올렸다. 흰 블라우스에 어울리는 하얀 손이었다. 피처럼 붉은 인주를 머금은 손가락이 하얀 종이 위에 내려앉았다.

봄비는 식당에서 홀로 허연 설렁탕을 퍼 먹는 나를 봤었다. 가을의 복판을, 울긋불긋 흐드러진 길을 휘적휘적 걷는 나를 봤었다. 겨울 속 내 모습이 너무도 미워 눈을 감아야 했던 때가 있었다. 까닭 모르게 그때 본 내 표정이 머릿속에서 너무도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궁금한 게 많을 겁니다.”

사장이 사무실 구석에 있는 복사기를 작동시키며 말했다.

“이민호 대리!”

갑작스레 이름이 불린 나는 어, 어, 네? 하고 얼빠진 대답을 흘렸다.

“이 대리가 수현 씨를 잘 좀 도와주라구. 할 수 있겠나?”

복사기에서 용지를 빼며 사장이 말했다.

“또 답답하게 군다. 두 사람, 나이드 엇비슷하고, 괜찮을 성싶은데 말이야.”

사장이 언제나처럼 나를 쏘아보며 말했다. 그리고 늘 그래 왔듯 인상을 찌푸린 채 사장실로 향했다. 나는 이 모든 걸 기척으로 느꼈다.

“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내가 말했다. 모래를 삼킨 것도 아닌데 목이 깔깔했다.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듯 낯설었다. 나는 기시감 속에서 이마에 손을 가져다 대 보았다. 웬일인지 미열이 느껴졌다. 전에 없던 일이었다.

돌이켜 보면 그날은 모든 것이 생경했다. 매일 보던 10월의 가을 하늘도, 매일 피부에 와 닿던 하얀 햇살도, 매일 마시던 모카라떼도, 매일 얼굴을 맞대던 모니터 속 상디도, 또… 또… 난 생 처음 접하는 여성 시각장애인을 돕겠다고 선뜻 나선 나 자신까지도. 이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하게 다가온 하루였다.

시곱바늘이 11시 50분을 가리켰다.

‘김수현님으로부터 도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수락하시겠습니까?’

나는 주위를 쓱 둘러보았다. 대부분의 자리가 비어 있었고, 몇 명만이 책상 앞에 구부정하게 앉아 있었다. 몇 분 앞으로 다가온 점심시간을 기다리는 게 뻘했다. 나는 아, 아, 하고 목을 가다듬은 후 ‘수락’ 버튼을 터치했다. 1000피스 퍼즐의 첫 번째 조각을 찾기 위해 손을 뻗었던 그 어느 날 밤과 비슷한 기분이 들었다.

“네, 수현 씨!”

“여보세요?”

“네, 저 이민호예요.”

몇 쌍의 눈이 나를 보았다. 얼음을 가져다 댄 듯 한기가 엄습했다. 새삼스레 관심을 끌고 싶지 않아서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회사 건물 앞인데요… 출입문을 못 찾겠어요.”

수현 씨의 목소리 너머로 오토바이 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 버스 엔진 소리 등이 뒤섞여 들렸다. 소리만으로 이루어진 세계는 과연 어떤 모습이며 도대체가 어떤 느낌일까 상상해 봤다. 그리고 그 세계의 시민인 수현 씨를 그려 보았다.

“거기 많이 복잡한데… 금방 나갈게요.”

첫 번째 조각을 퍼즐대에 끼워 넣을 때의 각오로 내가 말했다.

“어제 부탁드렸는데…”

비로소 어제 수현 씨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자네는 왜 항상 뒷북질이지? 악취미로군.’

나를 향한 사장의 레퍼토리가 귀를 때리는 듯했다.

어제, 면접이 끝난 후 수현 씨는 내게 앱 하나를 소개했다. ‘엔젤아이즈’라는 이름의 앱이었다. 이 앱을 사용해서 시각장애인이 도우미에게 전화를 걸면, 도우미는 스마트폰에 부착된 카메라를 통해 원거리에서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 줄 수 있었다. 도움이 필요한 시각장애인은 그의 가족이나 지인, 혹은 이 앱을 설치한 익명의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

“저한테만 도움을 주실지, 다른 시각장애인에게도 도움을 주실지 선택하실 수 있어요.”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고 있는 내게 수현 씨가 말했다. 한 걸음 다가섰을 뿐인데, 이름 모를 꽃향이 확 풍겼다.

수현 씨를 돕기 위한 이런저런 방법들을 얘기하던 내게 수현 씨는

“아니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도움이 필요할 때 제가 앱으로 연락드릴게요. 그 편이 편해요.”

나는 아이스 모카라떼 속의 얼음을 으그적 씹으며 가만히 듣고 있었다. 다행히 열이 좀 식는 듯했다.

11시 51분이었다. 테이크아웃해 온 지 세 시간된 모카라떼를 한 모금했다. 맛이 멍멍했다. 얼음은 다 녹아 버린 지 오래였다. 빨대를 얼음인 양 씹어 봤지만 여전히 몸은 더웠다.

나는 하는 수 없이 휴대전화 액정에 떠 있는 ‘영상 보기’를 눌렀다. 그러자 수현 씨의 휴대전화 카메라에 잡힌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돼 왔다.

“수현 씨, 아홉 시 방향으로 대여섯 걸음 가면 회전문이 나와요. 그 문을 통과하면 회사 로비에요.”

나는 의식적으로 목소리를 조금 크게 냈다. 안 그래도 이쪽을 흘깃대던 괄 부장이 의자를 아주 돌려 내 쪽을 보며 앉았다. 공 과장과 미스 오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나는 표정에 신경 쓰며 허리를 곧게 폈다. 절전 모드로 바뀐 모니터에 내 모습이 비쳤다. 나쁘지 않았다. 나

는 씨익 미소 지었다.

액정 속에서 사물들이 천천히 움직였다. 어쩐지 물속 세상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잠망경에 눈을 댄 채 수조 안을 관찰하던 까까머리 시절, 고등학교 수업 시간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만요, 한 걸음 앞에 회전문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돌고 있네요, ‘셋’을 세면 걸음을 떼세요.”

육중한 회전문이 수현 씨의 발끝 어림에서 돌고 있었다. 나는 타이밍을 재다 하나, 둘, 셋을 외쳤다.

“잘 했어요, 이제 로비예요, 우리 회사에 들어온 걸 환영해요!”

긴장이 풀렸는지 수현 씨가 이마를 훔쳤다.

“우리 회사? 대체 언제부터? 별일이군.”

꼭 부장이 사무실 밖으로 나가며 중얼거렸다. 신이 넘어서까지 거머리처럼 회사에 붙어 있는 중늬은이었다. 구깃구깃한 와이셔츠를 입은 걸로 봐서 어제도 밤새 퇴근하지 않았던가 보았다. 가정과 가족을 내팽개친 워크홀릭다운 추레한 물골이었다.

“어머! 들겠어요, 부장님. 또 왜 그러세요.”

공 과장이 뒤를 따라가며 말리는 척했다. 직장 일에 더해 열 살짜리 딸아이까지 돌봐야 하는 이른바 직장맘이었다. 바뀐 말하면 회사와 가정 사이에서 줄타기하듯 살아가는,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어정쩡한 아줌마였다.

“들으라지, 뭐. 내가 틀린 말해? 밥도 우리랑은 먹기 싫어서 만날...”

유리창에 먼지가 짙게 늘어붙은 탓에 창밖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뚫어져라 사무실 밖을 쳐다보았다. 스모그가 잔뜩 낀 서울 하늘이 특별히 보고 싶다거나 한 건 아니었지만 그냥 그렇게 했다.

“오늘은 두 분이서 드세요, 저 생각 없어요.”

미스 오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모니터 앞에 샌드위치와 주스가 놓여 있었다.

“젊은 것들이 아주! 세상 참 많이 변했다. 많이 변했어.”

나는 결코 돌아갈 것 같지 않은 쳇바퀴 앞에 선 햄스터를, 육중한 회전문 앞에 선 수현 씨를, 단두대 앞에 선 해적 상디를, 또 나를... 생각했다. 이럴 바에야 마중 나갈걸, 하는 후회가 들었

다. 고집을 부려서 사람을 욱 먹인답, 하는 원망도 들었다.

꼭 부장과 공 과장이 나간 사무실에는 미스 오와 나뿐이었다. 미스 오는 또 뮤지컬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거나 값비싼 공연 티켓을 예매 중일 것이었다. 미스 오는 2년짜리 계약직이었는데, 그런 처지에 걸맞지 않은 모습 취미를 가진 여자였다.

회전문을 통과한 수현 씨가 한 시 방향으로 약 스무 걸음쯤 걸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 점심시간인 관계로 엘리베이터는 초만원이었다. 그래서 서너 번쯤 엘리베이터를 그대로 보내야 했다. 시각장애인용 케인을 들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모른 척하기 일쑤였다. 수현 씨가 마침내 그의 자리, 직원용 휴게실에 도착했을 때 나도 수현 씨도 모두 지쳐 있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대리님! 언제 커피 한잔 같이해요.”

“에이! 뭘요...” 라고 대답하며 나는 ‘정말 병원에라도 가 봐야 하나?’ 생각했다. 미열이긴 해도 어제부터 오른 열이 계속 식지 않았다.

어느새 12시 23분이었다. 수현 씨의 근무 시간은 12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니 아슬아슬하게 지각은 아니었다.

굳이 점심을 챙겨 먹을 생각은 없었다. 1층 카페에 들러 커피라도 사서 휴게실에 한번 가 볼 요량으로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다. 미스 오마저 어디론가 나간 모양이었다. 나는 모처럼 주위를 돌아보며 천천히 걸었다.

“부장님, 역시 이런 날씨엔 불고기 뚝배기가 제격이죠? 과장님, 뭐니 뭐니 해도 달콤한 크림은 커피의 꽃이에요, 그쵸? 미스 오, 길 건너에 있는 파리바게트에서 할인 행사하던데 가 봤어?”

오늘도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쓴 약을 삼킨 듯 입이 썼다. 모래주머니를 매단 것처럼 발걸음이 무거웠다. 불현듯 나는 새로 산 만 피스짜리 퍼즐을 맞춰 보고 싶었다. 방 한쪽에 가지런하게 서 있는 피규어들을 쓰다듬고 싶었다.

한편, 그 후 나는 수현 씨를 엔젤아이즈로 두 번 더 도왔다. 통화한 시간은 채 10분도 되지 않았다. 그래도 그 10분이 있어 오후 시간이 덜 죽을 맛이였다.

꼭 부장이 야근 모드로 들어가든 말든, 공 과장이 딸과 카톡을 주고받으며 전전긍긍하든 말든, 미스 오와 나는 여섯 시 정각에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 이제는 등 뒤에 와 닿는 시선이 따

갑게 느껴지지도 않았다. 그런 것쯤은 가볍게 무시할 내공이 단전에 쌓인 지 오래였다.

복도를 걸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 사람들을 비집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다. 떠밀리듯 1층 로비로 나왔다. 로비를 따라 걸었다. 회전문을 통과해 건물 밖으로 나갔다. 수현 씨가 어렵게 또 지리하게 더듬어 간 길이었다. 내가 데려다 준다니깐... 바보같이... 거듭 생각해 봐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다. 어쨌거나 한숨 쉬며 올려다본 가을 하늘은 해적선을 가득 채운 루비처럼 푸르렀고 아침 햇살 속에서 날갯짓하는 갈매기처럼 반짝였다. 어느새 미스 오는 저 멀리로 걸어가고 있었다.

물이 컷속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턱과 뺨에 닿는 물은 뜨거운데 컷속으로 들어오는 물은 이상하게 미적지근했다. 체온을 썰 때 온도계를 컷속에 넣는 걸로 봐서 귀로 느끼는 온도가 실제에 가까울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누운 채 수도꼭지를 왼쪽으로 더 돌렸다. 이윽고 한결 더 데워진 물이 욕조를 채워 나갔다.

강한 물살과 약해진 중력 때문에 몸뚱이가 물속에서 가만히 있지 못했다. 이번에는 컷속으로 들어오는 물 역시 그러저럭 쓸 만했다. 공기를 죄다 토해내 버린 폐가 빠르게 쪼그라드는 게 고스란히 느껴졌다. 고동치는 심장 소리로 귀가 멀 것 같았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더디게 숫자를 셸다. 눈알이 타 들어가듯 쓰라려 올 때쯤 얼굴을 욕조 밖으로 빼 올렸다. 얼굴이 칼에 베인 듯 화끈거렸다.

후- 하- 후- 하-

도로 폐가 부풀어 올랐다. 심장도 평소와 다름없이 뛰었다. 그제서야 음악 소리가 들렸다. 욕조 속으로 입수하기 한참 전부터 틀어 놓았던 일본 애니메이션 OST들이었다. ‘강철의 연금술사’, ‘바람의 검심’, ‘스즈미야 하루히의 우울’ 같은 비교적 예전 애니 곡들도 있었고 ‘드래곤볼 슈퍼’, ‘원피스’와 같은 최근 곡들도 있었다.

폐를 뽕뽕하게 부풀린다. 또 한 번의 입수. 하수구를 찾는 지렁이처럼 욕조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코와 귀가 물로 가득 찬다. 감은 눈을 뜬다. 물파스를 뿌린 듯 눈이 아리다. 찢기고 조각난 빛의 파편이 동공을 찢러 들어온다. 천장의 형광등이 나를 내려다본다. 조소한다. 낄낄댄다. ‘우리 회사? 대체 언제부터?’ 귀를 틀어막는다. 운동장만한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는 내 모습이 모니터에 비친다. 눈을 질끈 감아 버린다. 수도꼭지를 조금 더 왼쪽으로 돌린다.

“재, 몇 반 애예요? 착하네요!”

“우리 반 놈입니다. 인성이 무척 좋아요.”

학창 시절, 선생님들은 한결같이 나를 칭찬했다. 다리가 불편한 친구의 휠체어를 밀어줄 때 먼 어김없이 칭찬이 들려 왔다.

당시 나는 담임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멘토 멘티로 맺어진 어떤 녀석을 도왔다. 족히 15년은 지난 일이므로 단언할 순 없지만, 놈의 이름은 아마 성준인가 성진인가 그랬다.

2년 가까이 녀석과 나는 그야말로 실과 바늘처럼 붙어 다녔다. 수업 시간에도, 점심시간에도, 하굣길에도 나는 녀석을 도왔다. 휠체어를 밀어 주었고, 녀석을 업은 채 계단을 오르내렸다. 마땅히 그래야 하는 줄 알았으므로 힘든 줄도 몰랐다.

녀석과 내가 2학년 때도 같은 반이 된 건 우연이 아니었다.

“올해도 네가 많이 도와줘야 한다. 선생님은 너만 믿을 거야. 알겠니?”

선생님들은 단속하듯 내게 당부하곤 했다.

“민호야, 어려운 일 아니야. 2년 동안 네가 재를 어떻게 도와줬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발표하면 돼. 장학사님 앞이라고 긴장할 거 하나도 없어.”

2학년 말 즈음에 나는 강당에서 어떤 발표를 했다. 어찌 보면 그건 장학사 앞에서 뭔가 보여 주어야 했던 학교가 급조해 낸 일종의 쇼였다. 그 쇼에서 내가 어떤 말을 나불댔는지 따위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리허설 때보다 훨씬 길게 발표했다는 것만 기억한다. 그리고 그 때의 느낌, 강단 위에 섰을 때의 떨림, 수많은 눈동자를 마주했을 때의 흥분, 구름을 밟고 선 것 같던 그 황홀함만 기억한다.

결과적으로 그 쇼 덕분에 나는 선생님들로부터 더 큰 칭찬을 받았고, 그 쇼 때문에 녀석과 멀어졌다.

“아직도 모르겠어? 넌 친구도 아니야.”

녀석이 내게 화를 냈던가. 나를 힐난했던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가. 모르겠다.

“비겁한 새끼, 이럴 거면 차라리 나한테 신경 꺼!”

놈의 말대로 하는 건 쉬웠다.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건 영단어를 외우는 것보다 단순했고 수학 정석을 푸는 것보다 간단했다. 짐을 털어 낸 듯 편하기까지 했다. 수조 안을 잠망경으로 관찰하던 과학 시간, 틈만 나면 녀석을 괴롭히기 바빴던 패거리가 녀석의 머리통을 수조 속에 처

넣던 순간에도, 나는 상관하지 않았다.

너석의 입이 열릴 때마다 공기방울들이 봉화 연기처럼 피어올랐다. 손짓해 부르듯 수초들이 흔들렸다. 그럴수록 패거리는 야비하게 웃어 댔다.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뿌옇게 변한 교실 창문에 빗방울이 툭툭 튀었다. 점점 숨이 막혀 왔다.

양다문 입이 열린다. 물이 입 안으로 강간하듯 밀려 들어온다.

콜록! 콜록! 우웁! 후- 하- 후- 하-

나는 욕조 밖으로 기어 나와 한참을 토악질했다. 위액이 섞여 있는 토사물은 식초처럼 시큼하고 소주처럼 켜다. 토사물 위에 주저앉아 있는 내 모습이 욕실 거울에 비쳤다. 발짱게 익은 게, 흡사 정육점 벽에 걸린 고기 같았다.

이마에 손을 가져다 대 보았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는데도 열은 내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올라서 이제는 미열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했다.

그때였다.

‘김수현님으로부터 도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수락하시겠습니까?’

애니메이션 OST가 푹 끊기며 휴대전화 벨이 울렸다.

늦은 시간에 웬일이지? 나는 집에서는 이례적으로 시간을 확인했다.

수현 씨는 편의점 안에 있었다. 안마를 받으러 온 직원들에게 줄 먹거리를 고르는 중이라고 했다. 그녀는 무얼 사면 좋을지 내게 물었다. 그러면서 겸연쩍은 목소리로 “업무와 무관한 일은 아니죠? 대리님한테 이런 걸 물어도 되나 한참 고민했어요.”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너무 딱딱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고 대답하며 나는 ‘영상 보기’ 버튼을 눌렀다.

휴대전화 액정을 통해 고래밥, 빼빼로, 다이제들이 보였다.

“지금처럼 카메라를 매대 쪽으로 하고, 오른쪽으로 천천히 걸어가 볼래요? 네, 그렇게요.”

수현 씨는 내 의견을 참고해서 몇 개의 과자를 골랐다.

“세 시 방향으로 다섯 걸음쯤 가면 카운터가 나와요.”

“저기... 맥주를 좀 사고 싶은데요.”

수현 씨를 주류들이 가득 찬 냉장고 앞으로 안내한 후, 나는 진열돼 있는 맥주들의 이름이며 크기 따위를 알려 주었다. 그녀는 의외로 맥주를 좋아하는지, 손끝으로 캔들을 스쳐 만지기만 할 뿐 쉽게 고르지 못했다. 그 인간적인 모습을 기념으로 남기고 싶어서 나는 ‘녹화’ 버튼을 일

른 놀렸다. 만약 이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린다면? 다들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한정판으로 출시된 피규어를 발견했을 때처럼 짜릿했다.

암막을 쳐 놓은 듯 거리는 어두웠다. 10월 말의 쌀쌀해진 날씨 때문인지 편의점 파라솔에는 아무도 없었다. 수현 씨는 파라솔 의자에 앉아 맥주 캔을 땀다.

“그런데 계속 통화하실 건가요?”

“글쎄요… 일단 카메라를 수현 씨 쪽으로 돌려 봐요.”

한 바퀴 회전한 카메라에 그녀의 모습이 잡혔다. 은색 귀고리가 잘 어울리는 얼굴이었다. 과자를 씹는 이가 모난 데 없이 고르고 희었다. 저작근이 움직일 때마다 보조개가 얇게 드러나곤 했다. 한 마리의 달토끼를 보는 듯했다. 시각장애인용 흰 지팡이는 가지런히 접힌 채 한쪽에 놓여 있었다.

그녀와 나는 가벼운 얘기를 주고받았다. 날씨에 관한, 비싼 물가에 관한, 봄비는 지하철에 관한 그런 얘기들이었다. 보다 중요한 것들, 그러니까 급여나 업무 내용에 대해서 또는 그녀의 눈에 관해서, 아니면 연애나 결혼 따위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왠지 그래선 안 될 것 같았다.

“근데 우리 회사 분위기가 원래 이래요?”

맥주를 한 모금 한 그녀가 말했다.

“다단계 회사 같다고 생각했죠?”

육조 귀퉁이에 걸터앉으며 내가 말했다. 앱의 특성상 이쪽의 영상이 저쪽으로 전송되진 않지만, 알몸인 채로 여자와 영상 통화를 하고 있자니 기분이 적잖게 야릇했다.

“어머! 어떻게 아셨어요?”

“나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여러 층을 사무실로 쓰고 있긴 한데, 막상 어느 층의 어느 사무실에 들어가 봐도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한테 물었죠.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다 영업하러 나갔다고요. 그래서 생각했죠. 이거 다단계 회사가 틀림없구나.”

그녀가 찔랑거리며 웃었다.

“안마 받으러 오는 사람도 없는데 휴게실을 지키고 앉아 있으려니… 죽어 가는 기분이라구요.”

“잘 알아요. 그런 기분.”

토끼 같은 그녀에게 나는 ‘애초에 안마사 같은 건 필요하지 않았어요. 사장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켜야 했을 뿐이에요.’라고 차마 말할 수 없었다.

나는 손바닥만한 액정을 통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따금씩 손을 뻗어 맥주 캔을 들어 올렸다. 그때마다 파도처럼 하얀 거품이 입가에 남곤 했다. 후- 하고 깊은 숨을 내쉴 때면 바람을 맞아 부푼 듯처럼 가슴이 꿈틀 움직였다.

“나야 월급 받아 좋고, 사장님은 장애인을 고용했으니 장려금을 받아 흡족하겠지만 직원들은… 하나도 좋을 게 없네요.”

그녀가 무연히 말했다.

“아! 그런가요…”

나는 말끝을 흐릴 수밖에 없었다. 등 뒤에서 칼침을 맞은 무사가 된 듯했다. 액정 속의 그녀는 아이가 아니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상사요. 꼭 부장님이죠?”

“네?”

“직원들이 다 어디로 간 거냐고 물었다면서요. 그거 꼭 부장님한테 물어본 거죠?”

나는 욕조에서 벌떡 일어섰다. 하마터면 바닥에 고인 물을 밟고 넘어질 뻔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가 꼭 부장을 어떻게 안단 말인가.

“점심시간에 부장님이 잠깐 오셨거든요.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셨어요. 대리님에 대해서도 재밌는 얘기해 주셨구요. 오늘은 그냥 가셨지만 안마 받으러 조만간 오시겠다고 했어요.”

그 인간이 나에 대해 무슨 말을…

숨이 가빠 왔다. 명치끼를 얻어맞은 것처럼 답답했다.

“그리고 보니 공 과장님, 대리님, 오 언니, 한 번씩 다 오셨다 갔네요.”

“아니! 미스 오까지 갔어요?”

“네. 모두 상냥하고 좋은 분들 같았어요. 대리님에 대해서도 한마디씩 하던 걸요!”

대충 물기만 닦고 전화 받은 탓에 몹시 찻찻했다. 욕실 안은 수증기로 가득 차 습했다. 거드랑이에서 암내가 풍겼다. 바닥에는 토사물이 흥건했다. 그들이 나에 대해 좋게 얘기했을 리 없었다. 열이, 한층 더 났다.

“네. 모두 좋은 동료들이에요. 수현 씨는 부장님이 얼마나 재밌는 분인지 모르죠? 글썄, 저번에 한 번은…”

거울 속에 벌거벗은 사내가 서 있었다. 발강게 달아 오른 사내는 광대처럼 보였다. 그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입 모양으로 욕하고 있었다.

“그런데 과장님은 언제부터 뜨개질을 하셨대요? 나도 배우고 싶어요.”

그녀가 빈 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대답할 말이 궁했던 나는 “그러게요!” 하고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다. 맙소사! 그 아줌마가 뜨개질을?

“그만 일어나야겠어요. 오늘 여러 모로 고마웠어요.”

의자에서 일어서며 그녀가 말했다.

차르르! 어린 시절, 손에 꼭 쥐고 있던 구슬을 주먹 밖으로 자주 놓쳤었다. 썩어! 애써 만들어 놓은 모래성을 힘센 파도가 단숨에 휩쓸어 갈 때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었다.

“내일은 내가 마중 나갈게요. 친해지고 싶어요. 커피도 한잔하구요.”

여태껏 손대 본 적 없던 십만 피스짜리 퍼즐을 탐하는 심정으로 내가 말했다.

“듣던 대로 민호 씨는 참 켜들하세요. 우리, 화분에 물을 주듯 그렇게 지내 보면 어떨까요?”

“.....”

그릇에 밥을 푹푹 눌러 담듯 수현 씨가 말했다. 발음기호를 보며 외국어를 발음하듯, 나는 수현 씨가 한 말을 몇 번이고 되뇌었다. 그러는 동안 내 마음속에는 어느새 화초 하나가 뿌리 내리고 있었다.

전화를 끊었다. 물을 들고 욕실 바닥을 구석구석 청소했다. 그리고 다시 욕조에 들어갔다. 물은 미지근하면 족했다. 물 아래로 양금이 가라앉듯, 부유물이 침잠하듯, 나는 욕조 바닥에 몸을 붙인 채 가만히 누워 있었다.

어제부터 나를 괴롭히던 열이 내리는 듯도 했고, 멎어 있던 체증이 풀리는 듯도 했다.

페이스북에 접속했다.

곽 부장의 페이스북 대문에는 십수 년 전에 찍었을 게 분명한 가족사진이 걸려 있었다. 지금은 대학생이 된 두 아이, 젊은 부장, 부장의 아내가 사진 속에서 활짝 웃었다.

공 과장의 페이스북 대문에는 반쯤 뜨다 만 목도리 사진이 걸려 있었다. 아이보리색 목도리 뒤로 파란색 서류 파일들이 가지런하게 꽂혀 있었다.

미스 오의 페이스북 대문에는 귀엽게 생긴 아프리카 꼬마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녀가 후원 중인 꼬마 같았다.


달에 첫 발을 내딛듯, 나는 ‘좋아요’를 눌렀다. 첫사랑을 고백하던 순간처럼 답살이 돋았다. 괜스레 요의가 느껴졌다.

욕실은 여전히 수증기로 가득했다. 거울 속에서 사람들이 흰 지팡이를 발끝으로 밀며 바쁘게 걸었다. 수초가 떠밀린 흰 지팡이를 따라 힘없이 흔들렸다. 그 옆에서 한 사내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설렁탕을 들이켰다.

페이스북을 닫고, 엔젤아이즈를 실행했다. 수현 씨뿐 아니라, 다른 시각장애인도 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정을 바꾸었다.

거짓말처럼, 몸 깊숙한 곳에서부터 온기가 흘러 나왔다.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도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수락하시겠습니까?

수락하시겠습니까? 

* 제26회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 산문부 대상 수상작



제 삼 열

남, 시각장애,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 가작(2010), 전국장애인근로자문화제 금상(2011),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문학제 최우수상(2012), 대한민국 장애인문학상 산문부 대상(2016) 외.

문학

우리나라 최초로 260권 발간 기록을 세운 작가, 고정욱

주요 경력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졸업(국문학 박사)
평화방송 TV,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 다수
한국장애인권포럼 대표 역임
장애인을 위한 <새날도서관> 관장 역임
삼애복지포럼 총무 역임
한국DPI 이사 역임
(사)한국장애인예술인협회 이사 역임
국립중앙도서관 소리책 자문위원 역임
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편집위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사회공헌 자문위원
국제아동도서위원회(KBBY) 운영위원
장애인식 개선 강사로 전국 초·중·고 및 도서관, 지자체 등 연 평균 300회 이상 강연
저서: 『가방 들어주는 아이』 외 260권

수상 경력

1992 문화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당선
1993 제14회 호국문예 중편소설 입상
1997 삼애봉사상
1997 성균문학상
2003 MBC-TV '느낌표!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가방 들어주는 아이』 선정
2009 한정동 문학상
2010 한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
2011 보건복지부 이달의 나눔인상

장애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

어린 시절 성탄절 즈음이면 흑백텔레비전은 예수님 관련 영화를 화면에 띄웠다. 평소에 보기 힘든 대작 영화들이라 어린 나는 졸린 눈을 비비며 그런 영화를 끝까지 보곤 했다. 그 가운데 한 영화에서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이 장애를 가진 여인에게 다가가 일어나 걷고 싶냐고 물었다. 그러자 여인은 의외의 대답을 했다.

“아닙니다, 주님. 주님을 뵈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예수님은 축복을 준 뒤 무리를 이끌고 지나갔고 여인은 그냥 장애인으로 남았다. 그저 지극히 환한 미소를 지으며…….

어린 시절 나는 하늘을 원망한 적이 있다. 아무 죄도 짓지 않았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소아마비에 걸려 장애인이 되었느냐고…….

다른 것 어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나에게는 장애가 치명적 약점이었다. 간절히 하고픈 반장도 할 수 없었고, 동네에 나가 친구들과 뛰놀 수도 없었다. 장애는 그야말로 어린 영혼의 족쇄였고 거부할 수 없는 숙명이었다.

아무리 해답을 찾으려 해도 내 장애의 원인에 대한 존재론적인 질문의 해답은 어디서도 구할 수 없었다. 아니, 애초부터 그건 어린아이가 해야 할 질문이나 고민이 아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의 해맑은 얼굴은 어두워졌다. 어린 시절 찍은 사진 가운데 환하게 웃으며 찍은 것이 변변히 없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풀리지 않은 고민을 끝없이 해대니 왜 안 그렇겠는가. 장애



백일사진

아였던 나는 그렇게 골치 아프고 해답 없는 문제를 품에 안은 채 성장했고, 매일 만나는 장애의 고통과 그로 인한 세상의 차별과 편견을 경험해야 했다. 때론 싸우고, 때론 무시하고, 때론 무기력하게 당하면서…….

장애는 부끄러운 일도, 상 받을 일도 아니다

“정육이 어머니, 졸업식 날은 옷 좀 예쁘게 입고 오세요.”

70년대 초반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어느 날 방과 후에 학교에 온 어머니에게 담임 선생님이 한 말이 었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어머니의

복장은 늘 작업 바지나 월남치마 차림이었다. 장애아인 나를 아침저녁으로 업어서 학교에 데리고 다니려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다.

“아니, 왜요?”

“졸업식 날 교장 선생님께서 장한 어머니상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나는 늘 기어서 안방에서 건넌방으로 움직였다. 당연히 밖에 나가 돌아다니는 건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다. 간혹 아버지가 안아서 동네 한 바퀴를 돌려주면 그건 정말 큰 기쁨이었다. 다른 아이들은 늘상 나가 뛰노는 골목길이 나에게서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런 장애 소년에게 유일한 구원은 책읽기. 책만 펼치면 나는 톰 소여와 함께 미시시피 강에서 뗏목을 탔고, 달타냥을 비롯한 삼총사들과 모험을 펼칠 수 있었다. 자연스럽게 나는 책벌레가 되었다. 밖에 나가 뛰놀지 못하는 대신 나에겐 그런 친구들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또다시 내 인생에 폭탄이 터졌으니 그것은 바로 취학 통지서였다. 장애인의 운명은 대개 이 취학 통지서에 의해 결정된다. 대개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에서만 수십 년을 머무는 재가(在家) 장애인이 되기 때문이다.

“정욱아, 업혀라. 학교 가자.”

어머니는 입학식 날 나를 향해 등을 돌리셨다. 나는 어머니의 그 등에 업혀 500미터쯤 떨어진 학교로 향했다. 가슴에 손수건을 매단 포레 꼬맹이들이 업혀서 학교 가는 나를 동물원 원숭이 보듯 했다.



초등학교 때 가족사진

그 시선은 학교에 가서까지 계속 이어졌다. 나는 비로소 내가 남들과 다른 장애아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했다.

그날 이후 어머니의 고난의 행군은 시작되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머니는 나를 업고 학교를 갔다. 지각, 결석, 조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아침에 한 번 학교 교실에 데려다 놓고 집에 와서 살림을 하다가 오후에 한 번 더 학교에 와서 나를 업고 집에 와야 했다. 그 덕에 우리 집은 어머니가 살림을 제대로 할 시간이 부족해 늘 폭탄 맞은 집 같았다. 동생들이 어질러 놓은 물건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초·중·고 12년 개근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때론 혀를 끌끌 차는 주위의 시선도 있었다.

“멀쩡한 애가 왜 업혔누?”

“병신인 모양이야.”

지나가는 할머니들이 마치 못 볼 것 본 것처럼 말해도 어머니는 꾹꿨다. 그러나 그 속은 어땠을지

조금은 상상이 된다. 장애인은 그 주위 가족, 친구 까지도 장애의 느낌을 갖게 만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가 점점 자라면서 덩치가 커지는 것도 문제였다. 아이들의 성장은 엄마의 기쁨이었지만 그런 아들을 업고 다녀야 하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고역이 아닐 수 없었으리라. 한 해 한 해 체력이 떨어지셨을 텐데 아들은 점점 더 무거워지니. 봄부터 가을까지는 나를 업은 어머니 목덜미에서 굵은 땀방울 흐르는 걸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나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 한번 하신 적이 없었다. 그저 묵묵히 나를 업은 팔에 힘을 줄뿐이었다. 그런 어머니의 희생을 보는 아들인 나. 어찌 감히 허튼 생각을 할 것인가. 어머니의 그런 땀과 노력과 희생을 헛되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 어떤 가르침보다 더 큰 가르침이 나를 휘감아 돌았던 것이다. 어머니야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게 바친 희생의 전형이었다.

장한 어머니상을 드리겠다는 담임 선생님께 어머니는 감정을 조절하며 말했다.

“선생님, 세상에 어느 엄마가 자기 자식이 몸이 불편해도 학교 가겠다는데 업어서 나르지 않겠습니까? 이진 엄마라면 누구나 하는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을 했는데 왜 상을 주신다고 하세요? 저는 그런 상 안 받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만 남기고 나를 업고 땀하니 집으로 오셨다. 싸늘한 어머니의 얼굴 표정을 처음 본 나는 등에 업힌 채 입을 다물어야만 했다. 갑자기 목에 매달린 내 손등 위로 어머니의 눈물이 툭툭 떨어졌다.

어졌다. 그날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욱아, 장애는 부끄러운 일도 아니지만 상 받을 일도 아니란다. 그건 너의 운명일 뿐이야. 그러니 주어진 운명 안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라.”

어머니는 아버지가 일 년간 월남에 싸우러 갔을 때도 울지 않으셨다. 아무리 살림살이가 쪼들려 끼니거리가 부족해도 울지 않으셨다.

그런 어머니가 난생처음 흐느끼며 내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던 그날 나는 다시 태어났다. 장애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그 불리함을 박차고 세상으로 나아갈 결심을 비로소 하게 되었다. 국민교육현장의 한 구절처럼 나는 장애라는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혁의 정신을 기르게 된 것이다.

온몸으로 사랑을 실천한 우리 어머니. 지금은 사남매를 다 키워 내보내시고 편안한 여생을 보내고 계신 우리 어머니. 그런 어머니에게 나는 지금도 운명을 헤치고 세상을 바꾸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땀에 젖은 아버지의 등

부모님은 장애가 있음에도, 혹은 장애가 있기에 강한 호기심을 가진 나를 위해 좋은 구경거리가 있다가 아니면 최대한 보여 주려 애쓰셨다. 초등학교 6학년 때로 기억한다. 토요일 오후에 귀가하신 아버지는 나와 동생들에게 새로운 산업전람회를 구경가자고 하셨다. 그건 물론 나의 견문을 넓혀 주기 위함이었다.

아버지는 나를 업고 여의도로 택시를 타고 가셨다. 요즘이야 안 그렇지만 당시에는 그런 구경거리가 무척 적을 때였다. 게다가 요즘처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도 않은 시절이니 구경거리에 사람들이 몰리는 게 당연했다. 여의도 광장엔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나를 업고 그 줄을 보신 아버지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줄의 앞부분으로 다가가 서 있는 중고생들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어이, 학생들! 미안해, 우리 애가 몸이 불편해서 새치기 좀 하자구.”

아버지의 녀석에 중고생 형들은 순순히 자리를 양보해 주어서 나는 긴 줄 서지 않고 바로 입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의 얼굴은 화끈거리기만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의 그런 마음을 묵살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갖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미 장애로 인해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하거나 생활하기 어려울 바에는 비장애인들이 편의를 봐주고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이다.

나중에 커서 내가 미국 등의 선진국을 다녀 보니 장애인의 줄서기라는 건 아예 있지도 않은 것이었다. 아무리 긴 줄이 늘어져 있어도 장애인은 언제나 맨 앞. 디즈니랜드를 갔을 때 미국 사는 조카는 격정스럽게 말했다.

“고모부, 하루에 디즈니랜드 다 볼 수 없어요. 너무 줄이 길어요.”

그러나 이게 웬일, 휠체어를 탄 내가 나타나자 각종 놀이기구 앞에 섰던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오라고 하더니 제일 먼저 태워 주는 것이 아닌가. 덕분에 신이 난 건 조카였다. 하루 만에 그 많은 놀이기

구를 줄서지 않고 다 타 볼 수 있었으니, 꿈인가 생신가 싶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아버지의 새치기하는 마음은 당시로서는 선진적(?)인 발상이었다. 물론 당신의 속내는 나를 업고 오랜 시간 줄서 있기 괴로워서일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 덕에 나는 당시로서는 첨단 산업제품이던 디지털식 전자시계를 처음 구경했던 게 지금도 기억난다.

그 뒤 중학교 3학년 되던 해 여름이었다. 나는 별로 해 보지도 못했으면서 낚시를 좋아했다. 넓은 강이나 호숫가에 앉아 은빛 찬란한 물고기를 낚는 꿈을 늘 꾸는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은 참으로 애타는 것이었으리라. 혼자 힘으로는 그 좋아하는 낚시를 다니지 못하는 나를 위해 아버지는 어느 날 낚시 도구를 챙겨 동생들과 함께 낚시를 가기로 했다. 직장의 동료들에게 어느 곳에 가면 물고기가 많은가를 물어보신 뒤 아버지는 파주 어디쯤의 붕어가 많이 나온다는 오리골 저수지를 알아내신 것이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나는 방학을 했지만 아버지는 휴일이 없기에 7월 17일 제헌절이 우리의 D-데이였다. 아버지는 나를 업고 내 동생들은 낚시 가방을 들고, 우리는 불광동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했다. 짐통 같은 더위에 아버지는 나를 업고 후덥지근한 시외버스에 올랐다. 버스는 이윽고 덜컹거리며 출발했고, 우리는 한참 뒤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개구리가 풀섶 사이로 튀고 매미 소리 요란한 시골길을 아버지는 나를 업고 하염없이 걸었다. 타는 목마름으로 땀은 비 오듯 흘러 업힌 나도 고역이 아

닐 수 없었다. 얼마를 그렇게 걸었을까. 아버지는 나를 풀섶에 앉히고 잠시 쉬었다. 그때 아버지의 등을 질펀하게 적시며 흐르는 땀을 나는 보았다.

“아버지, 너무 힘드시죠?”

내가 그런 아버지가 안쓰러워 물었다. 그러자 아버지의 말씀.

“괜찮다. 우리 아들이 낚시를 하고 싶다는데 내가 어딘들 못 가겠냐?”

난 그 말씀에 목이 메었다.

그날 나는 한 마리의 고기도 낚지 못했다. 더운 여름날의 대낮 낚시가 잘 될 리 없는 건 상식이었다.

그러나 내가 낚은 것이 분명 있었다. 그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그러한 아버지의 사랑 덕에 나는 1급 지체장애를 가지고도 작가로서 활동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왕성한 호기심과 탐구심으로 사물을 관찰하고 살핀다.

장애가 있지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사는 법을 배운 것은 오롯이 나의 아버지의 땀에 젖은 등 때문이다.

햄 앤드 에그

외국에 여행을 가 보면 호텔에서 제공하는 아침 식사는 대개 가벼운 것들이다. 빵에다 간단한 음료와 햄 앤드 에그(Ham & Egg)인 경우가 많다. 식빵에 이걸 넣어서 먹으면 아침 식사가 가볍게 해결된다.

언젠가 영화를 보는데 주인공이 동료에게 햄과 에그 중에 어느 게 더 고귀냐고 엉뚱한 질문을 했다.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 건 영화 속의 동료나 그 영화를 보는 관객인 나나 마찬가지였다. 한 끼의

메뉴에 불과한 그것들 가운데 더 고귀한 게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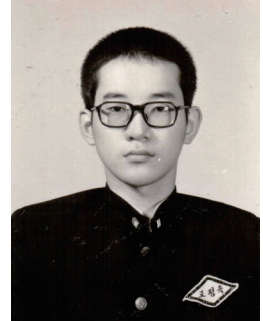
그러나 주인공의 해석은 몇졌다. 햄은 돼지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치고 죽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에그는 일부만 나눠 주는 것이기에 목숨을 내놓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햄이 더 고귀하다는 게 결론이었다.

가만히 생각하니 정말 돼지가 우리에게 햄을 제공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바친 희생이었다. 한번 바치면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 고귀한 희생.

그리고 에그는 닭이 만들 수 있는 많은 알 가운데 하나를 주는 것이었다. 이걸 협조였다. 얼마든지 나눠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부담이 적다.

인간은 언제나 관계와 관계 속에서 남의 신체를 지며 살 수밖에 없는 동물이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말이 ‘고맙습니다’와 ‘미안합니다’인 것이다. 내가 그런 말을 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은 대개 햄이나 에그 같은 사람들이다. 희생과 협조를 해 준 사람들이다. 그들의 희생과 협조 없이 나는 살 수가 없다. 아니, 인간 자체가 남과 어울려 지낼 수가 없는 것이다.

과연 나는 얼마나 주위 사람들을 위해 많은 희생과 협조를 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루소는 ‘희생’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고등학교 3학 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희생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다. 나 자신도 물론 희생하고 있다. 일을 한다는 것은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부득이한 의무이다. 때문에 놀고 먹는 사람들 모두 다 사기꾼이다. 사기꾼 부류에 속하지 않으려면 일해야 한다. 직업이 뭐든 상관없다.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아야 한다.

다소 과격하긴 하지만 맞는 말이다.
협조에 대해서도 좋은 말이 있다. 『역경』에서 언급한 말이다.

성실한 마음으로 남과 서로 친하고 협조하면 아무 허물이 없을 것이다. 마음속에 가득 차서 넘칠 만큼 순수한 성의가 있으면 마침내 생각지 않은 뜻밖의 길한 일이 있을 것이다.

데레사 수녀는 한때 잘 나가는 수녀원 원장이었다. 인도의 귀족 집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의 교장이기도 했다. 그건 에그의 삶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경험하게 된 기차여행에서 수없이 많은 불행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 삶의 패러다임을 희생으로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리하여 안락한 수녀원을 뛰쳐나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그들처럼 스스로 가난해지고 말았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야 비로소 가난한 자들과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길가에 버려져 죽어 가는 사람들을 데려다 인간답게 존경받으며 죽을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는 와중에 수없이 많은 오해와 질시와 탄압을 받았다.

그러나 이미 그녀는 햄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 두려울 것이 없었다.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사람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두려울 리도 없었다. 데레사 수녀는 심지어 자신이 도와준 사람들에게서 비난받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당했다.

하지만 그녀는 말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 희생하면 그들이 공격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도와줘야 한다고…….

만일 그녀가 에그의 길을 택했다면 아마 오늘날과 같은 존경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저 부유한 수녀원의 원장 수녀로 이름 없이 사라졌으리라.

나 역시 그렇게 학교를 다닐 때 모든 열정을 바쳤다. 졸업하는 날 우등상을 받았다. 그 우등상이 나만의 노력에 의해서였을까. 결코 아니다. 오로지 어머니의 단내 나는 거친 숨결이 일군 결과였다.

물론 내게는 또 수많은 에그들이 있었다. 나의 가방을 일 년 내내 들어다 준 친구들은 부지기수다. 자전거로 학교까지 날 태워다 준 친구도 있었고, 잡다한 심부름을 마다하지 않은 나의 동생들도 있었다. 어찌 보면 오늘날까지 내가 한 일은 별로 없다. 그저 수없이 많은 햄과 에그를 먹은 것밖에.

이제 나는 내가 받은 햄과 에그를 남에게 돌려주려 애쓰고 있다. 나에게도 아내가 생겼고, 양육해야 할 자녀들이 생겼다. 작가로서 많은 활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햄과 에그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햄과 에그를 먹고 여기까지 왔고 또한 누군가의 햄과 에그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이고, 더불어 사는 삶 그 자체이다.

세계를 휠체어 바퀴 삼아

해외에 나가면 누구는 명품 가게를 들르고, 누구는 야시장엘 꼭 가 본다고 한다. 대개 자신의 관심사와 취향에 따르게 마련이다.

하지만 나는 꼭 서점엘 들른다.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분야에 관심이 많은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물론 자료수집의 의미도 있다. 마음에 드는 책이 눈에 띄면 구매하기도 하고 여의치 않으면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도 한다. 한마디로 직업정신의 구현인 셈이다. 내가 작가가 된 지도 벌써 25년이 넘었다. 첫 저서인 『글힘돋움』이 1990년에 발간되었으니 그렇다. 25년 넘는 세월에 나는 벌써 260권의 책을 발간했다. 프로의 세계는 그런 것이다. 죽기 살기로 자기의 분야에서 정진하는 것.

젊은 시절을 돌이켜 보면 지금의 나는 제법 많은 것을 이루었다. 베스트셀러도 여러 권 내보았고, 다양한 분야의 책들도 썼으며, 그를 위해 국내와 해외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다. 무엇보다도 전업 작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행운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꿈은 항상 진화하게 마련. 작은 것을 이루면 더 큰 것을 원하는 것이 인간 삶의 속성이다. 큰 세상을 살피고 생각의 폭을 넓히다 보면 그렇게 된다.

세계 각국을 여행 다니면서 장애를 다룬 동화책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임을 알게 됐다. 그 어느 나라도 장애인이 주인공이거나 사건에 등장하는 작



저서 모음

품을 우리처럼 많이 발간하지 않았다. 서점에 나가 장애를 다룬 동화나 책을 찾자고 하면 한도 끝도 없다. 물론 그 가운데에는 내가 쓴 작품도 제법 많다.

선진국에 가서 그런 책을 찾으려면 몇 권 되지 않는다. 나 같은 장애인작가가 별로 없을 뿐더러 그런 영역을 전문적으로 쓸 필요성이 크지 않단다. 장애인 인권이 그만치 신장되어서일까? 아니면 이미 사회보장이 잘 되어 더 이상 장애인의 투쟁이나 몸부림이 필요 없어서일까? 그들은 내가 장애를 가졌음에도 치열하게 작품을 써낸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중국이나 몽골, 캄보디아나 아랍권의 나라에 가 보니 그곳은 또 다른 양상이다. 장애의 문제는 정말 절박하여서 눈뜨고 볼 수 없는 수준이다. 여전히 장애인은 천벌 받은 사람,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여긴다. 인권 향상과 인간 대접은 요원하기 짝이 없다. 아니, 편의시설이 부족해 장애인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그런데도 그걸 체계화하고 논리적으로 문제 제기할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니 작가가 나오기는 더더욱 난망이다. 장애인은 아예 교육의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으니 말이다.

결국 장애인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면

서 장애인 인권 향상이 진행 중인 중간 지점에 우리나라가 있음을 나는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나의 역할과 사명은 명확해진다. 내 삶의 문제가 응축되고 고민이 녹아 있는 내 작품들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소개하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의 인권을 신장하는데 단초가 되어야 한다.

휠체어에 몸을 실어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이 세상 곳곳에 장애인문제를 주제로 한 작품을 널리 알려야 한다. 세상은 어린이의 권리도 보장하고, 여성의 평등도 인정하며, 피부색의 차별도 금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바로 장애인의 권리 신장이며 인격 존중이고 차별 금지뿐이기 때문이다. 1급 장애인인 내 어깨가 무겁다.

문학의 여정

아무튼 나는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학교를 다녔고,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 박사학위까지 받았다. 1992년에는 신춘문예에 소설이 당선되어 오늘날까지 전업 작가의 길을 걷고 있다. 무려 25년의 세월이 지났다. 소설은 물론이고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동화를 발표해 주목받고 있으며 MBC-TV 프로그램 느낌표에서 5월의 선정도서가 되는 기쁨도 맛보았다. 작가로서 남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나는 동화를 쓸 때 거의 모든 작품에 장애인을 등장시킨다. 주제도 장애인을 위한 것들로 국한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에 관련된 동화를 쓰게 된 이유는 내가 장애인인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장애로부터 자유로운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다.

『아주 특별한 우리 형』은 뇌성마비 종식이의 이야기다. 『안내견 탄실이』는 시각장애를 다루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각종 다양한 장애가 그대로 나의 소재가 되었다.

글쟁이로서 살겠다고 결심하고, 또 어린이들에게 읽을 만한 글을 선물하겠다고 작정을 한 뒤 나는 장애에 관한 글을 주로 쓰겠노라 마음먹었다. 그것은 이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도전해 왔던 내 삶의 작은 결론이기도 하다.

지금 이 사회를 이끌고 있는 어른들이 살아온 지난 시절은 장애인들을 놀리고, 비하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던 때였다. 그러한 이들이 커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역시 그렇기에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크게 부족할 수밖에 없다.

나의 성장기는 그야말로 장애의 투쟁 역사였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고등학교 3학년 시절 나는 의대 입학을 꿈꾸었다. 그러나 그 꿈은 이내 대학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은 의대나 공대 자연계 학과의 입학이 거부된다는 사실을 알고 좌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국문학.

완전히 다른 세계인 문학 전공의 길로 들어서 나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적응하기 위해 애썼고, 배수진을 친 기분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를 악물었다.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겠다는 생각이었다. 이과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문과 공부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아가는 과정이 곧 적응의 과정이었다. 하지만 어려서 책을 많이 읽은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을 느끼며 이것이 나의 운명일 수 있다는 확신이 서서히 들었다. 작가로서 성공해 보이고 모든 것을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하고 싶다는 일념에 불탔다. 나는 장애만 있을 뿐 다른 분야에서 뒤쳐질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불가능한 취업

그 후 나는 교수가 되기 위해 대학에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장애는 이때도 여전히 나의 발목을 잡았다. 서류심사에서 1순위여도 마지막 이사장 면접에서 떨어지길 여러 번. 그 덕에 나는 아직도 대학의 시간강사 신세다. 저런 장애인들은 사회의 지도층 인사인 자신이 떨어뜨리지 않게 밑에서 알아서 서류심사를 통해 떨어뜨렸어야 한다는 말이 들려온 건 나중의 일이었다.

그러한 어른들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나는 끊임없이 싸우고 투쟁해 왔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여전히 미미하다. 아직도 장애인들은 버스를 타고 마음껏 원하는 곳을 갈 수도 없고, 지하철을 이용하기도 힘들다. 취직, 결혼, 교육...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문제도 해결될 기미를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아침 일찍 일터로 출근해 열심히 일하고, 퇴근해

서는 가족과 함께 소박한 밥상을 마주하는 것이 평범한 가족의 일상이다. 그리고 꼭 지켜 내야 할 삶의 기본이다.

그러나 장애인에게 이는 그림의 떡이다. 비장애인에 비해 세 배 가까이 높은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단적인 예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다. 1990년 설립되었을 때 장애인고용의무사업장의 장애인고용률은 0.43%였다. 물론 지금은 2.28%까지 올라왔고 다양하게 직업에 대한 각종 제도를 마련했지만 나와 같은 정신노동의 고학력 장애인에게 열린 직장은 없었다.

특히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은 가장 보수적인 곳이며, 가장 장애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심한 곳이기도 했다. 응모 회수가 늘면 늘수록 나와 가족이 받는 상처는 커 가기만 했다.

고마운 깨달음

이 무렵 나는 동화를 쓰면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 전까지 나는 늘 이러한 생각을 가슴 깊은 곳에 깔아 두고 살았다. 왜 하필 내가 장애인이 되어서 이런 천대와 차별을 받아야 하나 하고 말이다. 인생의 중요한 고비고비에서 나는 항상 장애로 인해 좌절을 맛봐야 했다. 교육, 진학, 결혼, 취직 등. 그럴 때마다 내 가슴을 후벼파는 것은 장애로 인한 자괴감뿐이었다. 물론 그런 자괴감을 딛고 앞에 놓인 장애물을 돌아가 다른 길을 또 열심히 가곤 했지만, 가지 못한 길에 대한 비애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나는 알았다. 내가 이렇게 장애인이 된 것은 바로 이런 문학을 통해 장애의 고통

을 널리 알리라는 뜻임을. 내가 아니면 누가 장애를 글로 써서 남에게 알릴 것이며 어린이들에게 장애인도 우리의 친구임을 깨닫게 할 것인가. 기독교의 시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에게 장애를 건더 내고 널리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할 만하기에 장애의 굴레를 씌워 이 땅에 내려보냈다고 생각할 수 있으리라. 그야말로 소명의식을 갖고 글을 써야 하는 것이다. 불교로 말하자면 이번 생에서는 장애인으로 태어나 장애인들의 고통을 직접 느끼면서 그들을 위한 삶을 살면서 업을 풀라는 의미 정도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열심히 작품을 쓰고 정말 최선을 다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다 가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생각이 든다. 내가 할 일이 바로 장애로 인해 의미 있는 것임을 알게 된 것이다.

그러던 나에게 여기저기서 강연 요청이 오기 시작했다. 작가를 만나 보고 싶다는 거다. 그렇게 강연에 응하다 보니 강연 열풍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기업체,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사회단체, 도서관 등. 일 년에 강연을 300여 회를 하게 되니 이젠 직업이 작가에서 강사로 바뀔 지경이다. 하루에 두세 개의 강연을 전국으로 다니니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하지만 나를 통해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게 하는 일은 보람이 큰 일이었다. 어디 그뿐인가. 독서를 진작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면서 내가 사는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일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큰일이었다. 내 자존감 상승은 물론이고 동료 장애인들에게 용

기를 주는 기쁨도 있었다.

가끔 강연을 가면 어린이 친구들을 만난다. 그때 장애인용 주차장에 차를 댈 것인가, 장애인 친구를 따돌리고 차별할 것인가 등등을 물어보면 큰소리로 “아니오.”라고 대답해 준다. 그렇게 큰소리로 외치며 대답하는 어린이들의 그 착한 마음이 오래오래 뇌리에 남아 잊혀지지 않는다면 참 좋겠다. 그 어린이들이 훗날 이 세상을 넘겨받고 이끌게 되면 분명 장애인들을 차별하거나 따돌리지 않는 세상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말의 두려움도 있다. 아무리 어린이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려 해도 그 어린이들을 키우고 교육시키는 부모들은 여전히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백지상태의 아이들 마음에 편견이나 냉대의 어두운 색을 칠해 버리면 어쩔까 싶다. 그런 때 내 동화가 어린이들의 마음을 다시 하얗게 만들어 주고 곱고 영롱한 사랑의 색으로 채색할 수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다.

결국 이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보다



강연 모습

개선시키는 일은 한두 가지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거듭하게 된다. 사회 전체가 총체적으로 변화, 발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나의 장애를 소재로 한 작품들은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가당치 않은 노력이며 당돌한 생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위안도 있다. 동료 작가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장애를 소재로 한 작품들을 써내고 있기 때문이다. 서점에 나가 봐도 장애인의 날 정도 되면 아예 한 매대가 장애인 관련 작품들로 채워지고 있다.

물론 거기엔 내 작품도 많지만 다른 동화작가들이 쓴 작품도 많다. 이제 그야말로 장애가 아동문학의 한 장르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 나도 그러니 힘이 나고 외롭지 않다. 내가 아니어도 다른 작가들이 부지런히 써줘 줄 테니 말이다. 어린이들도 내 작품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통해 장애인 친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희생과 봉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단, 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 잘 몰라서이겠지만 장애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와 정반대의 시각을 지니거나 결론을 내리는 일은 삼가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장애인들은 통합교육을 부르짖고 있는데 작품 말미에서 엉뚱하게 친구들과 잘 지내던 아이가 특수학교로 전학을 간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다. 그건 장애인들을 안 보이는 곳에 멀리 떼어 놓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비장애인들의 편견을 조장하고 그들의 잘못된 시각을 널리 유포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기에 그러한 작품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아찔함을 느낀다.



서점 매대

문학이 장애를 다루는 일, 그것은 상처받고 소외 받은 사람들을 다독거려 주는 일이 되어야 한다. 그들이 읽고 가슴 아프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읽고 감동하고 그들이 읽고 재미있어야 하기 때문에 장애를 다룬 작품을 쓰는 일은 조심스럽고 늘 두렵다. 그리고 과연 내가 쓰는 작품은 정말 장애인들을 위하고 이 사회를 위한 것인가를 항상 반성하게 된다. 더욱 긴장하고 더욱 노력해야 할 대목이다.

모든 장애인, 더 나아가 비장애인의 롤모델이 되어서 이 세상을 더불어 사는 곳으로 만들도록 초석을 놓는 일. 그것이 나의 사명임을 깨닫고 사는 나날. 행복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

고정욱 저서 목록

| | | | | | | | | | |
|----|-------|---------------------|----------|--------------|-----|-------|--------------------------|----------|-----------|
| 1 | 단행본 | 글힘돋움 | 보성사 | 1990. 2 | 66 | 창작동화 | 네손가락의 피아니스 최아의 일기 | 파랑새 어린이 | 2004. 4. |
| 2 | 육이일기 | 아이를 키우며 나를 키우며 | 고려원 | 1991. 1. | 67 | 위인전 | 헬렌켈러 | 사회명론 | 2004. 5. |
| 3 | 창작동화 | 절름발이 소년과 악동 삼총사 | 웅진 | 1992. 12 | 68 | 위인전 | 몽당연필이 된 마더테레사 | 바오로딸 | 2004. 8. |
| 4 | 단행본 | 살려 쓸 우리말 4500 | 보성사 | 1993. 2. | 69 | 창작동화 | 원균 | 산호와 진주 | 2004. 9. |
| 5 | 창작동화 | 원균 그리고 원균 | 여백 | 1994. 4. | 70 | 위인전 | 광개토대왕 | 산하 | 2004. 10. |
| 6 | 위인전 | 이소신 | 두손미디어 | 1994. 8. | 71 | 창작동화 | 희망을 꿈꾸는 탄광마을 민국이 | 진선 | 2004. 10. |
| 7 | 창작동화 | 세종로 1번지 | 여백 | 1995. 7. | 72 | 창작동화 | 아빠에게 돌 던지는 아이 | 중앙 | 2004. 12. |
| 8 | 창작동화 | 못 다 핀 무궁화 | 진선 | 1995. 7. | 73 | 창작동화 | 민우야 넌 할 수 있어 | 아이앤북 | 2005. 2. |
| 9 | 제동인지 | 비극적 서정 | 여백 | 1995. 12. | 74 | 만화 | 가방 들어주는 아이 | 황태아이들 | 2005. 3. |
| 10 | 단행본 | 글힘돋움 | 예영커뮤니케이션 | 1997. 1(재출간) | 75 | 위인전 | 몽운의 성인 김대건 | 바오로딸 | 2005. 10. |
| 11 | 단행본 | 살려 쓸 우리말4500 | 예영커뮤니케이션 | 1997. 1(재출간) | 76 | 부모와 | 자녀가 꼭 읽어야 할 성경 이야기 | 나무생각 | 2005. 12. |
| 12 | 제동인지 | 언어 조련사의 비애 | 천지인 | 1997. | 77 | 창작동화 | 나의 수호천사 우람이 | 은하수 미디어 | 2006. 1. |
| 13 | 소설집 | 97 젊은 소설 | 범우사 | 1997. 8. | 78 | 창작동화 | 코없는 코끼리 바하티 | 주니어랜덤 | 2006. 2. |
| 14 | 단행본 | 글쓰기 백산(필명 정우기) | 예영커뮤니케이션 | 1997. 9. | 79 | 창작동화 | 누워 있는 피카소 | 작은 씨앗 | 2006. 4. |
| 15 | 창작집 | 선협 | 문학아카데미 | 1997. 12. | 80 | 창작동화 | 붕어빵의 꿈 | 현문미디어 | 2006. 5. |
| 16 | 창작동화 | 네 손가락의 죽음 환상곡 | 재활재단 | 1998. 9. | 81 | 창작동화 | 박치기왕과 울기 대장 | 대교 | 2006. 5. |
| 17 | 창작동화 | 아주 특별한 우리 형 | 대교 | 1999. 4. | 82 | 창작동화 | 휠체어를 타고 날다 | 두산동아 | 2006. 6. |
| 18 | 만화 | 짱구 짱구만화 국어사전 | 진선 | 1999. 12. | 83 | 창작동화 | 학교 가기 싫어 | 느낌표 교육 | 2006. 6. |
| 19 | 소설집 | 젊은 소설2000 | 황금두뇌 | 2000. 1. | 84 | 창작동화 | 피아노로 세상을 울려라 | 현문미디어 | 2006. 7. |
| 20 | 만화 | 짱구 짱구 만화 속담 | 진선 | 2000. 3. | 85 | 인물이야기 | 고정욱 선생님이 들려주는 세종대왕 | 산하 | 2006. 9. |
| 21 | 창작동화 | 안내건 탄실이 | 대교 | 2000. 4. | 86 | 짱짱 | 만화국어사전9 | 진선 | 2006. 10. |
| 22 | 창작동화 | 내 마음 속의 인민군 장교 | 성균관대학교 | 2000. 6. | 87 | 창작동화 | 자봉 위의 바이올린 | 김영사 | 2006. 11. |
| 23 | 창작동화 | 엄소리의 아이들 | 황금두뇌 | 2000. 12. | 88 | 창작동화 | 뇌성마비 천재탈정 안중혁 | 은하수 미디어 | 2006. 12. |
| 24 | 만화 짱구 | 짱구 만화 논술 1-6학년 | 진선 | 2001. 1. | 89 | 편저 | 홍길동전 | 영림카디널 | 2006. 12. |
| 25 | 창작동화 |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약속 | 두산동아 | 2001. 4. | 90 | 창작동화집 | 편견세상을 바르게 보는 67가지 따뜻한사선 | 뜨인돌어린이 | 2007. 1. |
| 26 | 편저 | 우리 옛 산문의 풍경 | 자우 | 2001. 5. | 91 | 다큐동화 | 그래 이제 웃는 거야 | 작은씨앗 | 2007. 4. |
| 27 | 창작동화 | 네 잘못이 아니야 | 황금두뇌 | 2001. 10. | 92 | 창작동화 | 달려라 달리 | 중앙 | 2007. |
| 28 | 만화 짱구 | 짱구 격언 | 진선 | 2001. 11. | 93 | | 양반전 | 대교 | 2007. 4. |
| 29 | 창작동화 | 은비의 시골일기 | 진선 | 2001. 11. | 94 | | 첫단추 | 샘터 | 2007. 6. |
| 30 | 창작동화 | 열광동망 두백이 알콩달콩 꼬미 | 한겨레 어린이 | 2002. 2. | 95 | 창작동화 | 그림이 있는 정원 | 진선아이 | 2007. 6. |
| 31 | 위인전 | 장영실 | 산하 | 2002. 4. | 96 | 창작동화 | 나때문이야 | 아이앤북 | 2007. 6. |
| 32 | 단행본 | 좋은책 골라 읽기 | 진선 | 2002. 9. | 97 | 창작동화 | 고맙습니다 | 뜨인돌 | 2007. 9. |
| 33 | 창작동화 | 큰일났다 동이 마려워 | 대교 | 2002. 10. | 98 | 위인전 | 장기려 | 뜨인돌 어린이 | 2007. 9. |
| 34 | 창작동화 | 관찰아 | 낮은산 | 2002. 11. | 99 | 단행본 | 춘향전 | 영림 카디널 | 2007. 9. |
| 35 | 창작동화 | 가방 들어주는 아이 | 사계절 | 2002. 11. | 100 | 단행본 | 다시 살려 써야 할 우리말 사전 | 자유로운 상상 | 2007. 10. |
| 36 | 창작동화 | 모두 다 천재 | 푸른나무 | 2002. 12. | 101 | 창작동화 | 성적을 올려주는 7가지 공부동화 | 주니어김영사 | 2007. 10. |
| 37 | 창작동화 | 행복한 학교 | 웅진닷컴 | 2002. 12. | 102 | 창작동화 | 나는 천사가 아니야 | 나무생각 | 2007. 11. |
| 38 | 위인전 | 온달장군 | 세이북스 | 2003. 1. | 103 | 위인전 | 헬렌켈러 | 웅진 생크하우스 | 2007. 11. |
| 39 | 그림책 | 밤 따라 가자 | 세상모든책 | 2003. 1. | 104 | 창작동화 | 우산을 잃어버린 아이 | 에코북스 | 2007. 11. |
| 40 | 창작동화 | 왕따가 무슨 뜻일까 | 진선 | 2003. 2. | 105 | 창작동화 | 휠체어를 찾고 말겠어 | 윌파스 | 2007. 12. |
| 41 | 만화 | 아주 특별한 우리 형 전 3권 | 대교 | 2003. 2. | 106 | 창작동화 | 새 친구 세모돌이 | 여름숲 | 2008. 1. |
| 42 | 만화 | 안내건 탄실이 | 대교 | 2003. 3. | 107 | 창작동화 | 꼭주전동 우리 삼촌 | 중앙 | 2008. 2. |
| 43 | 그림책 | 개구리의 생일날 무슨 일이 생겼을까 | 세상모든책 | 2003. 4. | 108 | 창작동화 | 다이아몬드 | 와이즈아이 | 2008. 3. |
| 44 | 그림책 | 화장할래요 | 세상모든책 | 2003. 4. | 109 | 창작동화 | 특별한 나를 만드는 7가지 동화 | 시공주니어 | 2008. 3. |
| 45 | 청소년소설 | B-Boy | 세상모든책 | 2003. 4. | 110 | 창작동화 | 달려라 선더볼트 | 시공주니어 | 2008. 4. |
| 46 | 위인전 | 탐험대장 새클턴 | 두산동아 | 2003. 4. | 111 | 창작동화 | 오아시스 | 와이즈아이 | 2008. 4. |
| 47 | 창작동화 | 시트콤 경현이네 | 다른우리 | 2003. 5. | 112 | 창작동화 | 판타지 소설 쓰는 아이 | 꿈소담이 | 2008. 5. |
| 48 | 그림책 | 반딧불이를 먹다니 | 세상모든책 | 2003. 6. | 113 | 창작동화 | 슈퍼스타 | 와이즈아이 | 2008. 7. |
| 49 | 그림책 | 오늘은 참외밭이다 | 세상모든책 | 2003. 6. | 114 | 그림책 | 코코몽-도와줘 코코몽 | 딕부르너 코리아 | 2008. 8. |
| 50 | 소설 | 그대 고운 두발 | 황금두뇌 | 2003. 7. | 115 | 그림책 | 코코몽-뭐 괴물이라고 | 딕부르너 코리아 | 2008. 8. |
| 51 | 만화 | 스핀 | 세상모든책 | 2003. 7. | 116 | 그림책 | 코코몽-나도 같이 할래 | 딕부르너 코리아 | 2008. 8. |
| 52 | 창작동화 | 그래도 나는 꿈이 있어요 | 그린북 | 2003. 8. | 117 | 그림동화 | 마법의 유치원 버스 | 여름숲 | 2008. 8. |
| 53 | 단행본 | 인생에도 지름길은 있단다 | 조선일보 | 2003. 8. | 118 | 창작동화 | 사막소년 첸 | 좋은책 어린이 | 2008. 9. |
| 54 | 창작동화 |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 대교 | 2003. 9. | 119 | 창작동화 | 땃발 가꾸는 아이 | 미래아이 | 2008. 10. |
| 55 | 만화 |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 대교 | 2003. 10. | 120 | 인물이야기 | 창조적 열정 | 뜨인돌 어린이 | 2008. 10. |
| 56 | 창작동화 |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최아의 일기 | 파랑새 어린이 | 2003. 10. | 121 | 창작동화 | 소심쟁이 김건우 | 랜덤하우스코리아 | 2008. 11. |
| 57 | 그림책 | 컴퓨터야 넌 누구니 | 세상모든책 | 2003. 11. | 122 | 창작동화 | 도시락 안 싸간 날 | 여름숲 | 2008. 11. |
| 58 | 창작동화 | 딱 한 가지 아름다운 소원 | 아이앤북 | 2003. 12. | 123 | 창작동화 | 작은 거인 | 가교 | 2008. 11. |
| 59 | 창작동화 | 대현동 산반지 아이들 | 한겨레 아이들 | 2003. 12. | 124 | 단행본 | 어린이 지식 정보책 쓰기 | 지식의 날개 | 2008. 12. |
| 60 | 논술 | 글 잘 쓰는 너. 생각 깊은 나 | 민중 | 2004. 1. | 125 | 창작동화 | 길 위의 수호천사 | 좋은책 어린이 | 2008. 11. |
| 61 | 논술 | 너는 찬성이니 나는 반대야 | 민중 | 2004. 1. | 126 | 편저 | 금수회의록 | 산하 | 2008. 12. |
| 62 | 창작동화 | 자전거 태워주는 형 | 채우리 | 2004. 1. | 127 | 그림책 | 링링은 황사를 싫어해 | 미래아이 | 2009. 1. |
| 63 | 창작동화 | 경찰오토바이가 오지 않던 날 | 사계절 | 2004. 2. | 128 | 창작동화 | 백점만점 1학년 | 글담어린이 | 2009. 3. |
| 64 | 그림책 | 너하고 인ولا | 세상모든책 | 2004. 3. | 129 | 창작동화 | 까칠한 재석이 사라졌다 | 애플북스 | 2009. 4. |
| 65 | 창작동화 | 우리 아빠 | 시공주니어 | 2004. 4. | 130 | 편저 | 고정욱 선생님이 들려주는 한국인의 지혜 우정 | 미래아이 | 2009. 4. |

고정욱 저서 목록

| | | | | | | | | | |
|-----|-------|-----------------------|----------|-----------|-----|--------|-------------------|---------|------------|
| 131 | 편저 | 꿈을 이루려는 어린이를 위한 위대한 별 | 중앙 | 2009. 4. | 196 | 청소년소설 | 까칠한 재석이가 돌아왔다 | 애플북스 | 2012. 7. |
| 132 | 창작동화 | 아들이 뿔났다 | 와이즈 아이 | 2009. 4. | 197 | 창작동화 | 여름캠프에서 무슨 일이 | 주니어 김영사 | 2012. 8. |
| 133 | 창작동화 | 똥되지 파는 아저씨 | 영림카디널 | 2009. 4. | 198 | 창작동화 | 포기하지 마 롤러코스트 | 연인M&B | 2012. 8. |
| 134 | 창작동화 | 우리 아빠 파이팅 | 뜨인돌 어린이 | 2009. 4. | 199 | 창작동화 | 무지개가 떴다 | 북멘토 | 2012. 8. |
| 135 | 그림책 | 코코몽 케로의 노래솜씨 | 딕부르너 코리아 | 2009. 5. | 200 | 창작그림책 | 목 짧은 기린 지피 | 맹앤맹 | 2012. 8. |
| 136 | 그림책 | 코코몽 참고 기다려 | 딕부르너 코리아 | 2009. 5. | 201 | 창작동화 | 가슴으로 크는 아이 | 자유로운 상상 | 2012. 10. |
| 137 | 창작동화 | 개코스타 김복태 | 바다어린이 | 2009. 6. | 202 | 창작동화 | 출동 피터팬 특공대 | 이야기상자 | 2012. 10. |
| 138 | 창작동화 | 선생님 나만 믿어요 | 글담 어린이 | 2009. 7. | 203 | 그림책 |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기 | 아름다운재단 | 2012. 11. |
| 139 | 창작동화집 | 이제 다시 시작해 | 여름숲 | 2009. 6. | 204 | 그림책 | 나 집에 가야 해 | BF북스 | 2013. 1. |
| 140 | 편저 | 금오신화 | 영림카디널 | 2009. 6. | 205 | 인물이야기 | 최부 | 산하 | 2013. 2. |
| 141 | 인물이야기 | 고정욱 선생님이 들려주는 방정환 | 산하 | 2009. 6. | 206 | 인물이야기 | 외딴섬에 핀 꽃 오타 졸리아 | 바오로딸 | 2013. 3. |
| 142 | 창작동화 | 사랑의 도서관 | 샘터 | 2009. 7. | 207 | 창작동화 | 동물과 대화하는 아이 | 내 인생의 책 | 2013. 4. |
| 143 | 청소년소설 | 꿈따리 유랑단 | 미래인 | 2009. 8. | 208 | 창작동화 | 점자배우는 아이 | BF북스 | 2013. 4. |
| 144 | 창작동화 | 난 최고의 리더가 될 거야 | 여름숲 | 2009. 9. | 209 | 그림책 | 보람이를 찾습니다 | 황금두뇌 | 2013. 5. |
| 145 | 성인전 | 유대철 베드로 | 바오로딸 | 2009. 9. | 210 | 점자그림책 | 아리랑 | 소셜코어 | 2013. 6. |
| 146 | 창작동화 | 엄마 아빠를 바꾸다 | 아이앤북 | 2009. 9. | 211 | 창작동화 | 동물과 대화하는 아이 | 내 인생의 책 | 2013. 6. |
| 147 | 창작동화 | 말 잘 하는 아이 고정숙 | 꿈소담이 | 2009. 9. | 212 | 창작동화 | 달려라 은총아 | 밝은미래 | 2013. 6. |
| 148 | 그림책 | 코코몽-고리가 있었으면 좋겠어 | 딕부르너 코리아 | 2009. 9. | 213 | 청소년 소설 | 픽 | 애플북스 | 2013. 6. 1 |
| 149 | 창작동화 | 마법의 학교 | 웅진주니어 | 2009. 10. | 214 | 창작동화 | 엄마의 등학교 | 곰돌 | 2013. 7. |
| 150 | 편저 | 사씨남정기 | 영림카디널 | 2009. 10. | 215 | 창작동화 | 숫 곰마를 구해줘요 | 스코프 | 2013. 8. |
| 151 | 그림책 | 코코몽-거짓말은 나빠 | 딕부르너 코리아 | 2009. 9. | 216 | 창작동화 | 책할아버지의 행복도서관 | 꿈꾸는 달팽이 | 2013. 10. |
| 152 | 창작동화 | 마법사 유치원 선생님 | 여름숲 | 2009. 12. | 217 | 창작동화 | 스마트폰이 사라졌어요 | 맹앤맹 | 2013. 10. |
| 153 | 인물이야기 | 장애인 장군 황대중 | 속대 | 2009. 12. | 218 | 그림책 | 홍길동전 | 알리딘북스 | 2013. 10. |
| 154 | 창작동화 | 부르즈 칼리파로 날아간 어린이 외교관 | 키즈조선 | 2010. 1. | 219 | 인물이야기 | 고정욱 선생님이 들려주는 유관순 | 산하 | 2013. 11. |
| 155 | 창작동화 | 독서왕 수학왕 | 파랑새 | 2010. 1. | 220 | 창작동화 | 가슴으로 크는 아이 | 자유로운 상상 | 2013. 12. |
| 156 | 창작동화 | 휠체어 탄 팔씨름 왕 | 살림 어린이 | 2010. 2. | 221 | 창작동화 | 인성 좋은 아이 조인성 | 자람 | 2013. 12. |
| 157 | 그림책 | 코코몽-나도 잘하는 게 있어 | 딕부르너 코리아 | 2010. 2. | 222 | 창작동화 | 출동 캣키기동대 | 뜨인돌 | 2014. 3. |
| 158 | 그림책 | 코코몽-악속을 지켜요 | 딕부르너 코리아 | 2010. 2. | 223 | 지식정보 | 가족은 나의 힘 | 명주 | 2014. 4. |
| 159 | 창작동화 | 암탐지견 뽀빠 | 주니어김영사 | 2010. 4. | 224 | 에세이 | 남다른 사람이 활짝 꽃핀다 | 올도국 | 2014. 4. |
| 160 | 창작동화 |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 산하 | 2010. 4. | 225 | 창작동화 | 꿀피가 사라졌어요 | 맹앤맹 | 2014. 6. |
| 161 | 인물이야기 | 고정욱 선생님이 들려주는 김수환 추기경 | 상수리 | 2010. 5. | 226 | 청소년소설 | 까칠한 재석이가 열받았다 | 애플북스 | 2014. 6. |
| 162 | 창작동화 | 나만의 선생님 | 대교 | 2010. 5. | 227 | 창작동화 | 대지진이 내던 날 | 자유로운 상상 | 2014. 6. |
| 163 | 편저 | 임경업전 | 영림카디널 | 2010. 5. | 228 | 창작동화 | 알라딘과 요술램프 | 한국툴스토이 | 2014. 7. |
| 164 | 창작동화 | 사교몽치 음식아 숙제하자 | 국민서관 | 2010. 5. | 229 | 창작동화 | 피터 팬 | 한국툴스토이 | 2014. 8. |
| 165 | 청소년소설 | 페이퍼 하우스 | 연인 M&B | 2010. 7. | 230 | 편저 | 이솝 이야기 | 계림북스 | 2014. 8. |
| 166 | 창작동화 | 보령아 잠가 | 태동 | 2010. 7. | 231 | 그림책 | 꾸며 대기 공주님 | 통근세상 | 2014. 9. |
| 167 | 창작동화 | 파이팅 나라면 할 수 있어 | 여름숲 | 2010. 8. | 232 | 그림책 | 까만 마음이 자꾸 말을 거네 | 통근세상 | 2014. 9. |
| 168 | 창작동화 | 민수 유괴되다 | 가교 | 2010. 8. | 233 | 그림책 | 선생님 재가 그랬대요 | 통근세상 | 2014. 9. |
| 169 | 그림책 | 코코몽-모두 다 같이 놀자 | 아가월드 | 2010. 9. | 234 | 그림책 | 솔직하게 말할 거야 | 통근세상 | 2014. 9. |
| 170 | 창작동화 | 우리 반 신돌 특공대 | 북스토리아이 | 2010. 11. | 235 | 그림책 | 두리야 응가를 도와줘 | 비엠펙 | 2014. 9. |
| 171 | 장편소설 | 시대부 | 황금두뇌 | 2010. 11. | 236 | 창작동화 | 발명소년 오마영 | 페퍼민트 | 2014. 10. |
| 172 | 그림책 | 코코몽-환경을 지켜요 | 아가월드 | 2010. 12. | 237 | 장편소설 | 곰짜로 놀아주마 | 웅진지식하우스 | 2014. 10. |
| 173 | 창작동화 | 악동 삼총사 희망을 쏜다 | 아이앤북 | 2010. 12. | 238 | 편저 | 안네의 일기 | 계림북스 | 2014. 11. |
| 174 | 그림책 | 코코몽-목욕은 즐거워 | 아가월드 | 2011. 1. | 239 | 장편소설 | 빅보이 | 책담 | 2014. 11. |
| 175 | 창작동화 | 탈출소년 김병만 | 고요아침 | 2011. 1. | 240 | 창작동화 | 아빠의 지휘봉 | 곰돌 | 2015. 2. |
| 176 | 창작동화 | 레인보우 합창단 | 베를북 | 2011. 2. | 241 | 에세이 | 지금 사랑 | 월북 | 2015. 4. |
| 177 | 창작동화 | 나눔대장 | 북스토리 | 2011. 3. | 242 | 창작동화 | 진실동 만행박물관과 크레용 | 하우스 | 2015. 8. |
| 178 | 그림책 | 코코몽-조심해서 놀아라 | 아가월드 | 2011. 3. | 243 | 창작동화 | 꿀피없는 운동회 | 내인생의책 | 2015. 8. |
| 179 | 그림책 | 코코몽-누가 가지고 간 거야 | 아가월드 | 2011. 3. | 244 | 에세이 |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을 봅니다 | 여름숲 | 2015. 8. |
| 180 | 산문집 | 괴마성자 | 연인M&B | 2011. 3. | 245 | 소설 | 까칠한 재석이가 달라졌다. | 애플북스 | 2015. 9. |
| 181 | 번역 | 호호아 그게 정말이야 | 불광 | 2011. 4. | 246 | 창작동화 | 책이 사라진 날 | 한솔수북 | 2015. 8. |
| 182 | 번역 | 주문을 걸어봐 | 불광 | 2011. 5. | 247 | 인물이야기 | 안용복 | 산하 | 2015. 9. |
| 183 | 창작동화 | 작가클럽 | 거북이북스 | 2011. 6. | 248 | 창작동화 | 마지막 황후 | 아이들판 | 2015. 11. |
| 184 | 인생동화 | 완두콩 | 상수리 | 2011. 7. | 249 | 창작동화 | 굴러라 슈퍼바퀴 | 뜨인돌 | 2015. 11. |
| 185 | 역사소설 | 개백 | 연인 | 2011. 8. | 250 | 창작동화 | 공부짱 댄스짱 | 다솜 | 2015. 12. |
| 186 | 수필집 | 각각이 인생론 | 산티 | 2011. 9. | 251 | 편저 | 인문학 따라쓰기 | 안단테 | 2016. 4. |
| 187 | 창작동화 | 굿바이 개인 헬로우 드림 | 소담주니어 | 2011. 10. | 252 | 창작동화 | 우리 동네 봉사왕 | 책곰터 | 2016. 7. |
| 188 | | 헬렌켈러의 3일만 볼 수 있다면 | 여름숲 | 2011. 11. | 253 | 에세이 | 너희들은 보석같은 존재 | 책담 | 2016. 8. |
| 189 | 창작동화 | 독도를 지켜라 | 연인M&B | 2011. 12. | 254 | 단행본 | 고정욱의 글쓰기 수업 | 애플북스 | 2016. 8. |
| 190 | 창작동화 | 장에 너는 누구니? | 산하 | 2012. 3. | 255 | 창작동화 | 누나라고 부르지 말겠지 | 뜨인돌 | 2016. 10. |
| 191 | 창작동화 | 코끼리를 만질 거야 | 주니어 랜덤 | 2012. 4. | 256 | 단행본 | 고정욱의 인문학 필사수업 | 애플북스 | 2016. 11. |
| 192 | 창작동화 | 개탐정 민철이 | BF북스 | 2012. 5. | 257 | 창작동화 | 책 읽어주는 아이 | 보라빛 소 | 2016. 12. |
| 193 | 창작동화 | 칭찬교장과 고래 아이들 | 꿈소담이 | 2012. 5. | 258 | 그림책 | 안녕 다빈치 | 자유문고 | 2016. 11. |
| 194 | 창작동화 | 친일파가 싫어요 | 맹앤맹 | 2012. 5. | 259 | 창작동화 | 벼락맞고 태도 고친 아이 이태동 | 다솜 | 2016. 12. |
| 195 | 창작동화 | 고양이에게 책을 읽어줘 | 한림 | 2012. 6. | 260 | 그림책 | 무너진 뉴욕 세계 무역센터 | 한국해르만헤세 | 2017. 1. |

미술

낭만화가 탁용준

주요 경력

개인전 19회, 자선 개인전 2회
한국미술협회전 등 그룹전 260여 회, 해외 그룹전 10여 회
시인 용혜원 님 등 여러 문인들과 시화집, 수필집 등 10여 권 출간
2015년 시화집 『행복』 출간, 기독교출판협회 우수도서상 수상 외

회원 활동

한국미술협회 회원, 양천미협(이사), 그림사랑(회장), 희망아트(회장), 사랑의교회미술인선교회,
한국미술인선교회, 빛그림회 회원, 기독교미술대전 초대작가 외

공모전 17회 수상

1999년 대한민국 현대미술대전
1998~1999, 2003년 대한민국 기독교미술대전
1994~2000년 곰두리 미술대전
2004년 제12회 대한민국 기독교미술대전 우수상
2005년 행주미술대전
2006년 경향미술대전 2010년 장애인문화예술국민대축제 입상 외

방송 그림 찬조

2013년 SBS-TV 드라마 〈수상한 가정부〉 그림 5점
2014년 SBS-TV 드라마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림 1점
2015년 SBS-TV 드라마 〈미녀의 탄생〉 그림 3점

주요 작품 소장처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경기도 부천시청, 서울시 양천구의회, 수원교도소(교화용 기증),
예가족갤러리, EAC갤러리, 서울 사랑의교회, 국제제자훈련원, (사)희망방송, 극동방송, 연세의료원 재활병원,
국립재활병원, 인천세브란스병원, 복지법인 에덴하우스, 서울시립북부병원,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외

기타 수상

1998년 4월 양천구 장애극복상(양천구청)
2014년 10월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2015년 5월 양천구민상 문화예술 부문(양천구청)
2015년 12월 국민추천포상 대통령 표창
2016년 1월 기독교출판 우수도서상 『행복』 (사)한국기독교출판협회

<http://www.takart.net>

병원에서 만난 멘토

탁용준은 29살까지 아주 건장한 청년이었다. 키가 큰 호남형에 말을 재미있게 하는 미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다. 그를 화가로 만든 것은 29살 여름 수영장에 놀러 가서 풀장 안으로 다이빙을 하는 순간, 머리가 바닥을 치며 경추가 손상되는 순간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당시 결혼한 지 9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혼이었고 예비 아빠였다. 그를 덮친 전신마비는 그의 행복을 집어삼킨 듯이 보였지만 그는 마비에서 살짝 벗어난 어깨에 근육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 붓을 잡은 듯이 보이지만 보조기구에 붓을 끼운 것이다.

그는 미술을 전공하지 않았다. 그저 어린 시절 뛰어놀던 곳을 떠올리며 자연을 그리고 성악가 부인 덕분에 음악을 소재로 그림을 그린다.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전신마비가 되었다고 하면 사람들은 미쳤다고 한다. 바다도 아니고 무슨 다이빙이냐고... 그런데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전신마비 장애인 한 명이 그의 병실로 입원해 들어왔다. 그도 다이빙을 하다가 목뼈를 다쳐 전신마비 장애를 갖게 된 희한한 경우였다. 그는 이미 구필 화가라는 자기 일을 갖고 있었다. 그는 탁용준에게 많은 얘기를 해주었는데 가장 큰 울림을 준 것은 바로 이 말이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림을 그리면 행복하죠.”

탁용준은 학창 시절 그림을 무척 좋아해서 미술 활동을 많이 하였고 청소년기에는 만화를 그리며 시간을 보내곤 하였다.

지금은 고인이 된 구필 화가 김기철 화백이 그렇게 잊고 있었던 그의 꿈을 일깨워 주었다. 그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에 돌아가자 이미 방 한가득 그림 도구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가족들은 탁용준이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일을 하며 새 인생을 살아가길 바라고 있었다.

탁용준은 혼자 생각하였다. 사고 후 6개월 만에 태어난 아들이 철이 들었을 때 아빠가 아무 것도 안 하고 침대에 누워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으면 아들에게 아빠는 무의미한 존재가 될 것 같았다. 아들에게 뭔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바로 붓을 잡았다.

그림 인생

동네에 장애인 화실이 있어서 그곳에서 장애인 동료 화가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며 그림 공부를 하였다. 미술 공부에 목말라 홍대 미술교육원에 다녔고, 화가이며 목사인 박영 선생님을 만



나 4년 동안 개인 지도를 받았다.

탁용준은 그림을 시작하며 만나는 사람에게 다짐하듯 말하였다.

“나 10년 후 개인전 열거야. 10년 후다.”

그렇게 선언을 해야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약속은 지켜졌다. 무엇을 바라고 그림을 그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의 그림에 대한 평가를 받고 싶어서 1999년부터 여러 미술대전에 꾸준히 응모를 하였다. 그 결과 2004년 대한민국기독교미술대전에서 우수상을 받아 정식으로 데뷔를 하였다. 2014년에는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에서 미술상을 수상하였다.

탁용준이 그림을 시작한 지 25년이 지났다. 활동은 왕성했지만 그림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미술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전시회에도 지인들이 대부분이고 작품도 연고로 구입을 한다. 탁용준은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자기 작품으로 아트 상품을 만들기도 하고, 사보나 잡지 그리고 각종 인쇄물에 이미지로 사용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월간 『한국은행』에 1년 동안 한 표지 작업은 경제적인 도움보다 화가로서의 자부심이 더 컸다. 방송 드라마에 그의 그림이 소품으로 사용되어 탁용준 작품은 유명세를 탔다. 기회가 온 후에 작업을 하면 너무 늦다고 생각하고 먼저 그림 작업을 해서 기회가 왔을 때 바로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1년에 100개작 이상을 그리고 있다. 장애가 심해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없다는 편견에 맞서기 위해 모자이크 방식으로 120호까지 작업을 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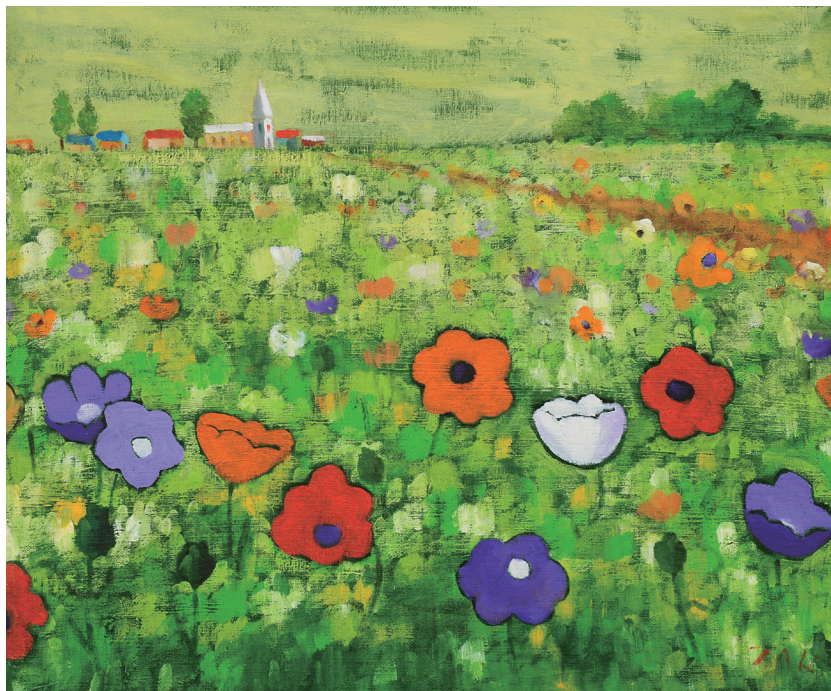
그는 처음에는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다가 어깨 근육 힘을 이용해 손에 붓을 묶고 팔을 쓰기 시작한 것도 바로 작업 반경을 넓히고 싶어서였다.

그동안 그린 그림이 1,500여 점이 넘는데 그 숫자가 탁용준이 얼마나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화가인지를 잘 말해 준다.



새해 소망

유년 시절 친구와 새해를 맞이하던 추억.



양귀비 꽃길

위로와 희망의 양귀비 꽃길. 세월호로 가슴 아픈 분들에게 위로를 전했던 작품.



여름날의 꿈
여름날 밤하늘의 견우, 직녀 이야기를 표현.



사랑
어머니이며 절대자의 사랑을 나이프로 표현.



shall we dance
열정과 역동감을 강한 붓질로 표현.



행복한 가정
모든 이들이 꿈꾸는 행복한 가정을 밝은 색상과 순수한 이미지의 사슴을 넣어서 그려 본 작품.

글쓰기 도전

SNS를 통하여 가까운 지인들에게 위로의 꽃말을 가진 양귀비 꽃 그림과 짧은 사랑의 글을 적어 보냈는데 예상보다 큰 반응을 보였다. 함께 공유하고 전파하며 마음의 어깨동무를 해 주었다.

그림 친구들과 그룹전을 열었을 때, 미술평론가가 쓴 평론을 읽고 큰 용기를 얻었다.

-탁용준의 그림은 어린 시절을 회상하게 하는 그림이며, 조금 더 들여다보면 저절로 그림을 보는 자신의 경험과 작가의 경험이 오버랩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 작가의 작품을 보면 아주 오래전 꽃피웠던 첫사랑을 떠올리게 된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과 행복했던 시간들이 그림을 보며 영상과 같이 흘러감을 느낀다. 그의 그림을 보면서 저절로 미소를 짓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누구와 입맞춤했던 시간을 떠올릴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자기 그림이 사람들을 행복의 시간 여행으로 이끌고, 동심의 시간으로 잠시 돌아가서 미소 짓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는 수필집 『행복』에서 이렇게 말했다.

2차 세계대전 중 사하라사막에 불시착한 작가이며 조종사인 썸 뱀쥐베리가 척박한 사막에 불시착한 비행기 속에서 사람이 살아서 구조될 수 있는 한계점인 72시간보다 훨씬 오랜 시간을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버틸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옛 추억을 회상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어떤 물질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절대치, 생명의 힘을 주는 것이 행복한 추억이면, 저의 그림도 그런 생명력의 원천이며 그것은 큰 감사함입니다.

저의 몸 상태는 모든 가능성을 잃은 상태로 보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한계를 넘어서 평강을 찾을 수 있고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행동이라고 믿습니다. 한때는 끝조차 보이지 않았던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기에 세계 밝은 빛의 소중함은 더욱 애뜻합니다. 마음에서 발화한 그 빛은 어두움을 스스로 물러가도록 만들고 평강과 아름다움이 자리 잡도록 만듭니다. 그런 밝음과 희망을 타인들과 더 많이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이 그림책에 담긴 아름다운 추억의 시간들을 선사하려고 합니다.



행복한 남자

주위 사람들은 탁용준이 아주 행복한 남자라고 말한다. 아름다운 부인, 든든한 아들, 그를 항상 지지하는 지인들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림이 있기 때문이다.

부인은 남편이 다치자마자 운전부터 배웠다. 남편의 이동을 자기가 책임지기 위해서였다.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가 생기면서 부인은 남편 때문에 접어야 했던 성악가의 꿈을 새롭게 키우며 소프라노로 각종 자선 무대에 서고 있다. 아들은 미국에서 피지컬 세라피를 전공하고 심장 재활치료사로 병원에 근무하고 있다. 가장이 장애를 갖게 되면 가족 모두 불행해진다는 사회적 통념을 깨고 가족 모두 행복해졌다.

탁용준은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 준비를 한다. 개인 작업실이 있어서 그곳으로 출근을 한다. 그의 작업량은 가히 놀라울 정도다. 초대전이 많아서 부지런히 새 작품을 그린다. 개인전 반응도 좋아서 개인전 준비로 하루가 짧다. 탁용준은 입버릇처럼 말하듯이 행복한 그림쟁이이다.

그는 앞으로 국내를 넘어 해외에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여 장애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꿈을 갖고 있다. 그는 병원에서 절망과 싸우고 있는 많은 환우들에게 그런 희망을 전해 주려고 그림을 기증하기도 하고 그림책을 만들어 나누어 주었다.

희망은 대단한 곳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동기 부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 스스로 체험했기 때문이다. 장애 속에서 가꾼 자신의 행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소망으로 탁용준은 지금도 행복을 만들고 있다. ●

음악

노 래 하 는 멋 진 남 자

황영택

수상 경력

2007년 KBS-FM 신작 가곡 경연 대회 입상
2011년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 음악 부문(성악) 수상
2015년 자랑스런 한국장애인상 문화예술 부문 수상
2015년 장애인합창대회 부천장애인합창단 장려상 수상 외

음반 경력

2011년 황영택 1집 <년 할 수 있어> 출시
2012년 황영택 2집 <내 마음의 강물> 출시 외

주요 음악 활동

2004년 CLA 독일가곡 연주 발표 / 2005년 오스트리아 마스터 클래스
2011년 황영택과 함께하는 희망나눔 콘서트 / 2011년 아시아태평양 333캠페인 축하
2011년 휴먼네트워크 멘토-멘티와 함께하는 만남 전국대회
2012년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정선, 태백, 사북 문화 소외지역)
2012년 제13회 사회복지의 날 축하 / 2012년 인천컨벤션센터 APDP문화예술제 축하
2012년 헬스오페라(삼성생명, 조선일보 주최) / 2013년 청소년 힐링 뮤지컬 <스쿨런> 아버지 역
2013년 황영택과 함께하는 힐링콘서트 / 2013년 척수협회 3인3색 공연 / 2013년 프로야구 시구 및 애국가 연주
2013년 장애인문화예술축제 개막식 애국가 연주(서울광장) / 2013년 세종시민을 위한 음악회
2014년 중국 광저우 투어 연주 / 2014년 대전 시향 협연 / 2014년 성남 청소년오케스트라 협연
2014년 국방부합창단 창단식 축하 / 2014년 C채널 세월호 위문 공연 / 2014년 아라뱃길 걷기대회 축하 공연
2014년 부산인권콘서트 출연 / 2015년 황영택과 함께하는 '희망의 노래, 우리의 꿈' 콘서트
2015년 평창올림픽 발대식 축하 공연 / 2015년 스타킹 문화단 공연(고봉중고등학교, 면목중학교, 인천항공과학교)
2015년 용문사 산사음악회 초청 공연 / 2015년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송년행사 축하 공연
2016년 제22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 폐회식 축하

그 외 TV 방송출연 및 언론 120회, 연주 활동 106회, 공공기관과 기업 강연 150회, 종교 간증 250회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http://www.hwangyoungtaek.com>



빛과 그림자

저는 다치기 전 180cm의 훗칠한 키에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의 포스코에 다니고 있었는데, 건설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형님의 권유로 다니던 회사를 과감하게 그만두고 건설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건설 현장에서 다양한 업무를 익혔습니다. 그러면서 크레인 조종 면허도 취득하며 미래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3년쯤 됐을 때 거래처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무언가 환한 광채가 제 눈을 번뜩이게 만들었습니다. 제 앞에 아름다운 여인이 한 명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키가 164cm에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생머리, 55사이즈의 날씬한 몸매의 아가씨였죠. 첫눈에 반해 버렸습니다. 저는 그녀와 3년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내 생애 최고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92년 10월 21일,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저는 현장에서 전봇대 같은 콘크리트 파일을 땅속에 시공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길이 15m, 둘레 300cm 무게 2톤 정도의 파일을 크레인으로 당기고 있었는데 그만 70도 각도에서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파일이 제가 조종하고 있는 크레인의 운전석으로 날아왔습니다. 그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3초 후면 제게로 올 것 같았습니다. 빛의 속도로 날아오는데도 어쩔 그렇게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던지요.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하자 온몸에 엄청난 소름이 짹~ 끼쳤습니다. 파일은 어김없이 운전석으로 날아왔고 파일을 맞는 순간, 배꼽 아래 부분이 작두로 잘리는 듯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며 곧바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

수술실과 중환자실을 오고 갔지만 여전히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처음 눈을 떴을 때 본 사람이 저의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침상 끝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었

는데 아마도 제발 살려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의 기도 덕분에 제가 깨어나게 됐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깨어나자 사고 당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통증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참을 수 없어서 링거 병을 던지고 손에 잡히는 것을 마구 다 던지면서 내 다리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러대며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이렇게 하루를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편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5층 높이의 병원 테라스를 뛰어넘으려고 했는데, 하반신이 마비된 다리로는 도저히 테라스를 넘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맘대로 죽지도 못하고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배꼽 아래로는 감각도 없고 운동신경도 없습니다. 또한 모든 장기에 마비가 오면서 대소변이 조절이 안 됩니다. 다 큰 남자가 똥오줌을 못 가린다는 수치심 때문에 더 괴로웠습니다. 하루는 병원에서 모처럼 기분 좋게 아내와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만 휠체어에 앉은 채로 대변을 실수하고 말았지 뭐니까? 제가 어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괜찮아요. 씻으면 되죠.” 하면서 저를 세면장에 데리고 가서 따뜻한 물로 손에 대변을 묻혀 가며 씻겨 주더라고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미안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지도록 고마웠습니다.

당시 아내 나이가 23살! 행복하게 살아 보겠다고 저한테 왔는데 이렇게 고생만 시키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아내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평생 책임지지 못할 것 같으니 새 삶을 찾아서 갔으면 좋겠다고요. 그런데 아직도 안 가고 21년째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점심을 잘못 먹었는지 체한 것 같다며 헛구역질을 하길래 손도 따 주고 등도 쳐 주었는데도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병원 안에 있는 내과에 다녀오라고 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입원한 지 4주가 되었는데 임신 5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고 일주일 전에 임신이 된 거죠. 정말 기적이었고 제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너무 기뻐 아내와 저는 두 손을 붙잡고 펄펄 울었습니다. 올해 그 녀석이 21살이 되었습니다.

원가를 해야 한다

장애인이 됐다는 사실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그보다 더 힘들었던 건 장애인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었습니다. 길을 나서면 어린아이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지나가더라고요. “어~~ 저기 장애인 간다.” 라고. 장애인이라는 소리가 너무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쑥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철없는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인지 알면서 왜 그리 화가 나고 서럽던지. 병원에 있을 때는 환자였지만 병원 밖으로 나오니 장애인이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다시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술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술로 이 모든 현실을 잊고 싶었고 나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날도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와 자고 일어났는데 돌도 지나지 않은 저의 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듯했습니다.

“당신 내 아빠 아니냐고?” 아내가 옆에서 자고 있었는데 아내 역시

“당신 내 남편 아니냐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내가 아빠구나, 내가 남편이구나...’

가족 때문에 살아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재활을 목적으로 접한 휠체어테니스를 열심히 했습니다. 휠체어가 제 다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휠체어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야 뭘 하더라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45도 경사로 길을 아침 저녁으로 100번 이상 오르내리며 휠체어 스피드를 높여 나갔고, 그 결과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속력을 내게 됐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하고 테



니스 코트장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빠르지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유연성을 위해 수영도 했습니다. 지구력과 근력을 위해 웨이트를 하면서 점점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테니스 테크닉을 위해 포핸드, 백핸드, 서비스, 발리 연습 등을 전문 코치에게 제대로 배우기 시작했구요. 드디어 5년 만에 국가대표 선발전 결승에까지 올라갔고 결승전을 무려 2시간 40분 동안 치루는 접전 끝에 15대 13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 테니스 라켓을 하늘 높이 던지고 휠체어에 앉은 채로 운동장에 넘어지면서 좌우로 뒹굴며 기쁨의 세리머니를 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로 전 세계를 다니며 휠체어테니스 선수로 활동하며 세계 랭킹 36위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며 또 다른 세상을 만날 수 있었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보게 되면서 제 삶이 변화되고 성장했습니다. 당시 4살 된 아들을 데리고 전 세계를 다녔습니다. 아이에게 많은 것을 보여 주고 많은 것을 느끼게 해 주고 싶었죠. 그것이 최고의 교육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빠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모습을 보며 아이가 참 기뻐하더라구요.

무엇보다 어린이날 놀이공원에서 저를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들여보내 주는 것을 보고 우리 아들이 “우리 아빠 최고.”라며 펄쩍펄쩍 뛰었죠. 그때 4살이었는데 장래희망이 장애인이었습니다.

성악가로 우뚝 서다

30대 중반이 넘으니까 체력과 근력이 떨어졌습니다. ‘아~ 운동은 오래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2의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휠체어 4중창 팀에서 노래를 하며 아름다운 소리에 매력을 느껴 성악을 배워 보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라켓을 내려놓고 서른일곱 살에 수능을 봐서 음대를 들어가겠다는 결심을 했죠. 2002년 월드컵으로 모든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외치고 있을 때 저는 책상에 앉으려 수능을 준비해야 했고, 성악 실기를 위해 이태리어, 독일어 가사를 죽기 살기로 암기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반신마비로 호흡이 불안정해서 배에 벨트를 묶고 호흡을 연습했습니다. 세상 일이 뭐 하나 쉬운 게 없더라구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연습 또 연습을 했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내가 왜 선택을 했나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간 죽을힘을 다해 공부를 한 결과 내가 원하는 음대에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합격만 하면 고생이 끝날 줄 알았는데 입학 후 더 힘든 길이 나를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신체가 남과 다르다 보니 발성 하나 익히는 것도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아침 7시에 학교에 가서 밤 10시, 11시까지 고민하며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정말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교수님들과 선배의 도움을 받으며 당당히 졸업을 하였습니다.

졸업 후 지금까지 2장의 음반을 내며 휠체어 성악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연을 통해 장애인과 환우들의 힘겨움을 위로하며 장애인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제가 장애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 일도 하게 됐습니다.

장애를 입기 전에는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절망 같았던 장애를 이겨 내려고 애쓰다 보니 국가대표 선수, 성악가, 뮤지컬 배우, 합창단 지휘자 그리고 요즘은 강연 등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됐고, 휠체어스키, 수상스키, 각종 레저를 취미 생활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가족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이라는 작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게 제 남은 생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삶에 있어서 장애라는 고정관념이 저의 삶의 장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장애, 그것으로 인해 저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편견의 장애를 인정할 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장애, 거기서부터가 저는 희망이었습니다. 

대중예술

나 가 수 다

배은주

주요 공연 기획 및 연출

2008년 옴니버스 음반 〈세상에 빛이 되는 노래〉 출시
2009년 찾아가는 드림콘서트 '희망코리아' / 2009년 세계장애인문화예술축제 2부 콘서트
2010년 프랑스 파리 초청 공연 / 2010년 창작뮤지컬 〈원앤원〉
2011년 아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팝콘클래스〉 / 2011년 경기장애인예술제
2012년 미국 LA초청 창작뮤지컬 〈원앤원〉 / 2012년 다큐멘터리영화 〈네 바퀴의 꿈〉
2013년 창작뮤지컬 〈연리지〉 / 2013년 가족뮤지컬 〈안내견 단실이〉
2015년 세상의 빛이 되는 콘서트 / 2016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
2016년 중국 '상해 시니어 엑스포' 초청 공연 / 2016년 동경 '골드콘서트' 한국 대표팀 공연

수상

1996년 제1회 'KBS장애인가요제' 은상 / 1996년 KBS&삼성 주최 '장애인 수기공모' 우수작
2001년 학골 음반 주최 '전국장애인가요제' 금상 / 2006년 우정사업본부 주최 '국민편지쓰기대회' 금상
2008년 SBS 〈놀라운 대회 스타킹〉 2연승 / 2010년 '자랑스런 한국장애인상' 문화예술 부문
2013년 '대한민국문화예술' 대중예술 부문 문화체육관광상
2015년 롯데그룹 '위킹맘 수기공모전' 은상 / 2016년 스포츠조선 '자랑스런 혁신 한국인상'
2016년 동경 '골드콘서트' 심사위원 특별상

앨범

〈사랑의 노래 마음의 노래〉, 〈CCM 옴니버스 음반〉, 세상의 빛이 되는 노래 1집 〈하나될 때, 세상의 빛이
되는 노래〉, 2집 〈ONE&ONE〉, 베스트 음반 〈미라클〉, 싱글앨범 〈멈춰 버린 시계〉

저서

『엄마 나 낳았을 때 아팠어?』, 『네 바퀴의 꿈』

방송 진행

2007~2008년 KBS 제3라디오 〈소리로 보는 세상〉 메인 MC
2009~2010년 KBS 제3라디오 〈참 소중한 당신〉 황수경 아나운서 공동 MC
2013년~현재 KBS 제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인문화예술 향수권 코너 진행

방송 출연

KBS 〈열린음악회〉, 〈아침마당〉 / SBS 〈놀라운 대회 스타킹〉, 생방송 〈투데이〉
MBC 생방송 〈오늘 아침〉, 〈희망무지개〉 / YTN 〈희망캠페인〉 외 다수

www.idok.co.kr



17세의 첫 도전

두 살 때 소아마비로 중증의 장애를 갖게 된 배은주는 열일곱 살이 될 때까지 집안에서만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살았던 2층집 그녀의 방엔 작은 창문이 있었는데 그 작은 창문을 통해 본 세상이 배은주가 본 바깥 세상의 전부였다. 그녀는 학교에 가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지만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책을 통해 넓은 세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꿈을 키웠다.

첫 번째 도전은 검정고시였다. 독학으로 초·중·고등학교 과정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획득하였다. 두 번째 도전은 다리 수술이었다. 당시는 옆구리가 붙어서 똑바로 앉아 있지도 못하였다. 이동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의 등을 빌려야 했다. 혼자서 이동만 할 수 있다면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여수 애양병원에 입원 신청을 하였다. 그곳에서 허리부터 다리까지 대 수술을 받고 목발에 의지해 걷게 된 순간이 지금까지 가장 감격스럽다고 할 정도로 그녀에게 이동의 자유는 날개를 달아 주었다.

세 번째 도전은 취업이었다. 사회생활을 해 보고 싶어서 전자회사에 취업을 하였는데 월급을 모아 자동차를 샀을 때 그녀는 더욱 강력한 이동의 자유를 획득하였다.

6개월 정도 일을 하니 회사에서 인정을 받게 되어 월급날에 정식 보너스 외에 회사 사장님이 자동차 운전석 방석 밑에 특별 보너스를 슬며시 넣어 주셨을 정도로 회사 생활은 성공적이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한다면 반드시 세상은 보상을 해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귀한 경험이었다.

그때 경험이 예술단을 경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할 정도로 배은주를 한층 성장시켜 주었다.



KBS 제1회 장애인가요제

배은주는 애양병원에서 간호를 자청해 준 남자와 5년 연애 끝에 1996년 결혼을 했다. 그녀에게 든든한 보호자가 생긴 것이다. 딸을 낳고 키우며 여자로서의 행복을 누리고 있을 때 TV에서 장애인가요제를 한다는 광고가 나왔다. 그녀는 어렸을 때 혼자서 노래를 부르며 외로움을 달래곤 했었다. 노래를 잘 부른다는 칭찬을 많이 받았기에 도전해 보고 싶었다.

가요제와 함께 수기 모집이 있었는데 책을 읽으며 글을 쓰는 작가가 되는 꿈을 꾸었기에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해 공부를 할 정도로 글쓰기 실력이 있었기에 수기 모집에서는 항상 큰 상을 받았다. 제1회 KBS장애인가요제 본선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도 수기 힘이 컸다. 가요제에서 장애인의 감동 스토리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녀는 가요제에서 은상을 받았다. 노래를 부른 후 남편과 두 돌 된 딸과 함께 출연하여 인터뷰를 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격려해 주었다.

오아시스레코드사에서 수상자들과 함께 음반을 제작해 주어 전문 연예기획사에 들어가 가수로서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루아침에 가수가 되었다.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기뻐서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작은 무대라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다.

그런데 가수라는 직업에 커다란 사명감을 갖게 되는 하나의 사건이 생겼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설교에 특송을 맡게 되었는데 너무 긴장하고 잘 해야겠다는 욕심 때문에 마이크를 켜지 않고 노래하는 실수를 했다. 너무 창피해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머리를 푹 숙이고 있는데 한 젊은이가 그녀 손을 덥석 잡으며 “오늘 내가 자살을 결





심했는데 조금 전 부르신 노래를 듣고 마음속에 희망이 생겨 열심히 살아가리라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 배은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단 한 사람만이라도 자신의 노래를 기쁘게 들어준다면 평생 사명감을 가지고 노래를 하며 살리라고.

네 바퀴의 꿈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 어느덧 자신과 같은 많은 장애인예술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재능 있는 장애인가수나 예술인들이 있는데 공연 기회가 없어서 일 년에 한두 번 밖에 무대에 오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아무도 장애인가수를 키워 주지 않으니 우리가 서로를 키워 주고 스스로 공연을 기획해서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에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을 창단하게 되었고 창단기념으로 <세상의 빛이 되는 노래>란 음반을 발표하였다.

예술단을 창단하여 국내 공연은 물론 프랑스 파리 마들렌느 성당에서 대중음악으로서는 처음으로 공연을 하여 KBS <9시 뉴스>에 보도될 만큼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 후 터키-이스탄불 아야 소피아 성당 메인 무대에서도 수화창작무용과 함께 콜라보 무대를 선보이기도 했다.

공연을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하는 모든 과정이 배은주 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에 들어와서도 일을 해야 한다. 어디 그뿐인가 그녀는 예산을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을 만나 머리를 조아리며 부탁을 해야 하고, 사업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는 것도 그녀가 담당할 몫이다.

하지만 배은주는 이 모든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녀가 네 바퀴로 꿈을 이루었듯이 다른 장애인예술인들의 꿈도 자신의 역할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가수다

2009년에는 SBS <놀라운 대회 스타킹>에 출연에 2연승을 거두면서 버라이어티 무대에서 펼쳐 여성 가수로서의 아름다운 가능성을 유감없이 보여 주었다.

2008년 첫 싱글 앨범 <네 바퀴의 꿈>으로 활동을 하다가 2015년 7년 만에 발표한 세미트로트 장르의 자작곡 <멈춰 버린 시계>는 그해 인터넷 검색 인기 신곡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모았다.

배은주는 가수이다. 작사 작곡까지 할 수 있는 멀티 엔터테이너이다. 그녀는 무대에 서기 위해 무대 의상을 준비하고 메이크업도 정성껏 한다. 액세서리로 화려한 코디도 즐긴다. 그것이 가수로서의 예의이기 때문이다.

가수로서의 그녀의 꿈은 소박하다. 단 한 사람이라도 그녀의 노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래하며 살아갈 것이고 우리나라 방방곡곡 아니 세계 구석구석 휠체어를 타고 달려가 노래를 통해 희망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다.

배은주는 가수로 기억되기를 원하며 그녀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그녀의 스토리텔링이 관객들에게 감동으로 장애인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를 소망한다. 🍷

장애인문화의 터줏대감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 안중원 회장

1982년 KBS-1라디오 장애인 프로그램 <내일은 푸른하늘> 방송팬클럽 성격으로 전국의 장애인들이 한강 둔치에 모여 장애인의 친목 도모와 사회적 옹호를 위해 설립되어 2003년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법인허가를 받은 한국장애인문화협회는 ‘문화를 통해, 장애를 넘어, 세상의 빛으로!’라는 슬로건으로 한국에서 문화를 통한 신개념 문화복지운동을 최초로 시작한 장애 당사자 단체이다.

한국장애인문화협회는 장애의 핸디캡을 보완할 수 있는 생활 속의 문화정책의 개발과 장애인들이 지니고 있는 독창적인 예술성을 이끌어 내어 전문 예술인으로 승화시키는 다양한 예술 지원 사업들을 펼친다. 시·도협회와 지부를 가진 전국 조직으로 회원이 3천여 명이 넘는 큰 단체로 성장하며 장애인문화예술을 대표하는 다양한 사업으로 장애인문화예술을 주도해 가고 있다. 협회의 주요 사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

장애인문화예술의 각 분야별 5년 이상의 경력과 활동으로 장애인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장애인문화예술인들에게 장애인문화예술대상을 통하여 장애인문화예술인들의 사기를 고취시키고, 사회적인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인식 제고와 전문인으로서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국위 선양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선발 방법

- 발굴·신청: 개인 / 기초지자체(시·군·구) / 기관·단체 산하지부
- 1차 심사·추천: 광역지자체(시·도) / 개별기관 및 단체 / 단체 시·도협회
- 2차 심사·선정: 주관기관(선정위원회)
- 최종심사·포상: 문화체육관광부

시상 부문

-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 1명(대통령상), 장애인문화예술우수상 1명(국무총리상)
- 공로상 지원 부문 1명(국회의장상), 공로상 육성 부문 1명(헌법재판소장상)
- 음악, 미술, 문학, 대중예술의 각 부문별 1명(총 4명, 문화부장관 표창)
- 특별상 발굴 부문(주최 기관상)

장애인문화예술아카데미

장애 당사자들의 문화예술에 관한 향수 실태를 잘 아는 장애 당사자 및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장애인문화예술아카데미'를 운영함으로써 장애인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이해 촉진과 전문적 컨설팅, 장애예술인 발굴, 일반 문화예술인과의 교육연계지원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애인문화예술지원 활동을 한다면 건전하고 발전적인 장애인문화예술의 조기 정착과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사회 통합 및 문화 동반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장애인연극제

장애인연극 극단 및 소규모 연극 극단의 창작 작품을 무대에서 표현하고 서로 경쟁해 자신들만의 연극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연극을 통해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서로를 위해 사랑을 실천하며 모두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 사업 대상: 장애인연극 예술인 및 기타 소외계층 예술인
- 추진 방향: 2016, 체인지 마인드(비장애 연기자들이 펼치는 장애인문제 연극)

전국장애청소년예술제

장애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사회적 인식을 제고, 예술적 재능이 있는 장애청소년을 발굴 및 양성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다.

진행 방법

- 문학, 미술은 사전 접수를 받아 사전 심사 후 행사 당일 시상
- 악기, 노래, 무용&댄스는 당일 심사 후 시상

경연 부문

- 전통악기 연주 부문 / 서양악기 연주 부문 / 노래 부문 / 춤&댄스 부문
- 문예창작 부문 / 미술 부문

시상 부문

- 각 부문별 최우수(1팀), 우수(1팀), 장려(1팀) 시상

어떻게 단체 성격을 문화로 잡았는지.

내가 그때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은 언론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 수단이 문화였기에 방송과 문화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법인을 내는 과정에서 문화만 선택하게 되었다.

당시는 장애인단체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법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법인은 전혀 염두해 두지 않았다. 그래서 법인 신청을 하러 문화부에 갔을 때 나에게 복지부로 가라고 설득하지 말라고 먼저 선언을 했다. 만약 문화부 규정에 맞지 않으면 몇 번이라도 수정해서 다시 가져오겠다고 했다. 당시는 장애인 하면 무조건 복지부로 가라고 하던 때이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장예총)이 법인을 받은 것은 2012년이지만 장예총을 만들어 운영한 것은 안 회장 아닌가.

2007년이니까 올해 꼭 10년이 된다. 그때는 지금처럼 장애인문화예술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하지 않았지만 욕구는 강했다. 당시 7개 단체가 모여 장예총을 만들고 내가 초대 회장을 했다. 당시 장예총은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에 장애인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제15조2) 규정을 넣어 개정을 했다.

그 개정 작업도 2년이 걸렸다. 민주당 손봉숙 의원이 많이 도와주었다. 장애인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한 세미나를 국회에서 꾸준히 개최하며 기초 작업을 했다.

장예총 법인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다음 회장은 재력이 있는 분으로 모셨다. 그런데 그분은 사회복지 전문가여서 관련 큰 단체 회장으로 가게 되어 장예총 법인 작업이 흐지부지해졌다. 그때 한빛예술단 김양수 회장이 장예총 법인을 하자고 나섰지만 쉽게 진행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다 2012년 방귀희 발행인이 대통령 문화특사로 임명되면서 그해 8월에 장예총 사단법인 승인이 되었고 김양수 회장이 법인 장예총 상임대표로 선출되었다.

안 회장은 아이디어가 샘솟는 것 같다. 너무나 많은 사업을 직접 만들어 시행해 오고 있지 않은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아니까 사업 아이템이 나오는 거지 아이디어가 좋아서는 아니다.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 초대받아서 간 적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도 저런 상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너무나 간절했다. 그래서 그날 갖고 온 팸플릿을 보물단지처럼 잘 보관해 두었다.

그때부터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을 구상해서 실천하기까지 3년이 걸렸다.

문화부에 가서 장관상을 제정해 달라고 하자, 행사가 3년이 지속돼야 장관상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걸 설득해서 첫회부터 받아냈다.

행사를 치루기 위해 장소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장애인 행사일수록 좋은 장소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내 소신이다. 그래서 일산 킨텍스에서 2006년 1회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 시상식을 했다. 그런데 그때는 행사가 이틀 동안 진행되었다. 지금은 전국장애청소년예술제로 명칭을 바꾼 전국장애인문화혁신대회라는 것을 첫날 실시하고 둘째날 시상식을 했다. 아마 추어 장애예술인들의 경연대회를 먼저 하고 나서 전문 장애예술인들에게 시상을 하여, 예술인 선후배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그야말로 장애인문화예술의 전당으로 만들고 싶었다.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 4회 대회부터는 대통령상으로 승격하였다.

가장 보람이 컸던 사업은.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과 전국장애청소년 예술제는 함께 시작했는데 작년에 문화부 담당자가 바뀌면서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떠나는 바람에 전국장애청소년예술제가 개최되지 못하여 가슴이 너무 아프다.

전국장애청소년예술제는 9회에 걸친 대회에 장애인 청소년 4,276명이 참여하여 471명이 수상을 하였는데 수상자들은 상을 받고 난 후 예술에 더욱 관심을 갖고 전문 예술교육을 받기 위해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대학에서도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탄생하여 장애학생들에게 예술에 대한 동기 부여의 역할을 하였다.

문화부 담당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사업이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이보다 1년 앞서 나눔연극제를 시작했다. 장애인이 연극을 한다는 것을 생각조차 못하던 시절이었다. 솔직히 나도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런데 고맙게도 연극인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연출은 물론 무대 설치, 조명, 음향, 의상 등 각 분야에서 최고의 분들이 재능기부를 해주어 멋진 연극 공연을 할 수 있었다. 오디션을 통해 장애인 연기자를 뽑을 때 감동 그 자체였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온 뇌성마비 연기자들의 연기, 무표정한 얼굴을 가진 장애인의 열연 등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장애인들의 오디션 참가에 그동안 장애인들이 얼마나 연기를 하고 싶었는지 알 수 있었다.

나눔연극제의 주인공은 당뇨로 실명한 중견 탤런트 홍성민이었다. 그는 나눔연극제 덕분에 연기를 다시 하게 되어 기쁘다고 눈물을 쏟았다. 나눔연극제가 장애인연극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가장 어려운 점.

두말할 나위 없이 사업비 마련이다. 장애인문화예술단체 가운데에는 5억 이상의 국고 사업비를 받는 단체들이 몇 군데 있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 사업비로 5천만 원 받는 것이 전부이다.

다른 사업은 서울시 인식 개선 사업이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 사업으로 충당하였지만, 공모 사업이라서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매우 힘들다.

솔직히 국고를 받는다 해도 운영비와 인건비는 포함이 되지 않아서 장애인문화예술단체들이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그렇다면 민법에 의해 단체 운영비는 회비나 후원금으로 마련을 해야 하는데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이 회원이라서 장애인에게 회비를 받을 수 없다. 그런 단체는 후원금 모금이 안 된다. 사람들은 장애인들이 모여서 사는 장애인 시설에 후원을 한다. 게다가 기업 후원은 기업 내 사회공헌팀이 생긴 후 불가능해졌다.

그렇다면 사업을 해야 하는데 비영리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겠는가?

2017년 장애인문화예술을 어떻게 전망하는가.

구조가 똑같은데 새해라고 무슨 변화가 있겠는가? 여전히 암담하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장애인문화예술단체를 육성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장애인문화예술 발전 중장기 계획을 보니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직원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서 깜짝 놀랐다. 직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장문원이 직접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장문원은 장애인문화예술정책을 개발해서 장애인문화예술계의 하드웨어 역할을 하며 동력을 만들어 내야 한다.

장문원 직원 20명 늘리는 것보다 문화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문화예술 담당 직원 1명이라도 더 확보해서 장애인문화예술팀 나아가 과가 신설되겠구나 하는 희망을 줘야 한다.

문화부 장애인문화예술 담당자가 너무 자주 바뀌어서 우리 단체들은 맨날 똑같은 설명을 해 준다.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있다. 문화부 장애인문화예술 담당자가 이미 확보된 사무관 1명, 주무관 2명이라도 분명히 해 주어야 한다. 지금은 사무관 1명밖에 없는 것 같다. 문화부가 안정이 되어서 사업을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장애인문화예술 관련법을 만들어 가는 것이 새해 우리가 할 일이다. ☺



OH SOON YI 오순이

2016. 10. 5~11 가나인사아트센터

주요 경력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동양학과 졸업
국립 중국미술학원 국화계 산수화와 석사, 박사 졸업
2013. 1~2014. 2 Oregon University visiting scholar

개인전

11회(Seoul, Taipei, L.A, Haenssa, Oregon university, NewYork 등)

단체전

국내·외 단체전 200여 회
세계구족화가협회전(Canada, Vienna, Lisbon, Taipei, HongKong, Sydney 등)
한국현대미술의위상(한국일보 갤러리)
15회 한국·인도 작가교류전(India, NewDelhi)
한·일 미술교류전(Japan)
한국·터키 수교50주년기념 미술교류전(Turkey)
한국미술대학교수 작품초대전
한국화 여성작가 1호전
국제미술교류전(시드니)
중국 산둥예술학원 50주년기념 단국대학교 교수작품 초대전(China)
한·일 현대미술 100인전(Japan)
한국현대미술 독일전
제30회 국제선면전, 현대의 선·면·예술
한-아랍에미레이트 수교 30주년 기념 한국현대미술 초대전
독일 고테문화원 초대전(International Korea Art Festival)
지중해 국제아트페어
대한민국 현대 뉴스타 초대전
2016 한·중 현대미술교류전

현재

한국미술협회, 한국화여성작가회, 기초조형학회, 신미술협회, 세계구족화가협회 회원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동양학과 교수



내 마음의 풍경
한지 · 먹 · 채색 55×70cm 2016



내 마음의 풍경
한지 · 먹 · 채색 72×90cm 2016



내 마음의 풍경
한지 · 먹 · 채색 55×70cm 2016



내 마음의 풍경
한지 · 먹 · 채색 72×90cm 2016





내 마음의 풍경
한지 · 먹 · 채색 40×90cm 2016

오순이 화백의 〈풍경 속의 풍경을 찾아서〉

장 정 란(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외래교수, 미술사 문학박사)

오순이의 그림은 수묵으로 그리는 산수풍경이 특징이다. 지금까지 일관되게 거대한 대관을 산수보다는 조촐한 산수풍경의 다양한 정감을 탐구해 왔다. 화면에 거대하게 산수풍경을 펼치기보다는 산수풍경을 구성하는 개개의 나무와 산, 바위와 물(水)들이 서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에 관심을 가져왔다.

이번 전시는 새로운 산수표현 형식으로 기존의 그림들과 차별된다. ‘내 마음의 풍경’이라는 전시 주제가 암시하듯이 실제적 산수풍경보다는 내가 보고자 하는 풍경을 탐색하고 있다.

오순이가 그리고자 하는 마음속의 풍경은 소란한 현실을 잠시 잊고 우리가 떠나왔던 고향의 산하를 떠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 풍경 속의 고향은 실제적 대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리는 마음속의 인식적 고향이다. 이 지점이 오순이가 그려내고자 하는 풍경일 것이다. 그러므로 산수풍경으로 보이는 풍경 속에 또 하나의 정경(情景)을 만들어 내면서 작가가 그리워하는 풍경을 찾아가고 있다.

이런 의도가 이번 전시 작품의 추구점이며 오순이가 새롭게 해석하고자 하는 이중적 장치의 풍경산수이다. ●



세 번째

변화하다

『e美지』세 번째 목표인 예술을 통한 장애인 인식 개선으로
사회 변화라는 열매를 기대합니다.



UD 찾기

잠실창작스튜디오로 가자

잠실창작스튜디오는 국내 유일의 장애예술인 창작레지던시이다.
서울문화재단에서 2011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 8기 입주 작가까지
65명의 장애예술인을 발굴, 지원해 오고 있다.
매년 입주 공모를 통해 시각예술 분야의 장애예술인 12명을 선발하여 입주 공간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교육프로그램 <굿모닝스튜디오>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도 하고 있다. 그밖에 장애아동 창작지원사업
<프로젝트 A>와 장애가족 대상 원예힐링 프로그램 <뿌피 풀놀이> 등
장애인문화예술 향유와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잠실창작스튜디오 입주 공간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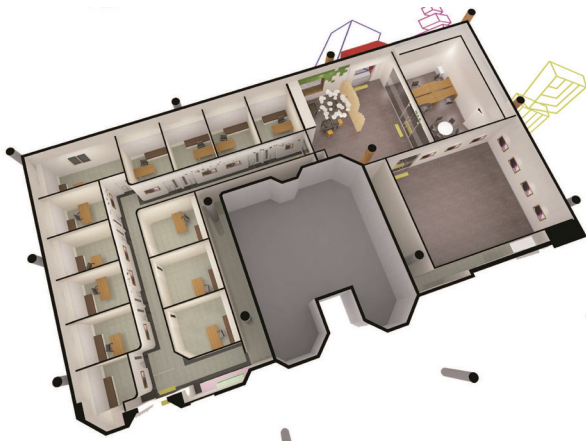
잠실창작스튜디오에는 장애예술인들이 입주 가능한 총 12개의 작업실이 있다. 독립된 개별 작업실의 면적은 평균 13㎡(약 4평)이다.

입주실에는 기본적으로 수납장과 작업 테이블과 의자, 간이침대가 제공된다.

편의 설비로는 장애인을 위한 비상 호출벨이 설치되어 있어 비상 시 직원 호출이 가능하다. 작업실 문은 휠체어의 출입 편의를 위해 일반 규격 문보다 폭이 넓은 미닫이문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청각장애인 입주자를 위한 LED 알람벨도 마련되어 있다.

안전 설비로는 시각정보기, 스프링클러와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투척소화기가 각 작업실마다 비치되어 중증장애인이 안심하고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지원하고 있다.

잠실창작스튜디오는 입주실 외 다목적실 하늘연, 입주작가들의 공동휴게실 미소뜰과 전시형 쇼케이스 니온갤러리, 쿡갤러리와 스튜디오에 외부에 공동작업실이 구비되어 있다.



잠실창작스튜디오 입주 안내

● 공모 기간: 매년 2~3월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잠실창작스튜디오 페이스북 공고

* 서울시 창작공간 통합공모 진행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공모 접수 방법: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로 신청

- 지원 분야: 시각예술 부문
- 입주 기간: 1년
- 선정 규모: 총 12명
- 지원 자격: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거주 장애예술인
- 지원 내용
 - 개인작업공간(평균 4평 규모, 입주실 배정은 입주심사 시 배정), 사용료 무료
 - 전시, 교육 등 기획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 스튜디오 구비, 공용공간 및 장비 대여



우리 아들 선(宣)의 걸음마

강원래(방송인)

나는 결혼한 지 13년 만에 아빠가 되었다. 부모님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은 포기한 듯하였지만 나는 아니 정확히 아내 김송은 아기를 꼭 갖고 싶어 했다. 그래서 시험관 시술을 여덟 차례나 하였다. 일곱 번 실패하고 여덟 번째 성공한 것을 보고 언론에서 7전8기라고 하였다. 그 유명한 홍수환 선수의 7전8기 신화에서 나온 말이다.

보통 서너 번 시도를 하다가 실패를 하면 포기한다고 하는데 김송은 아기만큼은 포기를 모르는 강한 여자였다.

김송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 많은 축하를 받았지만 한편에서는 강원래의 아기가 아닐 거라는 악성 루머도 돌았다. 듣는 순간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사실이 아니니 기분 나쁜 일도 아니었다.

드디어 2014년 6월 11일 3.95kg의 아기가 태어났다. 누구를 닮았을까? 갓 태어난 아기 얼굴을 보고 어른들의 주장이 갈라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아들 선은 강원래 붕어빵이라고 입을 모았다.



〈결혼식〉 선이가 태어나기 위한 엄마 아빠의 약속



〈탄생〉 아빠에게 와줘서 고맙다

선이의 걸음마



1

〈아빠 휠체어〉

아빠 휠체어를 잡고 일어서다



2

〈걸음마〉

걷기 위해서 조력자가 필요해



5

〈더 당당히 서다〉

이 정도는 돼야죠



4

〈당당히 서다〉

이 기분, 난 할 수 있다



3

〈까치발〉

까치발로 키 높이기



〈선의 다양한 표정〉 인상파, 귀요미, 서러워, 진지함



〈가족사진〉 아기의 카리스마



〈아빠 만세〉 아빠가 시키는 대로

내가 봐도 그렇다.

그런데 내 관심사는 우리 아들의 걸음마였다. 2000년 11월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까지는 걷는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상이어서 걸음이라는 행위를 별도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걸었는지, 과연 내가 걷기는 하였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아들의 걸음마를 지켜보는 것이 하나의 취미가 되었다. 선이가 일어났을 때, 선이가 발걸음을 떼었을 때, 선이가 손을 잡고 걸었을 때, 선이가 혼자서 걸었을 때, 선이가 뛰며 달렸을 때, 그 모든 것이 신기하고 자랑스러웠다.

어느덧 선은 내 휠체어를 밀어준다. 선의 키가 휠체어 높이에도 못 미치지만 쑥쑥 자라 내가 선을 올려다볼 때가 오면 춤추는 모습이 아빠 붕어빵이란 소릴 듣게 되지 않을까! 🍪



강 원 래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졸업, 안무가, 인기 그룹 '클론' 멤버, '꿈따라유랑단' 단장, KBS-1TV 〈사랑의 가족〉, KBS-3R 〈강원래의 노래 선물〉 진행, 한중대학교 '춤과대중예술' 전임교수, 서울베이비페어 홍보대사, 법무부 명예보호관찰관 활동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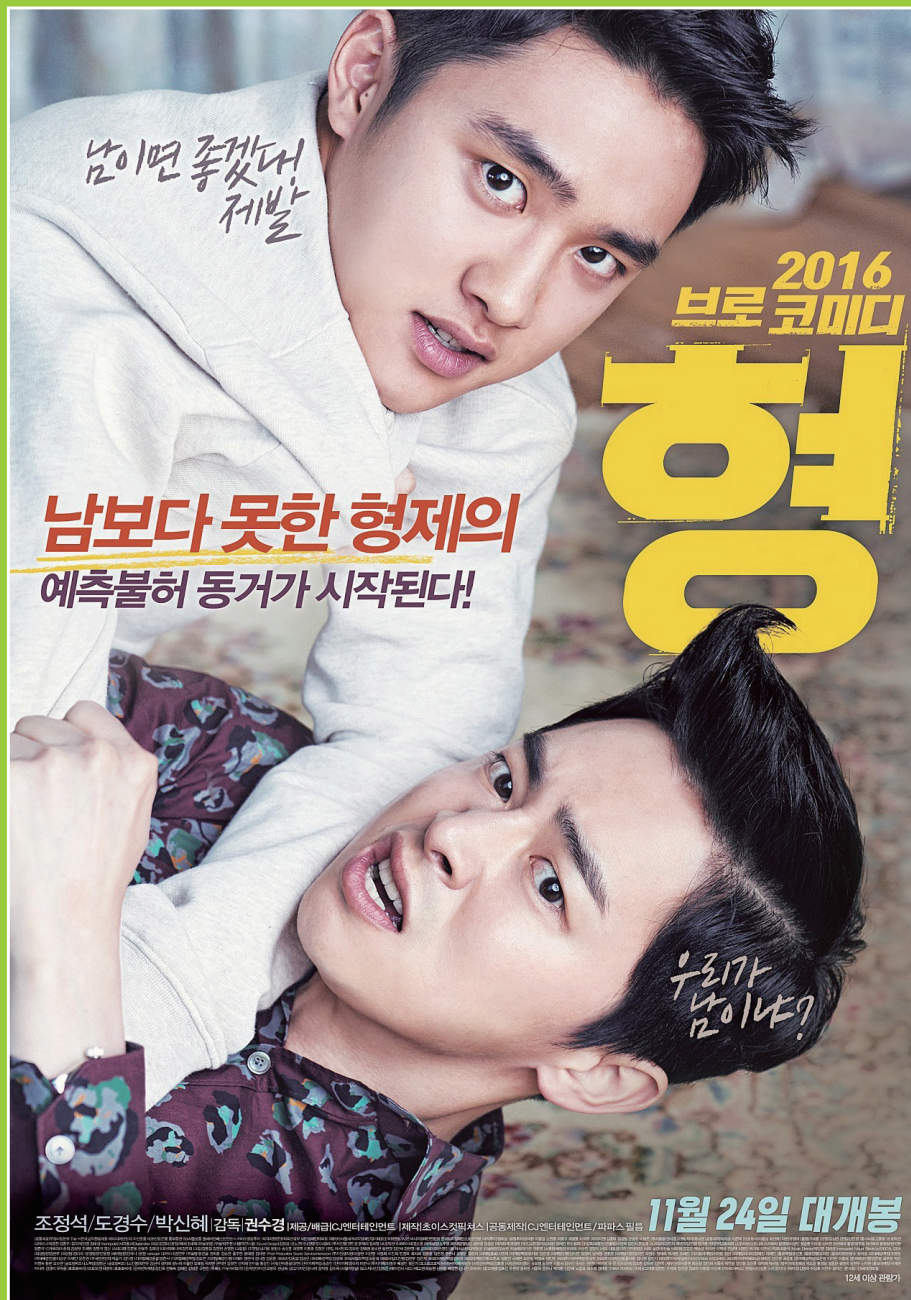
형은 왜 동생에게 각막이식을 안 했을까? 영화 <형>의 시각장애인

김 현 식(대중문화평론가)

이 코너는 장애인에 대한 현상을 대중문화 차원에서 비평하는 난으로
A는 able로 가능성을 뜻하고 able에 Culture를 붙여 '가능성의 문화'로서
하나의 문화 운동으로 확산시키고자 한다.

가족 안에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형이나 자매가 있다면, 불치병에 걸려 곧 세상을 떠날 다른 동생이나 언니가 어떻게 할까. 대개 드라마와 영화에서는 장기기증을 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남은 장애인에게 불치병에 걸린 가족구성원에게 장기를 기증하는 모습은 극적 감동을 이끌어 내려는 연출 콘셉트다. 영화 <형>에도 시각장애인이 등장하고 형은 불치병에 걸린다. 하지만 형은 동생에게 눈을 이식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식을 해 주지 않은 것은 단지 현실적인 불가능 때문이었을까?

대개 장애인의 관점에서 영화를 평가할 때 행태의 현실성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시각장애인의 행동을 영화에서 잘 그려내고 있는지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는 장애 극복이라는 설정이 어떻게 달리 접근되고 있는지를 살피려 한다. 우선 이 영화에서 동생(도경수)이 시각장애를 갖게 된 이유부터 살펴야 할 것이다. 유망한 유도 선수였던 고두영(도경수)은 실력대로 결승전에 진출하지만 열정적인 시합 중에 다친 부상으로 시각장애를 얻게 된다. 시





각장애를 갖게 된 그는 삶의 의지를 잃고 스스로 집에 자신을 가둔다. 집에 가족은 없고 다만, 내왕이 오래전에 끊긴 유일한 형은 감옥에 있을 뿐이다. 비록 엄마가 다른 형이지만 혈육, 그렇다면 운이 나빠 감옥에 간 형일까. 그러나 사기전과 10범 고두식(조정석)이다. 그러니 앞으로 벌어질 일이 뭔가 심상치 않다. 교도소에 있던 형 고두식은 신문을 보고 동생이 시각장애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동생의 보호자 역할을 맡는다며 감옥 밖으로 나온다. 막상 동생이 사는 집에 온 형은 시각장애인 동생을 잘 돌봐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못되게 군다. 그런데 형을 대하는 동생의 태도도 마찬가지였다. 까칠하기는 기본이고 반말도 서슴지 않는다. 뭔가 사연이 있음을 짐작하게 했다. 고두식은 주거공간이 없어 일단 옛집에 들어와 살기는 했지만 일찍 가출해서 가족과 연락이 오랫동안 끊겨 왔다. 불안한 동거 생활을 하게 된 두 사람. 그러나 고두식은 단지 동생에게 주거환경의 불편함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피해를 주기도 한다. 부모님의 납골당을 옮기는데 필요한 동의서에 동생의 인감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개

인 사비를 마련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동생은 인감을 내주고 만다. 사실상 그것은 동생에게 사기를 친 것이다.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고두영의 유도 코치 이수현(박신혜)이다. 코치 이수현은 두영이가 운동을 그만두고 집에 윤패한 것을 안타까워한다. 그래서 자주 찾아와 돌봐 주기도 하는데 어느 날은 유도를 계속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패럴림픽을 권유한다. 까칠한 두영의 형이라는 사람을 만나는 이수현은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에게 두영의 장애인올림픽 출전을 같이 권유한다. 하지만, 보통의 형답지 않은 그는 이수현의 제안을 거절한다. 하지만, 조금씩 동생에게 연민을 느껴 가던 형 고두영은 동생과 점차 예전의 상처도 치유해 가기 시작한다. 그런데 행복이 시작될 것 같은 상황에서 일이 그냥 순탄할 수는 없었다. 고두식은 젊은 나이에 스티브 잡스가 걸렸던 암에 걸리고 만다. 바로 췌장암. 심각한 상황에 이를 때까지 잘 파악이 안 된다는 그 췌장암에 걸린 형은 곧 세상과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동생과도 작별을 해야 한다. 영화의 이런 전개에서 하나의 색다른 결과를 생각하게 된다. 단지 각막이식과 같은 장기 기증이 아니라 동생이 스스로 자신의 재능을 살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형이 용기를 북돋워 주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대목 때문에 신과 영화라는 평가를 듣기도 한다. 무엇보다 애초에 영화는 각막 손상이 아니라 시신경손상이라고 증상의 설정을 해 두었다. 왜 작가는 이런 설정을 했을까. 그것은 시각장애인에게 중요한 것은 단지 장기 기증을 통해서 시력을 회복하는 것이 근원적인 점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장기 기증으로 시력을 회복될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게 된 형 고두식은 동생 고두영이 패럴림픽 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끈다. 사실 앞이 안 보이게 된 고두영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고두식은 학교운동장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동생이 뛸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완전히 두 사람은 어린 날의 상처를 극복하고, 온전히 화해한다. 이 지점에서 장애에 관한 함의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 동생이 장애를 얻었을 때 적어도 형 고두식은 장애를 얻게 된 동생을 측은하고, 불쌍하게 봤을지 모른다. 어린 날의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입은 상처 때문에 겉으로 그것을 내색하지 않았어도 말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장애와 관련한 함의가 있지 않을까 싶다. 고두식은 시각장애보다 더 치명적인 췌장암에 걸려 불과 몇 개월 만에 세상을 떠야 했다. 겉으로야 건강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듯이 과시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곧 예정된 존재였던 것이다. 몸을 아무리 활발하게 움직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었어도 곧 존재적 효용이 없었다. 우리는 모두 잠재된 장애인들이라는 점을 어찌면 고두식은 극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



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가 뒤늦게 깨달은 바가 있어 동생이 자신의 재능을 살려 장애인올림픽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경기에 나가서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비록 몸이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말이다. 형은 떠났고 시각장애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동생은 여전히 자신의 재능을 살려 삶을 영위하게 되었다. 만약 형이 동생을 보호한다며 감옥을 나오지 않았다면 동생이 새로운 삶을 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요즘 유행하는 형과 동생의 브로맨스 코드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장애의 관점에서 보면 장기 기증으로 새로운 시력을 찾아 비장애인으로 잘 살게 되었다는 뻘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점, 그것이 중요할 것이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고 평균수명의 연장에서 이는 더욱 명약관화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어떤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바람직할 것이다. 원상태에 대한 집착은 자칫 퇴행적인 행동이 될 것이며 오히려 삶을 불편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영화처럼 쉬운 문제일 수가 없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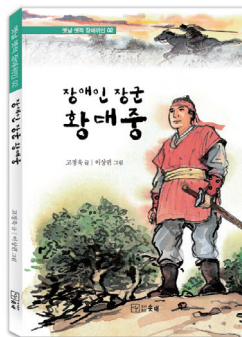
김 현 식

대중문화평론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초빙교수, 카이스트미래세대행복위원회 위원, 제40회 방송대상 심사위원, 저서 『비욘드 블랙』, 『세종, 소통의 리더십』 등.

한국장애인사

애마를 타고 나라를 구한 장군 황대중

황대중 장군은 임진왜란 때 양쪽 다리를 저는 지체장애인으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왜군과 싸우다 장렬히 죽은 영웅이었습니다. 양쪽 다리를 다 저는 그가 장애인이 된 사연은 더욱 감동적입니다. 한 다리는 죽어 가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또 한 다리는 나라를 위해 싸우다 왜군의 총탄에 맞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명마를 타고 명검을 휘두르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쓰다 삶을 마감했습니다. 장애가 있지만 그 누구보다 효성스럽고 충성심 강했던 장군 황대중을 만나 보세요. 그러면 아마 장애인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편견이 깨질 것입니다. 물론, 장애인에 대해 좀 더 관심도 갖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은 장애인을 있는 그대로 봐주며, 그들을 동등한 인간으로 대해 줄 때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옛날 옛적 장애위인 시리즈〉는 역사 속 장애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그때 장애인물들의 삶을 통해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비롯한 전반적 문제점들에 대해 좀 더 쉽게 이해를 돕고자 도서출판 숲대가 발간한 시리즈이다.

- 도서출판 숲대 〈옛날 옛적 장애위인 시리즈 02〉
- 장애인 장군 황대중
- 저자 고정욱 | 도서출판 숲대 | 2009년 | 반양장본 | 104쪽
- ISBN: 9788962530438

절룩거리는 불편한 다리로 임진왜란에 참전하고 성했던 다리까지 상처 입은 후 결국 전장에서 목숨을 잃은 인물이 있다. 그는 바로 황희 정승의 5대손으로 1551년 한양에서 태어난 양건당(兩建堂) 황대중(黃大中, 1551~1597)이다. 황대중에 관한 기록은 자세하진 않지만 임진왜란에서 그가 세운 공이 크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일화들이 남아 있어 조금이나마 그의 삶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황대중은 1551년 한양 백동에서 아버지 윤정과 어머니 진주 강씨 사이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나 황대중은 당시 영암군수로 있던 조부 황응을 따라 전라남도 강진군 작천면 구상리로 떠나게 되면서 이후 이곳에서 터를 잡고 살게 되었다.

황대중이 한쪽 다리를 절게 된 것은 그의 지극한 효성 때문이었다. 그의 어머니가 병에 걸려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황대중은 자신의 왼쪽 허벅지 살을 베어 어머니의 약으로 쓰게 했고, 결국 그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게 된 것이다. 이후 사람들은 황대중의 효성에 감복하여 그를 ‘효건(孝健)’ 즉, 효성의 절름발이라 불렀다. 황대중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그의 효심이 알려져 십 리 밖까지 조문객의 행렬이 늘어서 있었다고 한다. 또한 그의 일화가 조정에까지 전해져 황대중에게 정릉참봉이라는 벼슬을 내렸지만 그는 이를 거절하고 관직에 나가지 않았다.

황대중에게는 일본에 통신사로 파견되었던 사중숙부 우송당(友松堂) 황윤길(黃允吉)이 있었다. 황윤길은 조선으로 돌아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이는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동인들에게 묵인되고 말았다. 하지만 결국 1592년 임진왜란은 발발하고야 말았고, 황대중은 전라도에서 뽑힌 80여 명의 별초군 중 한 사람으로서 전쟁에 참가하였다. 그는 한쪽 다리가 불편했지만 활쏘기에 뛰어나 선조가 의주로 피난할 때 호위 무사로 활약하기도 했다.

황대중은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과도 깊은 인연이 있다. 1593년에 황대중은 원병을 데리고 조선으로 왔던 명나라 장수 이여송(李如松)의 휘하에 들어가 제2차 진주성 싸움에 참가했는데, 이 전투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간신히 탈출하게 되었다. 이후 황대중은 통제사(統制使) 이순신의 휘하에 들어갔고, 한산대첩에서 왜군들과 싸우다 적의 총탄에 멀쩡했던 다리를 맞아 양쪽 다리를 모두 절게 되었다. 이 사건 이후 이순신은 황대중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과거의 다리는 효건(孝健), 지금의 다리는 충건(忠健), 두 다리를 함께 절룩거리니 양건(兩健)이다.”¹

1 “강진 말무덤을 아시나요”, 『연합뉴스』 2005년 9월 8일

그때부터 황대중은 자신의 호를 양견당(兩蹇堂)이라 정하게 되었다. 황대중의 삶은 1597년 발생한 정유재란에서 마지막을 맞게 되었다. 당시 전라도 병마절도사였던 이복남(李福男)은 황대중을 비롯하여 김경로(金敬老), 신호(申浩) 등과 함께 남원성 전투에서 왜군들과 격전을 펼치고 있었다. 그러나 왜군들의 공격은 거세졌고, 남원성의 사람들은 이를 막아내기가 쉽지 않았다. 결국 황대중은 날아오는 총탄을 가슴에 맞고서 이복남, 김경로, 신호 등과 함께 전사하고 말았다.

황대중이 죽자 약봉(藥峯) 서성(徐澄)과 이순신이 조제문(弔祭文)을 적어 주었는데, 이는 그의 시문 집인 양견당문집(兩蹇堂文集)에 실려 있다. 황대중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는 신기한 일화가 하나 있다. 이는 황대중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언제나 함께했던 그의 말에 대한 이야기이다.

황대중에게는 항상 전장을 누비며 함께하던 애마가 있었다. 애마는 황대중의 다리 역할을 해주었다. 다리가 불편한 황대중은 전쟁터에서 말을 타고 활을 쏘거나 장검을 휘두르며 적군을 쓰러뜨렸는데 애마가 황대중의 다리처럼 움직여 주어 큰 공을 세울 수 있었다.

그런데 남원성 전투에서 황대중이 전사하자 이 말은 주인의 곁을 떠나지 않고 맴돌며 눈물만 흘렸다. 이에 김완(金完) 장군이 황대중의 시신을 말 등 위에 얹어 주자 애마는 주인을 태우고 300리 길을 밤낮으로 달려 황대중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전남 강진으로 향했다. 그리고 황대



양견당애마지총(출처: 네이버 블로그)

중의 장례식이 치러지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다가 결국 주인을 따라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황대중의 가족들은 말의 충심에 감동하여 주인이 묻힌 묘 옆에 무덤을 만들어 ‘양견당애마지총(兩蹇堂愛馬之塚)’이라는 비석을 세워 주었다.

황대중은 임진왜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중 하나이다. 불편한 다리로 직접 전쟁에 참가하였고, 왕을 호위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목숨 또한 전장에서 끝맺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체장애인이었다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황대중이 이룩한 업적들은 충분히 칭송받아 마땅한 것들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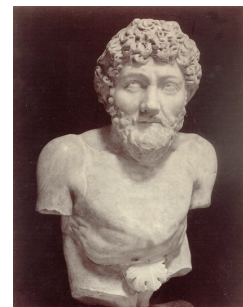
세계장애인물사

장애문인 이속

‘이속우화’에는 유익한 교훈과 훈계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다. 그리고 우화는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식인층에서 우화를 인용하며 자신의 재치를 뽐내는데 사용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들은 ‘이속우화’를 소중히 여겼다고 한다. 소크라테스는 감옥에 갇혀 사형 집행을 기다리면서 ‘이속우화’를 운문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고 전해지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속우화를 수집하여 제자들에게 체계화시키도록 맡겼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모르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속이란 인물 자체이다. 14세기 프라누데스의 <이속전>에 의하면 그는 척추장애인이었고, 천부의 기지, 해학, 화술로써 노예에서 해방되어 우화작가로서 이름을 떨쳤다고 전한다. 이속의 외모에 대해 이런 기술이 있다.

— 머리는 반짝반짝한 대머리였고, 눈은 단춧구멍만한 데다 툭 튀어나왔다. 코는 납작할 대로 납작한 데다 콧구멍이 유난히 커서 벌름거렸다. 입은 앞으로 돌출된 데다 입술이 두꺼워 얼굴에 온통 입만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얼굴이 가슴에 파묻힌 듯 목이 없어 답답하기 이를 데 없었고, 키가 유난히 작은 데다 배는 볼록 튀어나와 걷는 모습이 마치 뒤통거리는 원숭이 같았다. —



어디 그뿐이라, 그는 등이 마치 짐을 지고 있는 듯 튀어나와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지독히 못 생긴 추남인 데다 척추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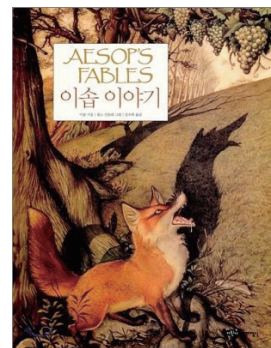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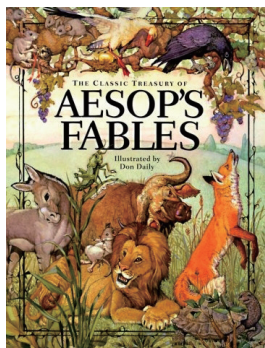
이솝(Aesop, BC 520~564)은 기원전 6세기 초반 인물로 기원전 564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 좀 더 정확히 설명하자면 이아드몬이라는 사모스 시민의 노예였으며 아폴로의 신탁으로 유명한 델포이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

이솝은 그리스 고대의 도시국가들이 서로 전쟁을 치르던 도중에 포로로 잡혀 노예가 된 것이다. 이솝은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집사 노릇을 했는데 그것은 뛰어난 말솜씨 때문이었다. 그는 협상이나 논쟁에서 재치있는 우화로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특별한 재주가 있었다. 그 능력을 인정받아 류디아왕 크로이소스의 총애를 받아 왕의 정치 고문이 되기도 했다. 이솝은 각처로 다니면서 우화로 사람들을 일깨워 주어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급기야 기원전 5세기 후반 그리스에서는 이솝이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졌고 전 세계로 퍼져 나가 오늘날 까지 이솝은 우화작가의 대명사가 되었다.

〈이솝전〉에는 약 700편 이상의 우화가 실려 있지만, 그 우화들의 일부가 그의 창작이 아님이 밝혀졌다. 그중에는 인도의 전설, 설화 등이 많이 혼입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헤로도토스, 소크라테스 등의 저서에도 그에 관한 기록이 있으며 그의 실존과 그의 우수한 문학적인 재능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문학은 만들어 낸 이야기이다. 그래서 문학의 출발은 우화에서 찾기도 한다. 그렇다면 문학의 창시자는 이솝이고, 문학의 원조는 장애인이었다는 추측이 가능해진다.

이솝우화는 짧은 이야기이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무궁무진하다. 이솝우화 몇 편을 골라 해석을 달아 이솝의 지혜를 공유하려 한다.



1. 정직이 최선

배부른 늑대가 누워 있는 양을 보았다. 양은 혼자 힘으로 일어서려고 애쓰고 있었다.

늑대는 배가 불러서인지 양에게 다가가 안심시키면서 만일 양이 세 가지 진실을 말한다면 잡아먹지 않고 놓아 주기로 약속했다.

그러자 양은 다시는 늑대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첫 번째 진실을 말했다. 두 번째는 늑대가 눈이 멀어 버렸으면 좋겠다고 했으며 마지막 세 번째로 양이 말한 진실은 사악한 늑대가 비참하게 죽어서 더 이상 양들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늑대는 양의 솔직한 마음을 알고서 놓아 주었다.

진실은 사람을 감동시킨다. 만약 양이 늑대를 찬양했더라면 양은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진실의 가치를 무시한다. 심지어 진실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다. 진실 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 누구도 감동시킬 수 없는 나악한 존재이다.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우리는 언제 늑대의 먹이가 될지 모르는 위험 속에 있다.

2. 벽과 말뚝

무지막지하게 말뚝이 박힌 벽이 소리쳤다.

“내가 너를 괴롭힌 적도 없는데 너는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야?”

말뚝이 말했다.

“너를 괴롭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뒤에서 나를 세게 치는 사람이야.”

그렇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내 앞에서 행동하는 네가 아니다. 제3자이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만 원망한다. 원망하지 말자. 알고 보면 그도 피해자이다. 원망 대신 고통의 원인을 찾아서 함께 해결하자. 그래야 너와 나 우리 모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3. 말과 당나귀

어떤 사람이 말 한 마리와 당나귀 한 마리를 갖고 있었다. 어느 날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당나귀가 말에게 말했다.

“내 목숨을 소중히 여긴다면 내 짐을 조금 덜어 주는 게 어때?”

말은 들은 체도 하지 않았고 급기야 당나귀는 지칠 대로 지쳐 쓰러져 죽고 말았다.

그러자 주인은 당나귀의 짐을 모두 말에게 옮겨 실었다. 그뿐만 아니라 당나귀에게서 벗겨 낸 가죽까지도 그 위에 얹었다.

말은 한숨을 지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아, 기회를 놓치고 말았구나! 이제 된통 당하게 되었군! 당나귀의 그 가벼운 짐을 나누어 지고 가기를 거부하다가 이제 모든 짐을 나 혼자 떠맡게 생겼으니 말야, 게다가 그 녀석의 가죽까지!”

우리가 남의 고통을 덜어 주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내 고통을 줄이기 위해 남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남의 고통을 쉽게 외면하고 즐기까진 한다. 결국 그 고통이 자신의 몫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모르고 당장 편한 것만 좋아한다. 남의 고통을 덜어 주는 것이 자기 행복에 대한 저축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4. 어부와 크고 작은 물고기

한 어부가 바다에 던져 놓았던 그물을 끌어 당겼다. 그물을 펼쳐보니 온통 큰 물고기들뿐이었다. 조그만 물고기들은 모두 그물코 사이로 다 빠져나가 바다로 도망쳤기 때문이다.

위기를 만났을 때 거물들이 더 큰 피해를 본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우화이다. 평범한 사람들은 위기 또한 평범하다. 그래서 삶이 평탄하다. 하지만 사회적 거물들은 한순간 추락한다. 자신의 권력으로 넓은 세상을 호령할 수도 있지만 항상 그물망에 걸릴 위험도 있다. 그물에 한번 걸리면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것이 거물의 비애이다.

그러니까 권력을 잡으려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까지 쓰면서 애쓰지 말고 평범한 행복을 가꾸는 것이 훨

싯 현명한 인생살이라는 뜻이다.

5. 꿀벌과 제우스 신

꿀벌은 인간이 자신의 꿀을 꺼내 가는 것이 배가 아파서 제우스 신에게 꿀을 훔치려고 벌집에 접근하는 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부탁했다. 제우스 신은 꿀벌들의 이런 이기적인 요구에 화가 나서 벌이 누군가를 쏘고 난 뒤에는 죽어 버리게 만들었다.

욕심이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화가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려다 자기가 무너지는 경우, 자기가 했던 일들이 남한테 해가 되는 것이면 그것은 더 큰 부메랑이 되어 자기가 큰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다. 🐝



장애인 당사자 운동을 조용히 이끈

한국DPI 김대성 회장

김대성 회장은 1964년생으로 장애인계에서는 비교적 젊은 단체장이다. 조용한 성격이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한 치의 물러섬도 없다.

김대성은 아마추어 화가이다. 시간이 날 때마다 그림을 그린다. 인물화, 풍경화 가리지 않는다.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리기 때문이다.

중학교 때는 미술에 재능을 보여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그림으로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포기했다. 그때 이후 그림을 잊고 있었는데 2년 전부터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인터넷을 통해 독학으로 터득한 상식으로 그림을 그리지만 주위에서 그림 한 점 달라고 할 정도로 수준급이다. 그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몰두할 수 있는 것을 찾다가 붓을 잡은 것인데 작품을 완성했을 때의 감동이 주는 행복이 너무 커서 그림 그리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

현재 DPI 동북아 의장이고 아시아퍼시픽 부의장으로 국제적인 위상을 높여 가고 있는 눈여겨볼 장애인 지도자이다.



장애인문화예술축제를 처음 만들어서 4회에 걸쳐 주최해 온 단체로서 장애인문화예술축제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장애인인권운동은 궁극적으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최고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인데 그 수단이 문화이다. 문화는 대중적 폭발력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애인문화예술축제를 생각하게 되었다. 처음에 축제 구상은 국제문화페스티벌이었다. 장애인문제를 전 세계적인 이슈로 만들고 싶었다. 우리가 생각한 축제는 한마디로 장애를 드러내는 축제였다. 축제 중간 중간에 재미있는 요소들을 넣어서 대중에게 쉽게 다가가면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시키려고 했다.

초기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와의 갈등이 불가피하지 않았다.

우리는 문화운동 차원에서 축제를 접근하였는데 장애인문화예술단체에서는 순수예술을 활성화시키는 기회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축제 예산의 3~40%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로 배분하였다.

장애인문화예술은 관객이 있어야 한다. 문화운동은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효과적이다. 따라서 문화운동이나 순수예술운동이나 같은 통로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갈등이라는 모습을 보인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장애인계에서 장애인문화예술은 여전히 주요 어젠다가 되고 있지 않는데 왜 그런가.

장애인문화예술이 주요 어젠다가 되지 않는 것은 이슈를 만들어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스포츠는 4년마다 장애인올림픽이라는 국제적인 이슈가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조직도 갖고 있다. 장애인운동의 흐름으로 봤을 때 장애인문화예술은 앞으로 10년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장애인운동은 너무 앞서도 실패한다. 변화는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는다. 문제를 한 가지씩 해결하며 발전하는 것이다. 장애인운동 초기는 교육을 받은 경증지체장애인들이 주도를 했었다. 지금은 중증장애인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

장애인운동의 이슈를 살펴보면 90년대 초에는 고용이었다. 다음은 교육, 연금, 접근성 그리고 자립 생활로 이어졌다. 결국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립 생활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유린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더 탄력을 받았다.

장애인계가 예전처럼 역동적이지 않다는 말들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역할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지.농.맹(지체, 청각, 시각장애) 단체들이 주도를 하였다. 이제는 이슈별 단체 즉 자립 생활, 발달장애, 시설이 더 많은 이슈를 만들어 내고 있다. 각 단체들이 개별 단체 이익을 앞세워 이슈를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빠졌다.

장애인 정치인들의 책임도 크다. 정치권과 함께할 수 있는 이슈를 만들어 내지 않고 자기 정치만 했다. 이렇게 된 데는 정치권도 책임이 있다. 장애인 정치인을 원칙 없이 개인적인 친분으로 비례대표를 주었기 때문에 장애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국회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장애인복지도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 일들이 많은데, 앞으로 정치 판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장애인계에 어떤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가장 우선 되어야 할 건 공직선거법 개정이다. 여성은 30% 할당을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규정은 없다. 장애인 인구수에 비례해서 10% 할당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는 장애인도 각 정당에 참여해서 정당 안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 정치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정치력을 키워야 한다. 어느 날 갑자기 뽑혀 가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장애인 국회의원을 정치인으로 보지 않는다.

앞으로는 중앙정치, 지방정치 모두 정당 정치로 가야 한다고 본다.

처음 장애인운동 시작했을 때는 대학생이었던 것으로 안다. 그때 어떻게 장애인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정립회관은 청소년기 장애인들이 유일하게 장애를 터놓고 얘기하며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대학생 선배들의 활동을 지켜보았다. 나도 대학에 입학한 후 바로 선배들과 소위 장애인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전국지체장애인대학생연합회 정책부장으로 성명서를 쓰는 일을 많이 하였다.

당시 정립회관에는 밀알, 올림터 등의 청년 서클이 있었다. 고등부, 대학생 그리고 졸업 후 취업이 안 된 선배 등이 모여서 장애 때문에 받는 차별을 막연히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차별이 왜 부당한지 이념과 이론을 만들기로 하였다.

당시 우리는 장애인을 도구화시키는 88서울장애인올림픽을 거부하고 법제정 운동을 펼쳤다. 그리하여 대학 4학년 때 장애인의무고용율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을 만들었다.

그때 밤샘을 하며 문건을 만들고, 시위 현장에서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고, 단식도 하고 그러는 과정에 폐결핵이 발병하였다. 그 시절 정말 열심히 했다.

DPI는 국제 조직이어서 국내보다는 국외 활동이 더 주목을 받는 듯하다.

DPI는 그 태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립회관 이사였던 송영욱 변호사님이 한국을 대표해서 국제 장애인 무대에 등판을 하셨다. 당시 국제사회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조직적으로 장애인 권익을 이끌어 가고 있었는데 한국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명분뿐인 DPI korea가 존재하고 있었다. 당시 한국지체장애인협회나 한국시각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가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었다. 다른 나라는 그런 개별 단체들이 DPI 회원단체가 되어 DPI가 통합 단체로 막강한 힘을 행사했지만 우리나라는 회원단체는커녕 회원도 빈약하였다.

그래서 DPI는 1998년 청년운동연합 성격을 가진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와 통합을 하게 된다. 1986년부터 송영욱 변호사님이 회장으로 꼭 이끌어 오시다가 2002년 지금은 고인이 된 연세대학교 교수 이익섭 박사가 DPI 회장으로 취임한 후 국제적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갔다.

2006년 12월에 통과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한국의 활약이 주목을 받았고, 2007년도에 DPI 세계대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등 국제적인 역할을 한국 DPI가 하고 있다.

『e美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장애인문화예술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장애인 기록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데 적극 동감한다. 문화예술의 주체가 장애인이기에 장애인문제와 동떨어져 있지 않다. 함께 가는 것이다. 장애인문화예술의 이슈거리를 『e美지』가 만들어 낼 것으로 본다.

앞으로 어떤 활동 계획을 갖고 있는지.

폐결핵으로 투병 생활을 하며 잠시 장애인계를 떠났었다. 완치 후 무역회사에 취업을 하였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퇴근을 하면 장애인운동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한 가지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서 나는 장애인운동을 선택하였다.

앞으로 장애인운동의 두 축은 DPI(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와 RI(Rehabilitation International)가 될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 장애인당사자주의와 장애인전문가그룹이다. 물론 동의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가야 한다.

새해는 아태지역 장애인의 권리 실천을 위한 인천전략 중간 평가가 있다. 평가의 틀 안에서 무엇이 어떻게 변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될 텐데 정부와 NGO의 평가가 비교될 것이다. 그 내용은 유엔 에스캅에 전달된다.

앞으로는 장애인계가 서로 소통하며 논의된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시간은 만지는 거야 이원코리아 김형수 대표

김형수는 미국에서 심리학 석사와 신경과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고국으로 돌아와 군 복무를 마치고 언론사 기획팀, 금융컨설팅 일을 하다가 2010년 MIT 경영대학원에 입학하였다. 그 때 함께 수업을 듣던 시각장애인 친구가 수업 중에 그에게 물었다.

“지금, 몇 시예요?”

그 친구는 시계를 차고 있었지만 그것은 음성으로 시간을 알려 주는 시각장애인용 시계였다. 자신의 시계를 사용하기엔 조용한 수업 시간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김형수에게 시간을 물었던 것이다. 이것이 만지는 시계인 브래들리 타임피스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2012년 시계 제조회사인 이원을 창업하였는데 이원(ione)은 Everyone의 준말로 모든 사람을 위한 제품을 만든다는 뜻이다. 시각장애인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계를 만들려고 했던 그는 처음에 점자시계를 구상하였다.

시제품을 들고 시각장애인들을 찾아다녔는데 시큰둥하였다. 그 이유는 중도에 실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이 많지 않고,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특별한 시계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크기는 어때?”
 “이 시계 무슨 색이에요?”
 “난 노란색이 좋아요.”

시각장애인들은 생각지 못한 질문들을 쏟아 냈고, 그들이 디자인에 관심이 없을 것이라는 것은 편견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시각장애인은 자신들의 시계가 남들과 달라 보이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한마디로 멋진 시계를 착용하고 싶어 하였다.

김형수는 자기가 갖고 있는 편견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 시작했다. 모든 경계를 허물기로 하였다.

시계는 watch가 아닌 timepiece이다.
 시간을 봐야 한다는 것은 고정관념이다. 시간은 만져서도 알 수 있다.
 시계에 반드시 시침과 분침이 있을 필요는 없다.
 디지털이 편한 것만은 아니다. 아날로그도 편하다.
 디자인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한다.

이런 역발상적 원칙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짓지 않는 시계를 개발하였다.



거기에 ‘브래들리 타임피스’라는 이름을 붙였다. ‘브래들리 타임피스’는 2012년 런던장애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브래들리 스나이더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브래들리 스나이더는 201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군 복무 중 폭탄을 제거하다 시력을 잃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전역 후 1년 만에 런던장애인올림픽 수영 종목에서 두 개의 금메달과 한 개의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브래들리 스나이더의 도전정신과 그 성과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기에 충분했다. 김형수는 브래들리 스나이더를 만나 함께해 줄 것을 제안을 했고, 브래들리 스나이더는 적극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타임피스를 만드는 과정에 값진 생각을 공유하고 지원해 주었다.

브래들리 타임피스는 시침과 분침이 없고 구슬을 손으로 만져서 시간을 알 수 있다.

메탈 바디와 심플한 스트랩으로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다.

그 결과 브래들리 타임피스는 대박이 났다. 비장애인이 더 많이 구입하지만 시각장애인도 브래들리의 주요 고객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하며 서로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이원의 목표는 매출액을 정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다. 다음 제품도 장애인과의 소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이다.

30대 중반의 젊은 김형수 대표 덕분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벽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

트럼프를 통해 본 대통령의 장애인 수용 태도

방귀회(본지 발행인)

이 코너는 450만 장애인의 바람인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문화 전반에서 크고 작게 나타나고 있는 장애인 캐릭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살펴보면서
가장 이상적인 캐릭터를 만들어 가는 장애인 캐릭터 창작실이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각 분야에서 고심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계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볼 것이 있다. 트럼프 같은 장애인 수용 태도를 가진 지도자를 우리는 과연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트럼프는 유세장에서 오른쪽 손을 꺾어 가슴에 붙이고 흔들면서 더듬 더듬거리며 “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라고 말해 대중들의 폭소를 자아냈다. 이것을 미국 CNN방송은 ‘Trump mocks reporter with Disability(트럼프가 장애인 기자를 조롱하다)’고 즉각 방송하였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러시아 출신 뉴욕타임즈 기자 세르지 코발레스키는 뇌성마비 장애로 리포팅을 할 때 오른쪽 팔을 흔들면서 어눌하게 말하는데 그가 트럼프의 거짓말에 대해 지적한 것이 거슬렸던 것이다. 자기가 한 거짓말을 인정하지 않고 기자의 장애를 흉내내며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유권자 앞에서 변명을 한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기본적 예의조차 없는 인물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일이다.



이를 본 플로리다 뇌성마비 소년 제이제이 홈스는 트럼프 후보가 플로리다에 유세를 하러 왔을 때 ‘트럼프는 장애인을 조롱했다’고 시위를 했는데 이를 본 트럼프는 힐러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라며 그를 내보내라고 소리쳐서 장애 소년과 그의 엄마가 유세장에서 쫓겨난 사건도 있었다.

이제 겨우 12살이고 장애가 심해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약하디 약한 장애 소년마저도 정치적 판단으로 쫓아내는 트럼프를 보면서 미국 사회에 휘몰아칠 반장애인 정서가 걱정이 된다.

미국 친화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장애인을 가볍게 생각하는 대통령을 맞이하게 될까 봐 두렵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누가 가장 장애인 친화적인 대통령이었는지는 장애인정책, 장애인 인재 등용, 장애인 행사 참여 빈도,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질적 연구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말할 수 있다.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대통령의 장애인 수용 태도에 대한 곡선은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있는 중이다.

미국 장애인들은 반장애인 정서를 가진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허용해 주었지만 대한민국 450만 장애인들은 트럼프처럼 장애인을 흉내내고 장애 소년을 쫓아내는 반장애인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대통령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되기를 원한다면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장애인복지 공약을 개발하고 장애인과 친화적인 정서부터 갖추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반장애인 정서를 가진 사람은 절단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없다. ●

공고

2017 구상솟대문학상 공모

1991년 『솟대문학』 창간과 함께 솟대문학상을 제정하여 운영하다가 고(故) 구상 시인께서 솟대문학상 발전기금으로 2억 원을 기탁함에 따라 2005년 솟대문학상의 명칭을 ‘구상솟대문학상’으로 개칭하였습니다. 2016년 『솟대문학』이 폐간되어 구상솟대문학상 수상자를 내지 못하였지만 올해부터 공모 형식을 통해 구상솟대문학상을 이어 가게 되었습니다.

- 공모 부문 시 (장애문인 90% 이상이 시인이고, 고(故) 구상 선생께서도 시인이었기에 시 부문으로 정함)
- 상 금 300만 원 (이자 규모로 정함)
- 응모 대상 장애문인 (장애를 가진 문인으로 장애인 등록을 필한 사람)
- 응모 작품 미발표 신작 10편
- 원고 마감 6월 말일(매해 동일)
- 첨부 서류 간단한 자기소개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작품 접수 이메일 및 우편 접수(팩스 불가합니다)
이메일: Klah1990@hanmail.net | sdmh1991@naver.com
우편: (우)08504 서울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지식산업센터 B동 2506-2호

구상솟대문학상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장 : 김초혜(시인)
- 운영위원 : 김재홍(문학평론가), 김진환(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방귀희(『e美지』 발행인 · 방송작가)
오진권(이야기가있는외식공간 대표), 유자효(구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 시인)



『e美지』는 독자와 함께 만드는 매거진입니다!

원고 및 콘텐츠 모집

/ 원고 모집 / 시, 시조, 동시: 3편 이내
단편소설: 200자 원고지 50장 이내
수필 및 콩트: 200자 원고지 20장 이내
동화 및 미니픽션: 200자 원고지 30장 이내
비평: 200자 원고지 30장 이내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 콘텐츠 모집 / 미술, 음악, 대중예술 등 『e美지』의 모든 콘텐츠에 들어갈 내용을 보내 주시면
『e美지』 1년 구독증을 보내 드립니다.

『e美지』 중계석은 장애인문화예술계 각종 소식을 홍보하는 코너입니다. 관련 보도자료 환영합니다.

/ 보낼 곳 / 원고: 홈페이지 www.emiji.net의 숏대문학 코너
인쇄자료: (08504)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지식산업센터 B동 2506-2호 『e美지』
콘텐츠 & 파일자료: 이메일 sdmh1991@naver.com / klah1990@daum.net

/ 기타 / 투고하신 원고는 반환하지 않으니 원본을 따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사/한국장애인예술인협회 02-861-8848

아름다운 영토에 나무 한 그루 심어 주세요!

장애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널리 알리고 장애인예술의 수월성을 확보하며
장애인예술을 통한 장애인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하는 국내 최초의 장애인예술 Magazine입니다.

『e美지』는 독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발간되는 독자 운영체입니다.

아름다운 영토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e美지
아름다운 영토

e美지
아름다운 영토

e美지
아름다운 영토

독 자 엽 서



www.emiji.net

아름다운 영토에
나무 한 그루 심어 주세요!

우표

받는사람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지식산업센터
B동 2506-2호 『e美지』 담당자(앞)

08504





회원 가입서

- 회원 유형: 1년 구독 회원 ☐ 단체회원 ☐ 평생회원 ☐
- 1년 구독 회원: 회비 40,000원, 단체 구독 회원: 회비 100,000원(3권)
- 평생 회원: 회비 300,000원
- 신한은행 140-011-408445(예금주: 사/한국장애인예술인협회)

• 이름(단체명) _____

• 주 소 _____

• 전 화 _____

• 휴대폰 _____

• 이메일 _____

회비 입금 후 전화를 걸어 주시면 바로 회원 가입이 됩니다. (Tel: 02-861-8848)

